청양의 단·당·사

임동권, 정형호, 임장혁 공편



青陽文化院

■ 편자 소개

임동권 충남 청양 출생
문학박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저서 『한국세시풍속연구』 외 다수

정형호 충북 보은 출생
문학박사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저서 『한국민속문화의 지속과 변화』 외 다수

임장혁 서울 출생
문학박사
중앙대학교 부교수
저서 『기우제의 비교민속학적 연구』 외 다수

※ 앞표지사진 : 모덕사 사당 전경
뒷표지사진 : 유의각 정면

청양의
단(壇)·당(堂)·사(祠)

임동권·정형호·임장혁 공편



青陽文化院

발간사



청양문화원장 정재권

청양을 낙후되어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 낙후되었다는 말은 전통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있고 순수하며 전통적 생활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양을 여행하다보면 우리 조상들의 기복(祈福)신앙 상징인 장승도 많고, 단(壇), 당(堂)과 신을 섬기던 신사(神祠)가 많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청양지방에는 민간신앙 즉 민속문화가 아직까지 전승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어 이채롭다.

아주 먼 옛날 수렵시대에는 신을 섬기는 곳이 산에 있었으나, 농사를 짓게 되자 가까운 거리인 산 아래 마을 근처로 이동했다. 노동력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였다. 마을 앞에는 악귀와 부정을 막기 위하여 장승을 세우고, 뒷산에다 산신을 모시고 생활의 안정을 빌었던 것이다.

이번에 조사한 단(壇), 당(堂), 사(祠)는 제의를 지내는 성스러운 유형물로서 단(壇)이란 자연석이나 인공석으로 제물을 올리기 위해 조성되며 당(堂)은 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건립된 건조물이며 사(祠)는 공적이 있는 인물의 위패를 모셔놓고 문중에서 제례를 지내며 공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건조물이다.

우리 문화원에서는 향토문화 자료들을 수집 기록 보존하려는 전통문화 계승 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벌써 10여 년이 되었다. 이 사업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를 지니게 되고, 높은 평가가 될 것이라 믿는다.

이번 조사에도 이 고장 출신인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임동권 박사와 중앙대학교 교수 임장혁 박사, 중앙대학 겸임교수 정형호 박사와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학생들이 수고를 했다.

고마운 인사를 드리는 바이다.

서 문

임 동 권

인간은 오래전부터 신을 섬겨왔고, 신이 존재한 곳으로 단, 당, 사가 있었다.

인간이 신을 섬기고 의지하고 삼아 왔으나 그 기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장담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신의 거처(居處)로 단과 당과 사가 전승되고 있다. 시대의 변화의 역경 속에서도 단, 당, 사가 소멸되지 않고 전승되고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민간신앙(民間信仰)이 아직도 여전히 전승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의 역사는 여러 설이 있으나, 산을 의지하여 나무 열매를 따먹었고 산짐승을 잡아먹는 수렵(狩獵) 생활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수렵시대라 한다.

산에서의 생활은 맹수와 기후에 따라 생사의 위험성

이 많았다. 산에 살면 이러한 일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 산에서의 생활은 산을 담당하고 있는 산신(山神)의 보호를 받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서 산신신앙이 있게 되고 생존하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산신신앙(山神信仰)이 형성된다. 그리고 산신의 거처로 산신당 또는 산신단이 있게 되고 여기에 산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게 되었으니 산신신앙이다.

단은 일반적으로 당사(堂舍)가 없이 평지보다 약간 높게 흙이나 돌을 한 뼘쯤 되게 쌓아 제단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당사가 있음에도 산신당 또는 산제당이라 부르는 경우는 원래는 당사가 없었으나 중년에 마을 사람들의 신앙심과 경제력에 의해서 당사를 지어놓고 여전히 단 또는 당이라 부르는 일이 있다. 당·단의 진화는 원래는 단순한 단에서 시작하여 당사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본다.

산신을 모시는 신사(神祠)가 있는 경우 마을 사람들의 신앙심과 재정의 역량이 있어 당사(堂舍)를 짓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산신각(山神閣), 산신사(山神祠)라 부르는 일도 있다. 마을 사람들의 신앙도와 재력에 따라 다양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양은 복판에 칠갑산(七甲山)의 많은 산자락이 덮고 있다. 따라서 산신신앙이 매우 두텁다. 또 마을에 따라 신을 섬기는 당과 단이 많이 전승되고 있어 향토성을 알 수 있다.

청양 문화원에서는 향토문화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계승하려는 의욕이 강해서 문화사업으로 향토문화조사에 주력하고 있어 민속학도로서 매우 고맙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조사자	임동권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정형호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임장혁	중앙대학교 부교수
조사보조원	노현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오세원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임윤호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3학년
	최성희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3학년
	이현지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2학년

목 차

발간사 / 3
서문 / 5

1. 壇·堂·祠의 개설 | 13
2. 청양의 동제와 당 | 17
3. 청양의 단·당 | 21
   1) 단(壇) | 22
      (1) 정산면 천장리의 칠갑산 산제단 | 23
   2) 당 | 35
      (1) 운곡면 신대리 산신제, 노신제 | 35
      (2) 운곡면 위라리 1구의 위라리 산제당 | 40
      (3) 운곡면 후덕리 대동마을 성주산신당 | 45
      (4) 대치면 광금리 쇠밭마을의 산제당 | 52
      (5) 대치면 농소리3반 원농소마을의 노신제 | 57
      (6) 대치면 농소리 유점마을의 산제당 | 63
      (7) 정산면 대박리의 당산 산제당 | 72
      (8) 청남면 천내리의 산제당 | 74
      (9) 청남면 원왕진의 산제당 | 78
      (10) 남양면 봉암1리 은행나무제(향단제) | 82
      (11) 남양면 홍산리 지방바위 당산제당 | 89
      (12) 화성면 형산리 마을의 산신제당 | 101
      (13) 비봉면 관산리 산제당 | 104
      (14) 비봉면 중묵리 하묵 산제당 | 109

3) 당 + 단 | 113
(1) 대치면 광금리 너븐밭 산제당 | 113
(2) 청남면 청소리의 산신제와 하산제 | 118

4. 청양의 사당 | 123

1) 모덕사 | 124
(1) 건립연혁 | 124
(2) 제의 공간 구성 | 125
(3) 제의 내용 | 126
2) 영모재 | 130
(1) 건립연혁 | 130
(2) 제의 공간 구성 | 130
(3) 제의내용 | 131
3) 명인재 | 133
(1) 건립연혁 | 133
(2) 제의 공간 구성 | 133
(3) 제의내용 | 134
4) 현모재 | 134
(1) 건립연혁 | 134
(2) 제의 공간 구성 | 135
(3) 제의내용 | 137

5) 유의각 | 140
(1) 건립연혁 | 140
(2) 제의 공간 구성 | 140
(3) 제의내용 | 142

6) 상의사 | 146
(1) 건립연혁 | 146
(2) 제의 공간 구성 | 146
(3) 제의내용 | 146

7) 청대사 | 149
(1) 건립연혁 | 149
(2) 제의 공간 구성 | 150
(3) 제의내용 | 150

8) 율리사 | 151
(1) 건립연혁 | 151
(2) 제의 공간 구성 | 153
(3) 제의내용 | 153

9) 두촌사 | 154
(1) 건립연혁 | 154
(2) 제의 공간 구성 | 155
(3) 제의내용 | 155

5. 청양의 단·당·사 고찰 | 157

1) 청양의 단·당 고찰 | 158

2) 청양의 사당 고찰 | 162

■ 제보자 명단 | 165

1. 壇·堂·祠의 개설



공동체를 구성한 마을 사람들은 어떠한 공간을 선택하여 신에게 자신들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을까? 청양군의 많은 마을에서는 아직도 지역주민들이 동제를 지내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동제를 지내는 것은 아직도 전통적인 관습이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자제품이 농촌에도 보급되어 일상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주민들의 생업은 농업이 중심이 되고 있다. 동제는 주민의 협동과 화합으로 유도하는 계기가 된다.

당제를 지내는 제의 공간은 대부분 성스러운 장소로 여겨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동제는 제신(祭神)을 모시고 제단(祭壇)에 음식을 차려놓고 지내기에 제사공간에는 단(壇)이나 당(堂)이 있기 마련이다. 제당(祭堂)에는 신을 모신 곳도 있지만 동제를 지낼 때에 사용하는 제기(祭器)나 솥·항아리 등의 제사도구가 보관되어 있다.

청양은 '산신제', '목신제', '당제', '장승제', 등으로 불리는 여러 형태의 동제가 전승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신령이 깃들여져 있다고 여기는 바위나 나무 등 자연물을 대상으로 마을의 안녕과 풍요와 건강 등을 기원한다. 이러한 성스러운 대상물들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서 산신(山神) 또는 마을을 개척한 인물의 조상신(祖上神)으로 신앙의 대상이 된다. 이들에 대한 제례에는 신에게 바칠 제물을 진설하게 되므로 자연히 제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제단은 대부분 제사 공간 내의 평평한 자연석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공으로 돌을 깎아 사방형의 제단을 제작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당은 신을 모시거나 또는 제기를 보관하는 기능이 있다. 초기의 당은 제기를 보관하기위해 지어졌다. 산신당은 대부분 산신이 거쳐하는 곳으로 생각되는 산상(山上)에 위치하고 있다.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제물을 운반하고 이곳에서 제물을 조리하여 제례를 지낸다. 따라서 당은 음식이나 제례도구를 매번 운반하여 지내기 어려우므로 이를 보관하는 공간이 필요하여 건립하였다. 대부분의 동제는 정월 초 또는 10월 중순경에 지낸다. 추위를 피해 제례를 지내기 위해 신령이 깃든 자연물의 주변에 제당을 건립하여 실내에서 제례를 지냈다. 즉 제례가 실외에서 실내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신이 거처하는 공간으로 당은 자리매김 되었다. 제당에는 산신도(山神圖)를 모셔놓기도 하는데, 청양의 당에는 산신도가 있는 당은 거의 없다.

마을공동체는 동일 성씨(姓氏)의 구성원이 중심이 되어 마을 단위를 이루었다. 특정 성씨의 사람이 마을을 개척하였고 그를 중심으로 동일 성씨의 친족들이 마을로 이주하여 동족마을을 형성하였다. 동족마을의 사람들은 자신 마을의 출신자가 국가에 공헌을 한 인물을 배출하면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렇게 사당(祠堂)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유교의 영향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유교를 숭상하는 정책에 따라 사당을 시행토록 하였다. 조선 선조이후 사대부 양반층은 사당을 지어 4대 봉사를 하도록 하였다. 국가는 유공자들에게는 사당을 세우도록 하였고 또는 문중에서 조상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기도 하였다. 사당 안에는 충신이었던 고인의 신주를 모시고 촛대 한 쌍과 향상(香床)을 놓는다. 사당에서의 제사는 유교식으로 지내며 문중, 향교,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재를 올린다.

제례를 지내는 성역에 있는 역사적으로 단, 당, 사의 순으로 건립되어 오늘까지 전승되고 있다. 특히 청양군에는 초기형태의 단이나 당이 남아 있어서 이들의 발달과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문화재라 할 수 있다.

2. 청양의 동제와 당



충청남도는 서쪽으로 서해안과 접해있으며, 동쪽의 내륙지방은 계룡산, 칠갑산 등 높고 험한 산이 자리 잡고 있기에 내륙과 해안이라는 대비되는 자연환경이 공존하는 곳이다.

동제에 있어서도 내륙지역과 해안지역과의 차이가 있다. 해안지역에서는 동제를 '당산제' '당제' '당마제'등 '당'이란 명칭이 많이 쓰이고 있다. 제의는 산신제계통이 많이 보이기는 하지만 거리제도 행해지고 있다. 제의는 무녀가 주관하는 당굿으로 풍어와 해상에서의 안전을 기원한다. 제물로는 해산물을 많이 쓰며 마을주민이 부정이 없는 사람이면 거의 참석을 한다.

내륙지방에서는 '산제' '산신제' 명칭이 많이 쓰이는데 산이 많아서 '산제'란 명칭이 두드러지게 많다. 제관이 제의를 주제하며 유교식으로 제의를 지낸다. 농경지대로서 풍농을 기원하는데 금기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에 따른 동제의 목적이나 의의의 차이는 내륙지방의 농경중심과 해안지방의 어로를 중심으로 하는 생업에서 기인된 것이다.

청양의 경우 칠갑산을 중심으로 한 내륙산간지방으로 서쪽으로는 해안지방인 보령시와 맞닿아있고 서남

쪽으로는 금강을 경계로 부여군과 마주하고 있으며 동으로는 공주시, 북으로는 예산군 사이에 있는 내륙지형이다.

내륙지역이기는 하나 평야가 많은 충청남도의 특색과 다르게 산지지역이 많다. 차령산맥의 여맥이 동북에서 서남으로 뻗어 서북부의 동남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도립공원 칠갑산(561m)를 비롯하여 월산(575m), 구봉산(433m), 우산, 비봉산, 대박산등 구릉과 높은 산이 많아 비교적 경지와 평야가 적다.

청양 동제의 종류는 크게 산신제, 동화제, 당산제, 장승제, 목신제(木神祭), 유왕제로 나눌 수 있다. 청양의 동제의 경우에도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지금까지 조사된 56곳의 당제중 산제 또는 산신제가 29곳으로 그 비율이 약 51.78% 정도일 정도로 당제 중 산제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산제가 다른 당제에 영향을 준 사실도 발견되는데 그 예로 신제, 당산제는 그 유형과 신격이 유사하다. 동화제도 신격이 산신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산신제를 계승하거나 파생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청양의 단, 당



동제에는 신을 모시는 단 또는 당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단만 존재하는 경우, 단과 당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당만 존재하는 경우, 단과 당이 둘 다 없는 경우, 단과 당이 아닌 다른 것이 단과 당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청양군의 동제는 단 또는 당이 존재하는 산신제·당산제·장승제·목신제(木神祭-정자나무제나 은행나무제 등나무에 제를 드리는 동제)·유왕제가 있고, 단 또는 당이 존재하지 않는 동화제·봉화제·거리제가 있다. 산신제·당산제·장승제·목신제·유왕제는 제를 드리는 장소가 분명하고 신격도 분명하지만, 동화제·봉화제·거리제는 제를 드리는 장소가 상대적으로 넓고 이 중 거리제의 경우는 신격이 분명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1) 단(壇)

동제에 있어 제를 드리는 제례 공간의 발전 형태는 흔히 바위와 수목과 같은 자연물→단→당의 형태로 발전해왔다고 여겨진다.

단이란 신에게 희생이나 제물을 바치기 위하여 만든 제단을 일컫는다. 제단의 형태는 흙을 돋아 만들거나,

자연석 그대로를 사용하거나 또는 돌을 깎아 만드는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청양의 동제에서 단의 예로는 산신단·장승단 등이 있다.

(1) 정산면 천장리의 칠갑산 산제단

① 제례 공간의 형태

천장리는 칠갑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 아래에 위치해 있는 마을로서 산세가 험준하다. 계곡이 마을 곳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뒷산 아래 산을 끼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산촌마을이다.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에서 지내는 제의의 명칭은 산신제이다. 제단의 명칭은 칠갑산 산제단, 산신젯반이며, 천장리 산신단은 산신당이 없는 단의 형태이다. 원래는 칠갑산 정상에 있는 바위의 형태였으나 후에 그 위치가 내려와 칠갑산 말랭이(산마루. 산등성이)에 제단이 만들어졌다. 이를 '산신젯반'이라고 부른다.



〈그림 11〉 천장리 산제당 입구

산신단은 상탕, 하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제단의 형태이기 때문에 위패도 없고, 그림도 없고, 장소만 정해져있다. 평소에는 사람의 출입을 금하여 수풀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고요한 분위기이다. 산신단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금줄과 같이 쇠자물쇠가 쳐있는 쇠줄이 둘러져있다. 벌목을 하러 오는 외지인을 막고 산신단에 부정이 타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금해놓았다. 입구에서 약 20분 정도 올라가면 계곡이 있으며 '성지' 라고 쓰여 있는 돌과 함께 샘이 있다. 이 샘에서

제를 지내기 전 몸을 깨끗하게 한다. 샘에서 약 15분 정도 더 올라가면 산신단이 있다. 산신단은 '칠갑산산신제단'이라고 적힌 바위아래 너른 바위의 형태이며, 그 위에 수령이 약 200년 된 소나무가 5그루 있고 주변에도 소나무가 많다. 이 소나무들은 천장리 마을 사람들이 신목(神木)으로 신성시하는 것이며 앞으로 몇 백년을 산제를 이어갈 나무로 여기고 있다. 원래는 수령이 약 700년된 참나무가 제단 위쪽에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때 베었고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다.

산신제단 동쪽에는 불에 탄 자리가 넓게 남아있는데 이는 산신제가 끝난 뒤 마을 사람들에게 산신제가 끝났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불을 놓는 자리이다. 산신제를 치르는 겨울에는 수목이 말라 길이 트이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이 불이 보이며 이 불을 보면 마을사람들이 산신제가 끝났음을 안다고 한다. 이를 '알불' 이라고 한다.

지금과 같이 산신제단 주변을 정리한 것은 3년 전이다. 3년 전에 산신제단까지 올라오는 길도 닦아놓고 바위에 글씨도 새기고 산신제단을 깨끗이 정비하였다. 그 전에는 산 정상에 있는 바위에까지 가서 제를 지냈다. 예전에는 산 정상 바위가 '상당'이고 지금의 제단이 '하

당'이었으나, 현재의 제단을 정비한 후부터는 산 정상 바위까지는 가지 않고 현재의 제단에만 제를 지내게 되었으며 현재의 제단을 '상당'이라고 부르고 아래에 있는 샘을 '하당'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내년쯤에 지금의 제단이 있는 자리에 산제당을 건립할 예정이며, 올해 그 터를 닦아놓았다.



〈그림 12〉 산제당 올라가는 길

② 제의 형식과 절차

천장리는 산제와 장승제를 같이 지내고 있다. 제의

시기는 2001년 조사 시에는 12월 말일에 지냈다. 그 이유는 정월 설전이라 외부인이 덜 오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부정을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제의 시기가 변화하여 10월 달 중 택일하여 지냈다. 택일을 할 때는 "산신하강일"이라고 하여 산신이 내려오는 길일을 봐서 잡는다. 이 때 동계장, 이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 등이 모여서 정한다. 제관선출은 12월초에 날짜를 보는데 동계장, 이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등이 모여서 택일한다. 산신 내려오시는 길일이라 하여 책을 보면서 택일한다.

제관과 화주는 합쳐서 3명을 선정하는데 화주는 2명으로 상당, 하당을 따로 뽑으며, 제관을 한 명 뽑는데 따로 축은 없다. 화주는 제사음식준비와 제반사항을 준비한다. 생기 복덕이 제일 좋은 사람으로 선정하고 복인이라 하여 부모나 자기상이 있는 자, 부인이 임신하지 한자, 시신을 본 사람은 제외된다. 과거에는 결혼한 사람 중에서 60세 미만인 자를 뽑았다. 그 이유는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먼데 그 거리까지 제물을 다 지게에 지고 가야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60세가 넘으면 제관을 맡기 어렵다하여 60세 이상인 자는 뽑지

않았다. 그러나 3년 전부터는 제단 앞까지 길을 닦아 놓아서 산비탈을 올라갈 수 있는 트럭(일반 트럭이 아닌 산길을 올라갈 수 있는 트럭이며, 이 트럭을 사는 비용은 3년 전 관에서 기금이 나왔을 때 마련하였다.)에 제물을 모두 실어서 나르기 때문에 굳이 나이제한을 둘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제관을 맡으면 나이든 분들은 힘드실까 염려하여 젊은 사람들 위주로 제관을 선출한다. 제의를 드릴 때 과거에는 제관들만 제의를 드리러 올라갔으나 현재는 트럭으로 올라갈 수 있는 편의성 때문에 노인들도 같이 올라가서 제의를 보실 수 있다.

제의에 사용되는 비용을 살펴보면, 2001년 조사 당시에는 마을의 43호가 남아서 지냈다. 현재도 마을 주민은 모두 참여하며 과거와 같이 호당 만 원 정도를 걷어서 제의를 지낸다. 이 돈만으로는 비용이 모자라지만 동네 유지뿐만 아니라 관에서도 어느 정도 협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비용이 충당된다.

제물에 있어서, 시장은 동네 주민들(동계장, 이장 등)이 가서 장을 봐온다. 시장 보러 가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상을 당한 사람, 부인이 임신을 한 사람, 시신을 본 사람 등)

은 제외되며,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참여하지 않는다. 특별히 지정해 놓은 가게는 없고, 장을 보러 간 사람들이 봐서 좋은 물건으로 고른다. 장을 볼 때에 특별한 금기 사항은 없고 제사에 올릴 물건에 맞추어 사기만 하면 된다.

제사음식으로는 비린 것(생선)은 쓰질 않는다. 과일과 동네에서 농사지은 쌀로 한 떡, 밥, 그리고 고기는 돼지를 쓴다. 돼지는 산 놈을 끌고 와서 화주 집 앞에서 제사 당일에 동네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부정한 사람은 제외) 준비를 한다. 통돼지를 통째로 제물로 쓴다. 내장 등도 버리지 않고 전부 깨끗이 닦아서 전혀 빼놓거나 삶지 않고 그대로 다 넣어서 제물로 쓴다. 미역과 김도 쓰는데, 이는 비린 음식으로는 보지 않기 때문에 제물로 사용한다. 미역과 김은 옛날부터 제물로 같이 사용하였으나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2009년 조사에서도 그 이유는 발견되지 않았다. 과일은 삼색실과이며 깎지 않고 그대로 올린다. 산신제 떡은 백무리를 쓴다. 장승제 때는 채떡(고물 넣은 떡)을 올린다. 술은 집에서 제사 지내기 일주일 전에 빚어 놓는다. 따라서 화주는 제사 날짜가 정해지고 화주로 뽑히면 집 앞에 금줄을 치고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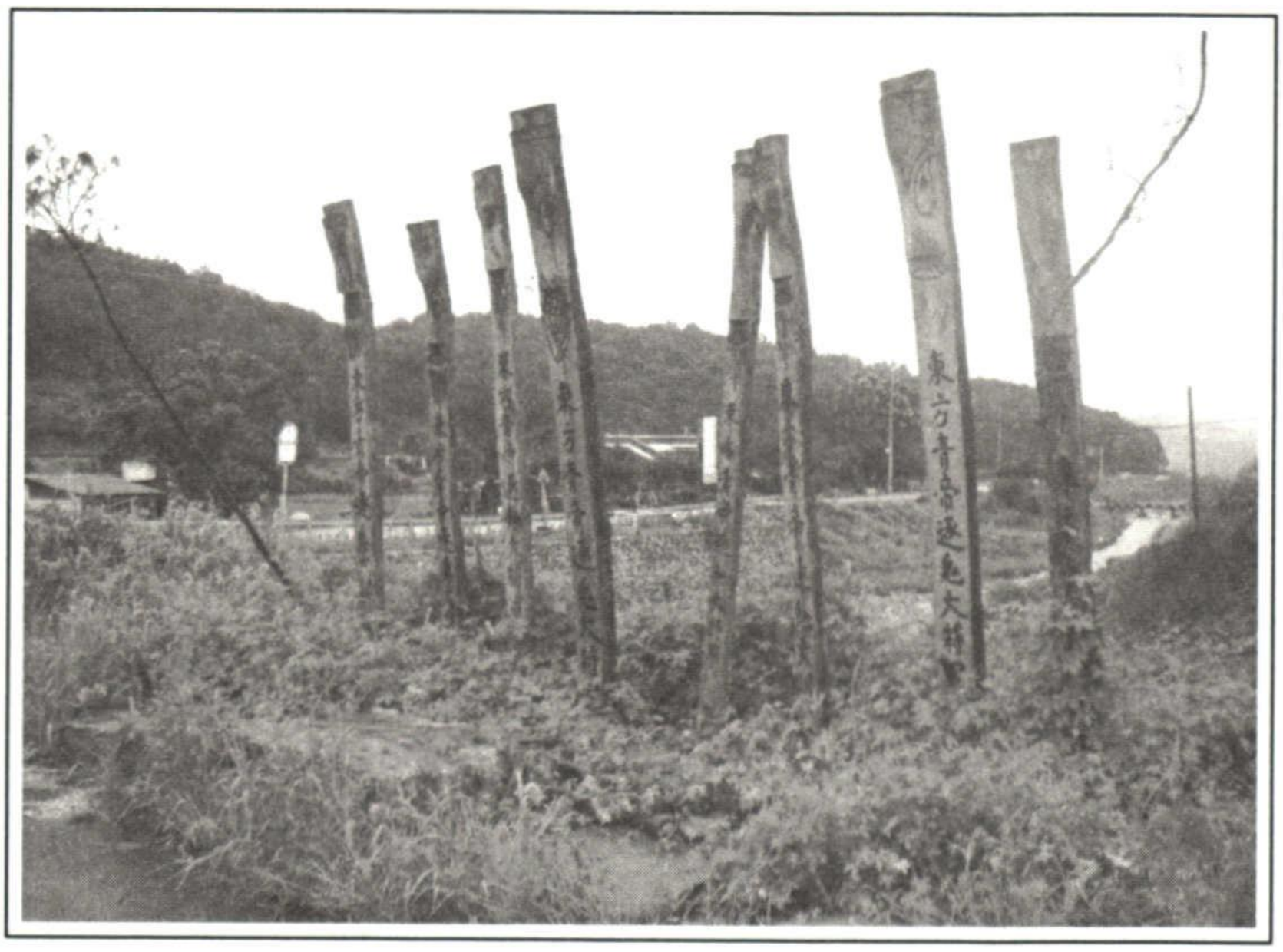
로 술을 빚는다. 술은 예전에 누룩으로 빚었으나, 지금은 쌀만 이 동네에서 나는 걸로 하고 담그는 재료는 거의 사다가 한다. 포는 북어포를 쓰는데 말려서 쓰므로 비리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쓰는 것이다. 음식 준비는 화주의 집에서 이루어지는데, 화주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깨끗한 사람들이 가서 같이 마련한다.

제사 지내는 시간은 밤 10시 반 정도이다. 먼저 술을 석 잔 올리고, 세 번 절한 뒤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제관이 올리는데, 상탕, 하탕, 장승제 이상 세 군데에서 동네 전체 호수가 40여 호가 넘는데 그 수만큼 각각 다 올린다. 소지를 올리는 순서는 산제 때는 산신님 소지를 제일 먼저 올리고 장승제에서는 노신님 소지를 가장 먼저 올리며 화주와 제관의 소지를 올리고 나머지 동민(洞民)의 소지를 연장자 순으로 올린다. 여자는 올리지 않는다. 따라서 소지 올리는 순서는 산신님(장승제에서는 노신님) – 화주 – 제관 – 연장자 순서로 올린다. 상탕·하탕·장승제 이상 세 군데에서 똑같은 순서로 올린다. 현재는 상탕과 장승제(하탕)을 올리는 격이다.

상탕, 하탕은 제관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각에 지냈다. 장승제는 상탕 하탕 제사가 끝나면 상탕

제관, 하탕 제관, 화주가 모두 모여 다 같이 지낸다.

현재는 상탕과 하탕이 바뀌어서 예전의 상탕인 바위에서는 제를 올리지 않고 예전의 하탕인 제단이 상탕이 되었기 때문에 제단에서 상탕제사를 지내고, 하탕인 장승에서 제를 지내는 것을 하탕제사이자 장승제라고 부른다. 상탕제사인 산신제를 먼저 올리고 내려와 장승제를 지낸다.



〈그림 13〉 천장리 장승

천장리에서는 상탕제물을 하탕에도 쓰지 않고, 상탕과 하탕의 제물을 따로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상탕, 하

탕, 장승제 세 곳의 음식을 준비했다. 그러나 3년 전부터 칠갑산 정상 바위에는 가지 않고 상탕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상탕음식과 장승제 음식 두 곳의 제물만을 마련한다. 단, 돼지만 두 번 사용한다. 과거에는 돼지는 상탕에서는 안 쓰고 하탕에서 쓰고 그 돼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장승제에서도 사용한다. 지금은 과거의 하탕이 상탕이 되었으므로 제단에 돼지를 올리고 그 돼지를 장승제에서도 사용한다.

제사 음식은 상탕, 하탕에 조금씩 떼어놓는데, 산신제에서는 산신님 잡수시라고 떼어놓고, 장승제에서는 노신님 잡수시라고 떼어놓는 것이다. 모든 음식을 고루고루 다 떼어놓으며, 바닥에 그냥 놓는 것이 아니라 백지 위에 올려서 놓는다. 상탕과 하탕 각각 똑같이 떼어놓는다.

'알불'이란, 동네의 장정들이 제사 지내는 곳에 생나무를 해놓았다가 저녁 먹고 제사 지내러 가서 거기에 불을 놓아서, 나무를 탄불이라는 뜻으로, 나무를 타고 난 불덩어리라는 뜻으로, 그 불로 밥을 해서 제를 지낸다. '노기' 올린다고 한다. 노기 그릇 등은 회관에 보관해 둔다. 현재는 알불의 의미가 제의를 지낸 후에 제의

가 끝났음을 알려주는 불로 바뀌었다.

제가 끝나는 날 결산하고 돼지를 삶아서 먹으며 논다. 결산하고 농악놀이, 윷놀이들을 한다.

③ 금기와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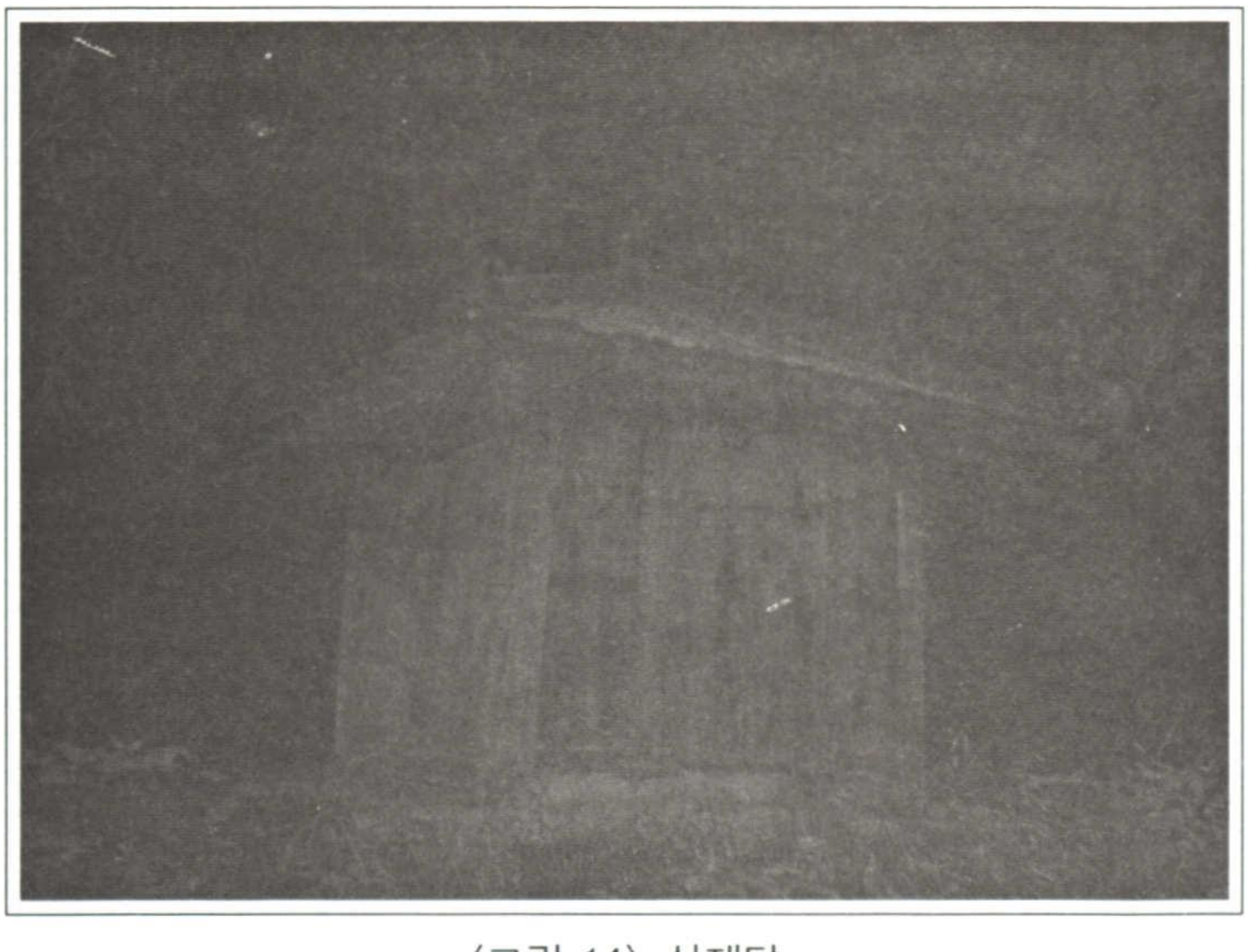
제관으로 선정이 되면 외지출타를 하지 않는다. 근신기간은 1주일이며 회관에 있는 농기를 화주네 세우고 금줄을 드린 후에 산에서 퍼온 황토를 뿌려둔다. 집안에서 정성을 드리는데 예전에는 얼음 목욕재계를 하였고, 술, 담배, 비린고기, 고기는 먹지 않는다. 제관들도 기를 꽂아놓지는 않지만 마음으로는 똑같이 정성을 들인다. 옛날에는 추위에도 얼음을 깨고 목욕을 했다고 하나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술, 담배도 끊고 비린 음식, 고기 등도 일절 금한다. 이때는 농한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일이 없어서 출입을 제한하여도 상관없다. 동네 입구에는 금줄을 쳐둔다. 외지 사람들에게 이 동네가 지금 정성을 들이는 시기임을 알려주어, 외지 사람 특히 부정한(상을 당한 사람 등) 사람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였다. 황토도 같이 뿌린다. 황토는 산에 깨끗한 산자락에 가서 퍼다 놓는다. 외부인이 모르

고 들어올 경우엔 동네 사람이 이를 저지하여 나가도록 한다. 외부인은 무조건 참여를 못한다. 외지인 중에서도 특히 여자와 총각은 절대 참여하지 못한다.

천장리에 전해 내려오는 산신제 관련 설화가 있다. 산신제를 지내는 날짜를 잡고 준비하는 도중에 동네에 초상이 났다. 그렇다고 해서 산신제를 미룰 수도 없고 해서, 산신제는 산신제대로 지내고 초상난 집도 상을 치렀다. 그런데 노인 양반들이 산신제를 지내고, 칠갑산이 세 번 울었다는 말을 하더라. 천둥 울리듯이 산이 울었다고 한다. 그 뒤부터는 더욱 정성 들여 올려야겠다고 동네사람들이 느꼈다. 이 동네에서는 새로 이사온 사람들도 이 산신제에 대해서는 전혀 거부감을 갖지 않고 협조해준다.

2) 당

(1) 운곡면 신대리 산신제, 노신제



〈그림 14〉 산제당

① 제례 공간의 형태

운곡면 신대리는 산신제를 지내는 건물을 산제당이라고 부른다. 산제당은 나무로 벽을 만들고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형태로 되어 있으며, 안에는 신위가 놓여 있다. 산제당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2곳의 샘이 있는데, 이 샘은 각각 손을 씻거나 메를 짓는 데에 사용된다. 산신제를 지내고 난 후에는 정자나무 옆에 세워져있는

두 개의 장승 옆에서 노신제를 지낸다.

② 제의 형식과 절차

제의는 10월 초이튿날에 산신제와 노신제를 지낸다.

산신제는 밤 10시 경에 시작하며, 노신제까지 마치면 새벽 3시가 된다.

산신제는 산신을 위하는 제의로서 100여년 이상의 유래를 가지고 있으며, 일제강점기에도 없어지지 않고 유지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제관선출은 9월 20일경에 마을사람들이 생기복덕을 가려 제관, 축관, 도관을 뽑는다. 3일 동안 목욕을 하고 깨끗이 몸가짐을 하고 집 앞에 황토를 6무더기 뿌려놓는다. 돼지를 잡는 유사들도 따로 선출하여 부정하지 않게 잡는다. 그리고 사례로 산신제에 올렸던 돼지고기 2근씩을 준다.

예전에는 걸립을 하여 집마다 성의껏 자금을 모았지만 현재는 마을재산이 있어 따로 걷지 않는다. 3년 전부터 논 10마지기 정도의 마을재산이 확보되어 있다.

예전에는 소를 잡았으나 현재는 검정돼지를 사용하고 있다. 예전에는 돼지를 산신당 옆에서 잡았으나 현

재는 마을에서 잡아 당일 경운기를 사용하여 돼지를 올려다 놓는다. 삼탕을 해서 올리고 대추 밤 감과 포를 한 마리 올린다.

제관은 3일 동안 깨끗이 몸을 씻고 집 앞에 황토를 6 무더기 뿌려놓는다. 산신제 지내는 날이 되면 돼지를 잡고 산신당을 미리 청소해 둔다. 마을에서 저녁을 먹고 10시정도부터 1시간가량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2곳의 샘이 있는데 한 곳에서 세수를 하고 나머지 한 곳에서 매를 짓기 시작한다.



〈그림 15〉 샘

진설을 한다. 산신당 문을 연다. 산신당에 신위가 있다. 미리 잡은 돼지의 머리를 동쪽에 둔다. 향을 피우고 제를 올린다. 음복하고 제사지내고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마을 사람들이 다 올린다. 산신당 뒤에다 돼지고기 한 근 정도를 묻고 내려오면 12시에서 12시 30분 정도가 된다. 조금 잠을 자고 나서 노신제를 지내러 정자나무로 간다. 정자나무 옆에 장승이 있는데 그 곳에서 간단히 노신제를 한다. 다 끝이 나면 3시 정도가 된다. 예전에는 끝나고 함께 밤을 세며 놀았지만 현재는 그냥 잔다고 한다. 결산은 제의가 모두 끝난 후인 새벽에 한다.

③ 금기와 기타사항

제관은 제를 지낼 때까지 항상 몸을 깨끗이 한다. 황토를 6무더기 뿌려놓는다.

여성이나 부정한자는 산신제와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산신제를 지내러 올라가서 매를 지을 때 밥이 다 될 때 까지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

노신제를 지낼 때 정자나무 옆의 장승은 본래 해마다 나무로 깎았다. 현재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콘크리트

로 만들어 놓은 지 3년 정도가 되었다. 교인들이 파손을 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했던 적이 있다.



〈그림 16〉 석장승 1



〈그림 17〉 석장승 2

(2) 운곡면 위라리 1구의 위라리 산제당

운곡면 위라리 1구는 마을 주변에 병풍처럼 산이 둘러진 가운데 있는 약간의 평지에 자리 잡은 마을이다. 전체적으로 밭이 많으며, 주변의 산들은 그다지 높지 않은 완만한 구릉형태를 띄고 있다. 마을에는 개천이 많아 다리가 많다. 가옥은 3-4채씩이 모여 옹기종기 형성되어 있으며 형성된 가옥들마다 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그 아래 개천들이 흐른다. 가옥들 간 거리가 꽤 길며, 전체적으로 뒷산 쪽으로 갈수록 지대가 높아져 언

덕 위에 자리하고 있는 가옥들도 많다.

위라리는 연안 명(明)씨(서촉 명씨) 집성촌이다. 본래는 인근의 후덕리가 명씨의 본거지이며 위라리는 후덕리에서 14대~15대 정도 거주해 왔다. 산제도 명씨 주도로 지내다 동제가 되었다고 전한다.

① 제례 공간의 형태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위라리 1구 텃골 중턱에 제당이 위치해 있다. 제의의 명칭은 산제이고, 위라리 산제당 은 마을 뒷산인 텃골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마을에서 산쪽으로 약 20여분 들어가서 위치해 있으며, 완만한 구릉형태이기 때문에 산제당까지 올라가는 길은 험하지 않으며 길도 잘 닦여 있다.

과거에 있던 당은 초가집에 흙벽으로 된 1칸 정도의 크기였으며 현재는 기와지붕에 시멘트 건물로 개축된 상태이다. 처음 지은 시기는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개축한 시기는 산제당 상량문에 "단기 4309년 병진 10월 13일 신시(申時)"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으며, 이로서 서기 1997년에 개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당의 크기는 개축하기 전에 비해 조금 작아졌

으나, 대략 세로 2m, 가로 3.5m 정도로 산제당 가운데 큰 편에 속한다. 당에는 2개의 문이 있으며 한 쪽 방에는 위패가 모셔져 있고 위패에는 '山神之位'라 쓰여 있다. 또 다른 방에는 화덕이 있고, 질그릇, 제기 등이 보관되어 있다. 따라서 한 방은 위패를 모시고 제를 지내는 방이며, 다른 방은 제를 지내는 도구들을 보관하고 음식을 만드는 방이다. 당의 우측으로 작은 웅덩이가 2개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은 쌀을 씻는 곳이고, 아래 있는 것은 손을 씻는 곳이다. 쌀을 씻는 샘은 야트막하고 넓으며, 손을 씻는 샘은 깊고 좁다. 이 웅덩이들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제를 지내기 위해 인공적으로 파 놓은 것이다.

② 제의 형식과 절차

제의 시기는 예전에는 산신제는 음력 11월 1일에 지냈으며, 성황제는 정월 보름에 지냈으나 현재는 11월 1일에 통합해서 하루에 모두 지낸다.

음력 10월 20일에 화주 한명과 축관 한 명을 을 선정한다. 화주에 뽑히면 집에 금줄을 치고, 제를 드리기 3일 전부터 목욕재계하며 기도를 드린다. 제관은 엄격히 나이를 따지지 않으며 결혼을 한 기혼자이기만 하면

화주를 할 수 있었다.

밤, 대추, 꽃감, 통북어 2마리를 올리며 밥은 산제당에서 직접 만들어 올린다. 한편 과일은 집에서 제사 지낼 때와 달리 깎지 않고 그대로 올린다. 음식은 백지에 싼 다음 왼쪽부터 젓가락, 포, 조(棗), 율(栗), 이(梨), 시(匙), 밥, 편, 촛불의 순서로 놓는다. 떡은 백편(백무리)를 쓴다. 가장 뒷자리에 돼지를 놓으며 이 때 돼지는 수퇘지만을 쓴다. 일제강점기에는 돈이 없어 흑염소도 사용했다. 그 후 해방 직후인 약 55년 전에는 소를 통째로 올리다가 6.25 사변 이후 마을이 어려울 때는 소머리만 사용한 적도 있다. 근래에는 주로 흑돼지를 사용한다. 내장 및 부산물을 다 빼 놓고서 깨끗한 상태로 각을 떠서 올린다. 돼지는 11월 1일 날 오전에 잡아서 오후 5시 경에 올린다.

산제에는 화주, 축관, 돼지 잡는 사람을 합쳐 4사람이 올라간다. 절은 4배씩 3번 한다. 화주가 먼저 4배한 다음에 집에서 만든 식혜를 올린다. 이곳에서는 전통적으로 술은 사용하지 않는다. 식혜를 산제당 뒤의 바위에 붓고 다시 잔을 올리고, 축을 3번 읽는다. 그리고 4배한 다음에 소지를 한다. 소지는 축관이 하는데, 각

집안의 세대주 한 사람씩 올린다. 30년 전까지는 마을 주민들 모두 소지를 올려주었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세대주 한 사람만 올리는 것으로 바꾸었다. 만약 세대주가 여자면 올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화주, 축관이 4배한 다음에 끝낸다. 근래에는 100여 명의 소지를 올리느라 3시간 정도 소요가 되어, 거의 9시가 되어서 끝난다.

제사가 끝나면 떡과 과일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다음날 마을사람들이 모여 점심을 함께 먹으며 결산한다.

□ 축문 : (1999년도)

유학 ○○○, ○○생

일년 열두달 경과하도록 가내 대소 제절이 무사안과 태평하시고 농수대길 신수대길 재수대길 하시길 축원합니다.

③ 금기와 기타사항

화주를 뽑은 날로부터 11일 동안 동네 전체가 살생을 하지 못 한다.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한다. 한편 산모가 있을 경우에는 집안 식구끼리만 출산을 도울 수 있

으며, 출입도 집안으로 제한된다. 전체적으로 이 마을의 산제는 매우 엄격히 드리는 편이다.

(3) 운곡면 후덕리 대동마을 성주산신당

구릉 가운데 형성된 계단식 평지 위에 형성된 마을로 마을 지대에 고도의 차이가 있다. 마을 뒤로 성주산과 당산재가 둘러싸고 있는 산촌이다. 성주산과 당산재는 차령산맥 줄기로서 성주산이 마을 뒷산 중 가장 높은 산이며 여기에 성주산신당이 있다.

① 제례 공간의 형태

운곡면 후덕리 대동마을 성주산 중턱에 제당이 위치해 있다. 산제 혹은 '산제올린다.'고 말한다. 성주산신당의 형태는 슬레이트 지붕에 시멘트벽을 한 건물로 좌·우 두 칸으로 되어 있다. 왼쪽 방에는 제기를 보관하며 가스fp인지, 가스통, 그릇과 주방기구와 떡시루를 비롯한 제를 올릴 때 필요한 살림살이를 보관한다. 오른쪽 방은 제를 드리는 방으로 왼쪽 방에 비해 넓으며 제를 올릴 대 쓰는 검은색 두루마기 2벌이 보관되어 있고 축이 들어있는 봉투가 있다. 가운데 돌제단이 있고 그

위에 성주산신지위라고 써 있는 네모난 돌이 있는데 이를 '독' 이라고 부른다. 돌제단은 지면으로부터 50cm 가량 높이이며 콘크리트로 만든 제단이다.

산제당에는 평소에 가지 않으며 산제당까지 가는 길도 산제를 드릴 때만 정리를 해두기 때문에 거의 길이 없을 정도로 험준하다. 경사가 높은 지대에 있으며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이다. 마을 주민이 평상시에 가지는 않는 곳이다. 산제를 지낼 때만 제를 올린다.

원래 산신당은 성주산 꼭대기에 있는 목조 두 칸짜리 당이었다. 당 안에는 음식을 마련할 수 있는 솥이 걸려 있었다. 이것을 42년 전에 마을에 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전도사가 불을 내서 불에 타서 없어졌다. 그 후 73년도에 마을주민이 공무원이 되어 마을에 부흥기가 일어났을 시기에 산제당을 다시 지었으나 주민들이 점점 산제를 드리지 않게 되어 산제당도 몰락하였다. 그러자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죽고 마을이 경제적으로 빈곤해지는 등 마을이 몰락하였다. 산제를 지낼 때 후덕리는 운곡면 중에서도 부유한 마을이었으며 소위 '짱하게 잘 나가는' 마을이었고, 인근 주변에서 많은 학생들이 후덕리 서당에 공부하러 모일 정도로 학문적

으로도 발전한 마을이었는데 산제를 드리지 않게 되자 마을이 피폐해졌다. 그래서 93년도에 지금의 산제당을 다시 지었다.

② 제의 형식과 절차

음력 정월 대보름 전에 10일 안으로 날을 잡는다. 15일 안쪽으로 10일 간 중 생기복덕을 봐서 손이 없는 날을 택하는 것이다. 제의를 지내는 시간은 저녁 7시 30분부터 한 시간 정도 제를 드린다.

동네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개를 다 잡아서 제를 지내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 있으나 이는 근거가 없다. 오히려 산신이 호랑이라는 말이 있는 것뿐이다.

제를 지내는 유래에 대해서는 전설이 남아있다. 예부터 이 마을은 서촉 명씨 집성촌이었다. 서촉 명씨는 중국에서부터 들어온 성씨이며 연안 명씨라고도 한다. 100여 년 전쯤에 명씨 성을 가진 한 어른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모두 대를 못 이었다. 그래서 독산재를 몇 년 지냈는데 큰 아들이 아들을 낳게 되었다. 이 사람이 명의철이라는 분으로 후에 유명한 한학자가 되었다. 집안의 자랑이 되는 아들을 얻게 되자 그 때부터 마을에서 다 같이 단체로 제를 지내게 되었는데 이

것이 동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명의철씨께서 돌아가신 지는 30여 년쯤 되었으며, 명의철 선생님께서는 마을의 자제들에게 한학을 가르쳐 주셨고, 제보자도 명의철 선생님께 서당에서 한학을 배웠다.

명의철 선생님의 나이와 전설을 근거로 볼 때, 산제를 드린 지는 약 100여 년 정도 되었다.

교회를 다니는 5가구(기독교 3가구, 천주교 2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집에서 제관을 선출한다. 마을회의를 통하여 10일 전쯤에 날을 잡고 제관을 선출하는데 제관은 화주와 소임 2사람을 을 뽑는데, 화주는 축을 읽고, 술을 진설하는 제관이고, 소임은 음식을 하는 제관이다. 화주와 소임 외에도 돼지 잡는 사람을 따로 선출을 하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선출하지 않는다.

제관으로 선출이 되면 달샘이라는 곳에서 3일 동안 목욕을 하고 기도를 드렸었다. 달샘은 과거에 논 가운데 자연적으로 지하수가 샘솟는 샘이었는데 20여 년 전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없어졌다. 따라서 현재는 가정에서 몸을 깨끗이 하고 기도를 올린다. 제관 집 앞에는 황토를 놓는데 황토는 과거에는 당산재의 흙이 좋기 때문에 당산재에서 깨끗한 흙을 파 왔으나, 지금은 멀

리 있는 당산재까지 흙을 구하러 가기 어려워 성주산에서 퍼 온다.

과거에는 동네회의 때 각 호마다 2만 원 정도를 걷어서 소임집에 가져다주면 소임은 그 돈으로 제를 준비했었다. 현재는 산제가 있어 기독교와 천주교인 5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가 산제에 가입되어 있다. 산제게 가입된 동민들을 산제계인이라고 부른다. 산제계를 총괄하는 사람인 산제계장은 현재 명재을씨인데, 명재을씨가 산제를 보기 3~4일 전에 산제계돈으로 제물을 준비한다.

산제계장과 화주와 소임이 장을 보러간다. 시장 보는 물건은 밤, 대추, 곶감, 사과, 배, 북어, 소지, 초, 술등을 구입하며 고기는 소(돼지)는 돼지 잡는 분이 직접 사와서 잡는다.

제물은 떡(백무리), 소(돼지), 술, 과일(밤, 대추, 꽂감, 사과, 배), 북어포 등을 올린다. 고기는 과거에는 통소를 썼었다. 황소의 생고기를 쓰다가 현재는 통돼지를 쓰는데 특별히 돼지의 색을 가리지는 않고 그냥 통돼지를 쓴다. 돼지고기는 생으로 올리지 않고 당에서 탕을 끓여 올린다.

10여 년 전에는 제의 당일 저녁 7시부터 준비했으나 현재는 5시부터 일찍 제를 준비한다. 5시 정도에 화주, 소임, 돼지를 옮기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5명 정도가 산제당에 올라가서 탕을 끓이고 떡을 쪄 놓는다. 제를 지낼 때는 7시 반쯤부터 시작하여 먼저 절하고 제물을 진설하고, 절하고, 축 읽고, 소지하는 순서로 지낸다. 제의가 모두 끝난 후에 불을 놓는데 이때 불이 놓이면 각 호에서는 정월마짐시루를 지내는데, 이는 기독교와 천주교인 5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빠짐없이 모두 다 지낸다. 정월 마짐시루는 장광에 시루떡을 3대 놓고 성주산신께 절하고 소원 성취를 비는 것이다.

한글로 된 축문과 한문으로 된 축문이 있는데 한글로 된 것은 한문의 내용을 풀이한 것이다. 축문은 산신령의 존재를 성주산신령님으로 기재하였으며, 불교적 단어인 중생의 구제라는 말이 나온다. 호환방지를 위해서 제를 지냈다고 하였는데 호환에 대한 이야기는 축문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소지는 산신소지, 마을소지, 화주와 소임소지 순으로 올리고 다음에 개인소지를 올리는데 화주와 소임은 집안 모두 소지를 올리고 개인 소지는 대주만 올린다.

〈축문 내용〉

성주산신령님 오직 산신령은 이 향촌을 진정시키시고 널리 중생을 구제하시고 덕망을 원방까지 베푸루시니 우리 동민은 비상한 은혜를 힘입어 임이생육하였으니 그 덕을 잊지 못할 것이다.

부모같이 앙모하고 군왕같이 공경하오니 원컨데 더 보우하시고 영원이 길한 상서를 주시고 재해를 제거하시고 복록을 이루시며 만사가 뜻과 같이 동네가 태평함을 말로 어찌 다하리요.

신령은 실지 공명하십니다. 이에 길한 날을 가리여 정결이 올리오니 비비하다 마시고 작은 정성을 눌러 감찰하옵소서.

③ 금기와 기타사항

제를 지내기 전 제관을 뽑는 마을 회의가 끝나면 황토를 퍼다가 제관집과 당과 마을 길목마다 놓아두고 금줄도 제관집과 당, 마을 길목 등에 친다. 금줄을 친 후에는 외부인은 마을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며, 마을 주민들도 함부로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제관으로 선출된 사람은 부정이 타지 않게 조심하며 정성을 다하여 기도를 드린다. 제를 지낸 후 만약 부정이 발생하면 6일

에서 7일후에 다시 제를 지낸다.

또한 제를 올리기 전 제물을 맛보지 않는다. 제 지내기 전에 제물을 맛 본 사람은 벙어리가 되거나 혀가 말렸다.

(4) 대치면 광금리 쇠밭마을의 산제

① 제례 공간의 형태

대치면 광금리 쇠밭마을의 산제는 마을에 있는 옥녀봉 뒤쪽 소정이 근처에 있는 산신당에서 행해진다. 쇠밭마을에서는 산신을 호랑이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산제당에는 산신령과 호랑이가 그려진 그림을 걸어놓았다.

② 제의 형식과 절차

산제는 음력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행해진다. 산제가 처음 시작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산제를 거르면 마을에 믿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산제를 지내고 있다.

마을사람들은 산신을 호랑이로 생각하고 있다. 산신을 부르는 명칭으로는 산신령, 산신할아버지가 주로 쓰이며, 산제당에는 산신령과 호랑이가 그려진 그림이 걸

려 있어 신위를 대신하고 있다.

축관 한 사람과 화주 한 사람을 뽑는데, 섣달 15일에서 그믐 경에 생기복덕을 따져서 뽑는데, 이를 복댁이 닿는 사람이라고 한다. 축관은 축을 쓰고, 화주는 산제에 올릴 제물을 준비한다. 예전에는 화주와 함께 제물을 준비하는 부인도 생기복덕을 따졌지만 지금은 남자만 보고 뽑는다. 제관으로 뽑힌 후로는 부정한 것을 보지 않고 산제 3일 전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목욕을 한다. 그리고 3일 전에는 제관의 집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려 부정을 막는다.

반돈과 사람들이 낸 돈으로 비용을 충당한다. 섣달 15일에서 그믐쯤 제관을 뽑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데, 이 때 돈을 걷는다. 집집마다 내고 싶은 만



〈그림 20〉 제관의 집에는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린다.

큼을 내는데, 주로 자손이 군대에 가 있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 사업을 하는 경우에 돈을 많이 낸다. 돈을 낸 집만 소지를 올리기 때문에 대부분 집에서 조금씩이라도 돈을 낸다.

제물은 산제 당일 새벽에 화주가 직접 청양장에 가서 사 온다. 화주가 나갔다가 부정한 것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갔다가 제물만 사서 얼른 돌아온다. 화주가 제물을 사러 간 사이 화주의 부인은 샘을 품고, 벼 한 말을 찧는다.

제물은 익히지 않은 소고기와 밥, 탕국, 산적, 북어, 백무리떡, 무수나물(무나물), 메밀묵, 밤, 대추, 곶감 등을 올린다. 산제 지내는 날 새벽에 새로 찧은 쌀로 밥을 하고 백무리떡을 한 시루 한다. 탕국에는 무를 넣고 끓이고 무수나물도 하는데, 무는 화주집 무를 사용해야 한다. 제물에는 소금간만 약간 하고 고춧가루나 양념을 해서는 안 된다.

소고기는 살코기로만 사서 깨끗이 씻어서 날것으로 올리고, 북어는 눈이 똑바로 달린 깨끗한 것이어야 한다.

모든 제물은 화주집에서 혼자 준비하는데,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부정이 탄다고 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

는다. 제물이 모두 준비되면 밤 11시 경에 축관과 화주가 산제당으로 가지고 올라간다.

화주와 축관은 3일간 목욕재계를 하고 화주는 산제당일 제물을 마련하고, 축관은 축을 쓴다. 밤 11시 경이 되면 화주와 축관을 제물을 가지고 두 사람만 산제당에 오른다. 제당에 오를 때에도 죽은 동물이나 부정한 것을 보지 않기 위해 앞만 보고 빨리 제당에 올라야 한다. 제당에 도착하면 제당을 청소하고 제물을 진설한 뒤 술을 올리고 축문을 읽는다. 축이 끝나면 대동소지를 올리고 각 집마다 소지를 태워 올린다. 소지를 모두 태우고 나면 제물을 다시 싸서 가지고 내려오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나누어 먹는다. 이 때 임산부나 출산한 지 한 해가 지나지 않은 사람 등 부정한 사람은 음복을 하면 안 된다. 부정한 사람이 산제떡을 먹으면 그 사람이 부정이 타서 아프기 때문에 다시 산제를 지내야 한다. 예전에 마을의 한 새댁이 아이를 낳고 한이레가 지나 산제떡을 먹었는데, 부정을 타서 며칠 동안 몹시 앓았다. 그래서 새댁의 시어머니가 다시 상을 준비해 산제를 지냈고, 그렇게 하고서야 새댁이 나았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산제사 부정이 가장 무섭

고 빠르다고 해서 산제사를 반드시 지낼뿐더러 부정이 타지 않도록 조심한다.

축관이 축문을 쓴다.

소지를 올릴 사람은 미리 산제를 올리는 돈을 거둘 때 낸다. 대동소지를 올리고, 축관이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집집마다 소지를 올린다.

제의가 모두 끝나고 음복을 하면서 한다.

③ 금기와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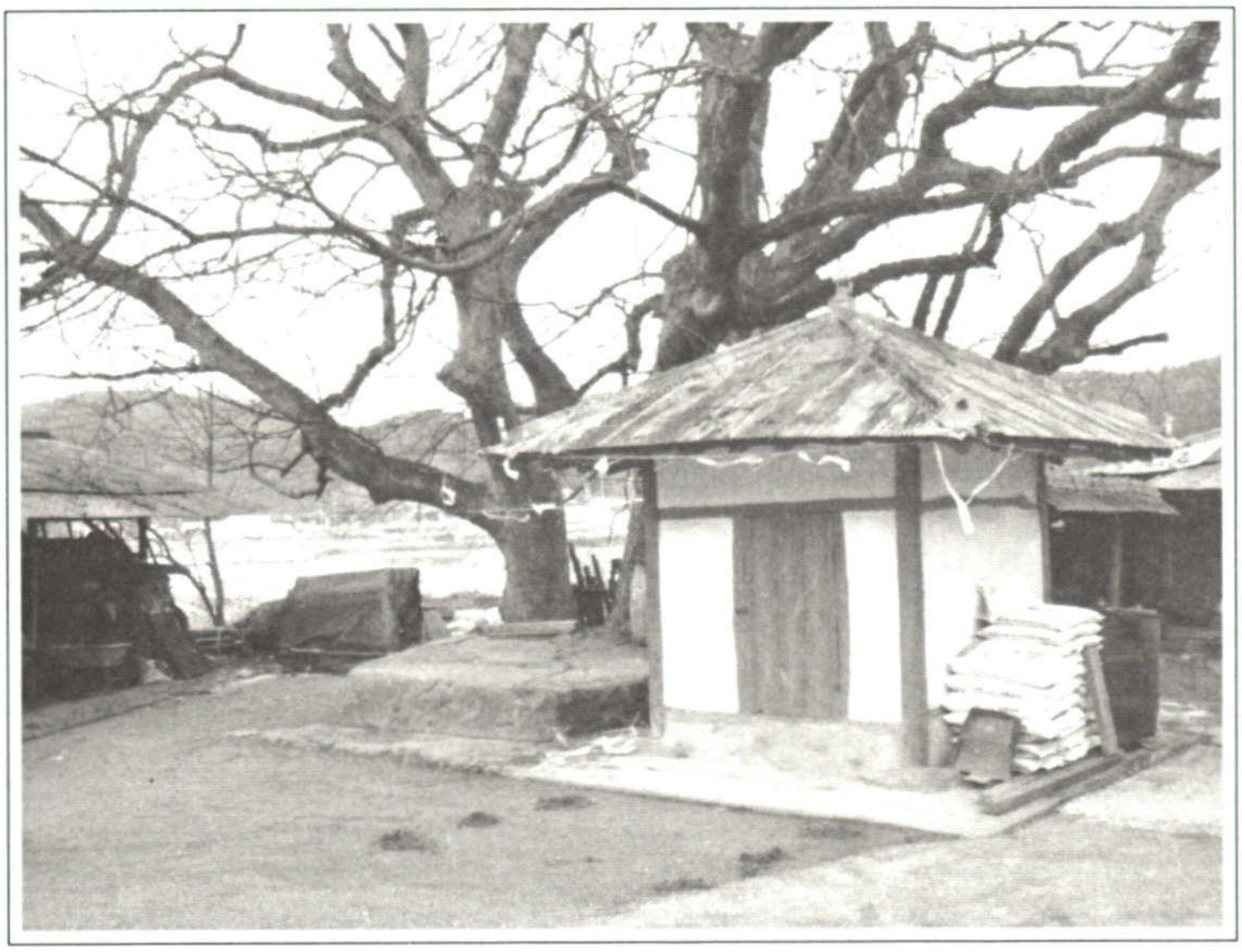
제관으로 뽑히면 부정한 것을 보아서는 안 되고, 상가나 출산을 한 집 등 부정한 곳에 가지 않는다. 제관의 집에는 황토와 금줄을 쳐서 부정을 막는다. 화주가 제물을 사러 갔다 올 때 부정한 것을 보아서는 안 된다. 산모나 부정한 사람이 산제떡을 먹어서는 안 된다. 부정한 사람이 산제떡을 먹거나 음복을 하면 부정을 타서 아프게 되고, 다시 산제를 지내야 한다. 제물에는 양념을 해서는 안 된다. 제물은 화주 혼자 준비해야 한다. 남이 도와주면 부정을 탄다.

(5) 대치면 농소리3반 원농소마을의 노신제

① 제례 공간의 형태

대치면 농소리3반 원농소마을에서는 매년 마을 입구에 있는 두 그루의 고목에 노신제를 지내고 장승을 해마다 새로 깎아서 세운다. 두 그루의 나무 앞에는 원래 '탑'이라고 불리는 돌무지가 있어 그 앞에서 제의를 행하였으나, 지금은 돌무지를 없애고 함석지붕으로 만든 제당을 만들어 놓았다.

② 제의 형식과 절차



〈그림 21〉 고목과 제당

노신제(路神祭)는 정월 열나흘 저녁에 지낸다. 원농소 마을을 장골이라고도 하는데, 장골 안쪽에 300여 년 전에 큰 절이 있어서 절의 입구를 나타내는 의미로 지금의 자리에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그 뒤에 절은 없어졌어도 나무는 남아 노신제를 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노신(路神)을 모시는 것으로 길에 다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제를 지낸다.



〈그림 22〉 제관집

제관은 축관과 화주를 생기복덕을 따져서 뽑고, 집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려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는다. 축관은 축을 쓰고 읽으며 소지를 읽는 사람이고, 화주

는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예전에는 제관들이 7일 기도를 올렸다. 그래서 7일 동안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목욕재개 하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목욕을 할 정도로 깨끗함을 유지했다. 그리고 매일 새로 만든 옷이나, 새로 빤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는데, 수도가 없을 때는 개천에 샘을 파서 거기에서 목욕을 했다. 아무리 날이 추워도 따뜻한 물로 해서는 안 되고 찬 물로 목욕을 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기도로 끝을 낸다.

비용은 원농소 3반의 반비로 충당하고, 소지를 올리고자 하는 집에서 조금씩 돈을 내면 그 돈을 비용을 충당한다. 거의 모든 집에서 소지를 올리기 때문에 비용이 부족하지는 않다.

제물은 밤, 대추, 곶감, 사과 등의 삼색실과와 술, 돼지머리, 북어를 올린다. 장은 화주와 반장이 열나흘 아침에 일찍 가서 보아 온다. 원래는 통돼지를 잡아서 올렸지만 마을 주민이 줄어들면서 돼지머리를 올리다가 지금은 돼지고기만 사서 올린다.

열나흘 새벽 동이 트면 마을입구에 금줄을 쳐서 부정한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고목에도 금줄을 친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 농기[1]를 세운다. 화주와

반장이 제물을 사오면 화주의 부인은 화주집에서 제물을 장만하고, 축관은 축을 쓰고, 소지를 올릴 명단을 작성한다.



〈그림 23〉 마을입구의 금줄과 황토

나흗날 저녁이 되면 화주 집에서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예전에는 잡귀를 쫓기 위해 꽹과리, 징, 장구 등 악기를 치면서 나왔지만 지금은 악기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제물만 화주가 가지고 나온다.

---

1) 원농소마을의 농기는 임금의 도장을 받은 농기였는데,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다시 만들었다. 다시 제작할 때 군수를 찾아가 군수의 도장을 받았는데, 용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용대기라고도 부른다. 노신제를 지낼 때 농기를 마을입구에 세우고 정월 초하루에 내린다.

고목 앞에 제물을 차리고 술을 올린 뒤, 축을 읽는다. 축을 읽고 나서 절을 하고 소지를 태우는데, 대동소지를 가장 먼저 올리고, 이장소지를 올린 뒤 각 집안의 소지를 올린다. 각 집의 소지는 원하는 수대로 올리는데, 자식의 수대로 올린다. 때문에 원농소마을은 20가구 정도이지만 올리는 소지는 150장 정도이다. 소지를 모두 올리고 나면 장승 앞에 술을 올리고 노신제는 끝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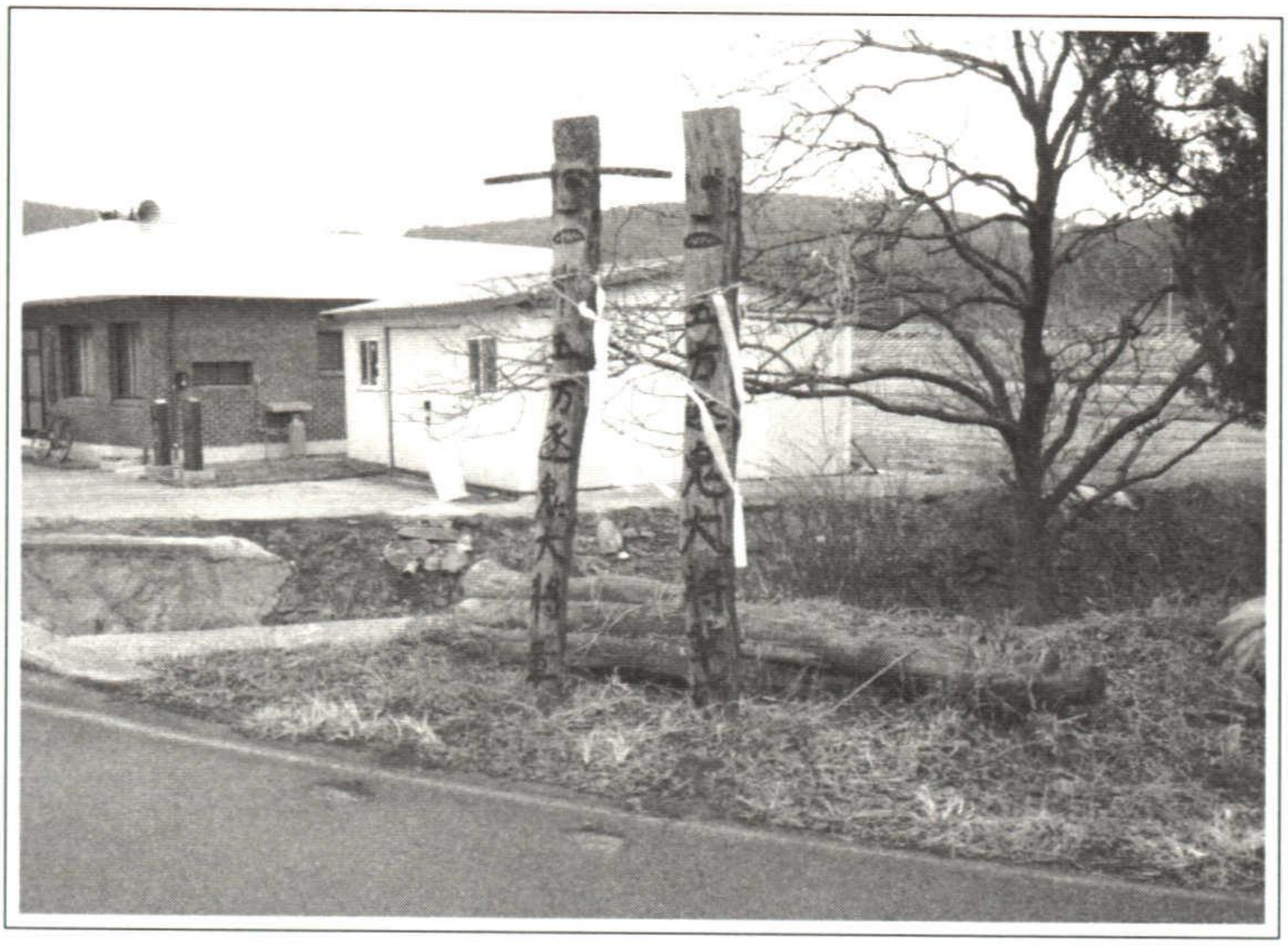
축문은 축관이 쓰는데, 본래 한문으로 썼지만 한문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올해에 한글 축문으로 바꾸었다.

〈축문 내용〉

을유년 정월십사일을 맞이하여 축관○○○의 몸을 비러 삼가 성황님께 고하나이다. 우리 동민 일동은 일년 열두달 삼백육십오일이 지나도록 수복강녕함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굽어 살피실 것으로 성심으로 기원하오며 술과 떡을 정성껏 마련하였으니, 터물치 마시고 흠향하시기 축원하나이다.

소지는 대동소지와 이장소지를 올리고, 각 집의 소지를 올린다. 원농소마을에서는 약 150장의 소지를 올리는데,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객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의 소지도 모두 올리기 때문이다. 소지를 올릴 때는태어난 해와 이름을 말하고 소지를 태워 올린다.

- 결산은 제를 지내고 난 다음날, 즉 정월 보름날 제물을 음복하고, 올린 돼지고기를 구워 먹으며 결산을 한다.



〈그림 25〉 마을의 장승

③ 금기 및 기타사항

노신제를 지낼 때는 여자들이 절대 참석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제물을 준비하고, 노신제를 지내는 동안 여자들은 집에서만 지내고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다. 여자뿐만 아니라 상을 당하거나 부정을 탄 집의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또 노신제를 지낼 때 외지인이 들어오는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마을사람들끼리만 조용히 제를 지낸다.

마을 입구에 있는 장승은 따로 제를 지내지는 않고 고목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술만 따라서 올린다. 장승

을 마을의 수호신이자, 문지기로 생각하는데, 본래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나무를 베어다 장승을 해마다 깎았는데, 지금은 3년에 한 번씩 깎아서 세운다. 현재 세워진 장승은 2004년도에 세운 것이다.



〈그림 26〉 산제당 내부의 식기구

(6) 대치면 농소리 유점마을의 산제

① 제례 공간의 형태

대치면 농소리 유점마을의 산제당은 마을 뒷산 중턱에 있다. 산제당은 원래 초가집이었는데, 최근에 콘트리트 벽에 함석지붕을 얹은 형태로 바꾸었다. 산제당 안에는 솥과 식기류 등이 보관되어 있으며, 제당 밖에는 제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불 피우는 장소가 마련되

어있다. 또한 산제당 안에는 바닥에서 30cm정도 올라와있는 단 위에 신위가 마련되어있다. 신위에는 '국사봉산신지령(國師峰山神之靈)이라고 쓰여 있다.

② 제의 형식과 절차

제의는 본래 음력 정월 14일 해가 지고 제를 지냈지만 지금은 정월 14일에 생기복덕이 맞는 사람을 찾기 어려워서 14일 안에 생기복덕이 맞는 사람이 있는 날로 정해서 산제를 지낸다. 올해(2005년)는 음력 1월 13일에 산제를 지냈다.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고, 6.25 때도 제를 지냈을 정도로 산제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 6.25 때에는 밤에 올라갈 수 없어 낮에 제를 지냈다.



〈그림 27〉 산제당의 모습



〈그림 28〉 산신신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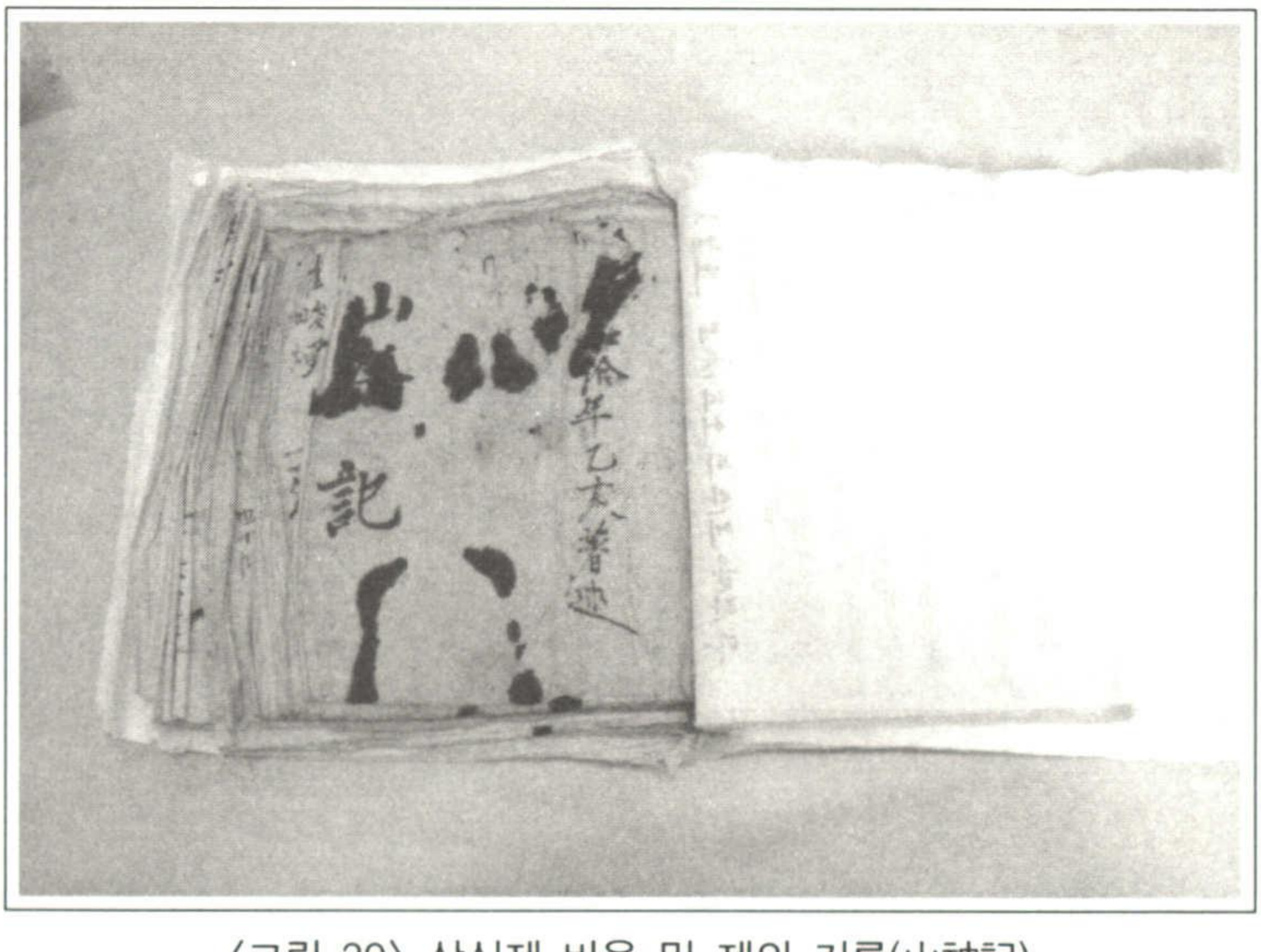
제관은 음력 정월 5일 안에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화주 한명, 축관 한명, 나무꾼(수인 : 樹人) 한 명을 생기복덕을 따져서 뽑는다. 화주는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축관을 축을 쓰고 소지를 올리는 사람, 나무꾼은 돼지를 잡고 제당에서 불을 피우는 사람이다. 나무꾼은 불을 피우기 위해 제당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화주와 축관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살아야 하고 부부의 생기복덕을 모두 따져서 뽑는다. 이는 축관과 화주는 부인이 함께 일을 도와 제의를 준비하기 때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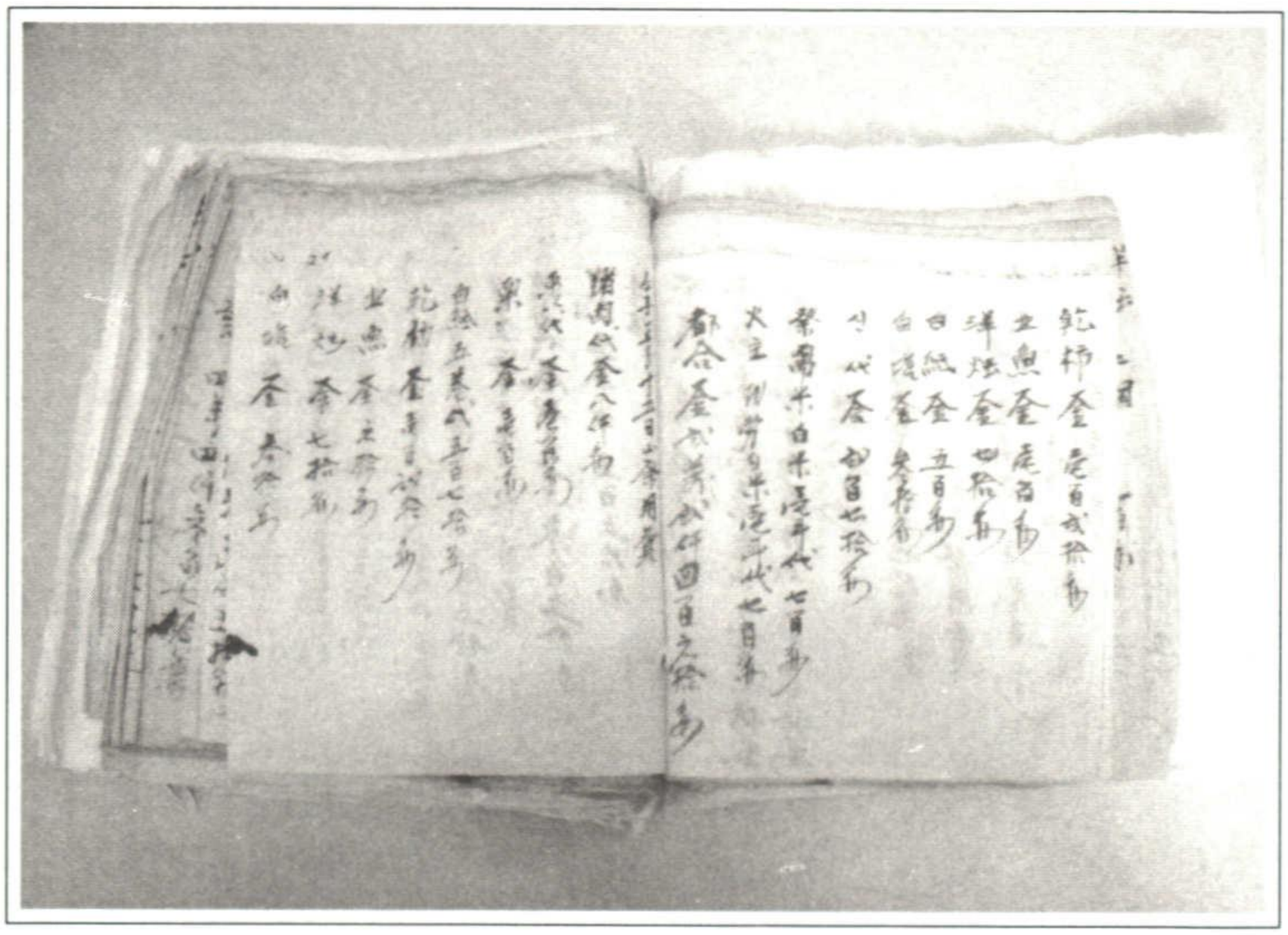
다. 하지만 나무꾼은 남자만 나무를 하고 돼지를 잡기 때문에 혼자 살거나 부인의 생기복덕이 맞지 않더라고 할 수 있다.

제관을 뽑으면 집 앞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려 외지인의 출입을 막는다. 예전에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찬물로 목욕을 하고 담배와 돼지고기, 생선을 금하며 7일 기도를 드렸는데, 3일 기도로 줄어들다가 지금은 하루기도만 한다.

비용은 마을의 기금으로 충당한다.



〈그림 29〉 산신제 비용 및 제의 기록(山神記)



〈그림 30〉 산신기(山神記)내부 기록

제물은 삼색실과와 북어, 떡(백무리), 탕, 돼지를 올린다. 장은 축관과 반장이 사다줬지만 지금은 화주가 직접 가서 산다. 제물을 사기 전에는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하고 가서 장을 보고, 올 때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집으로 바로 온다.

돼지는 수퇘지만 사용해야 하고 예전에는 검은 돼지를 썼지만 지금은 검은 돼지가 없어서 하얀 돼지로 한다. 돼지는 나무꾼과 화주가 직접 가서 수퇘지인지 확인을 하고 사고, 돼지를 사 오면 마을 공터에 천막을 치고 나무꾼이 돼지를 잡는다. 돼지는 배를 갈라서 피

는 버리고 내장은 깨끗하게 씻어서 따로 둔다. 돼지 속도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

5~60년 전에는 소를 잡아서 하기도 했지만 6.25 동란 이후에는 돼지를 잡아서 쓴다. 때에 따라서 돼지머리를 올리기도 했는데, 돼지머리도 반드시 수퇘지인지를 확인하고 쓴다. 밥과 탕은 제당 앞에서 불을 피우고 직접 만든다. 떡은 화주집에서 해서 가지고 올라간다.

화주가 장을 봐 오고, 돼지를 사 오면 화주집에서는 떡을 한다. 나무꾼이 돼지를 잡고 돼지를 깨끗하게 씻고, 내장은 따로 해서 가지고 올라간다. 산에는 5시 반이 넘으면 올라가는데, 나무꾼은 4시 정도에 미리 올라가서 나무를 해서 불을 피워 놓는다. 제물을 가지고 화주가 올라가면, 돼지고기를 조금 떼어서 탕을 끓이고 밥을 한다. 7시 반 정도면 밥과 탕이 모두 다 되고, 그즈음에 축관이 제당에 올라온다. 축관이 올라오면 제물을 진설하고 제의를 준비한다.

제를 지낼 때는 화주와 축관만 제당에 들어가고 나무꾼은 밖에서 기다린다. 축관이 술을 올리고 축을 올린다. 축은 산신을 부르는 것과 축수를 부르는 것이 있는데, 내력을 쓴 것을 7번 읽고 축수를 한번 읽는 식으

로 해서 7번을 했으나, 지금은 약소화 되어서 3번만 읽고 한번을 읽는 식으로 3번을 읽는다.

축을 모두 읽고 나면 소지를 올리는데, 산신소지를 먼저 올리고 대동소지를 올린다. 그 후 일반소지를 올리는데 200장 정도를 백지로 올리는데, 총 3~4시간이 걸린다. 소지는 화주와 축관, 나무꾼이 모두 도와서 올린다. 소지를 다 올리면 돼지는 제당에 남겨두고 나머지 제물만 가지고 내려와서 나누어 먹는다.

산에서 산제를 지내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마을 논에 동화를 세우고 불을 피운다. 이를 동화제라고 하는데, 마을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동화를 세우고 악기를 치면서 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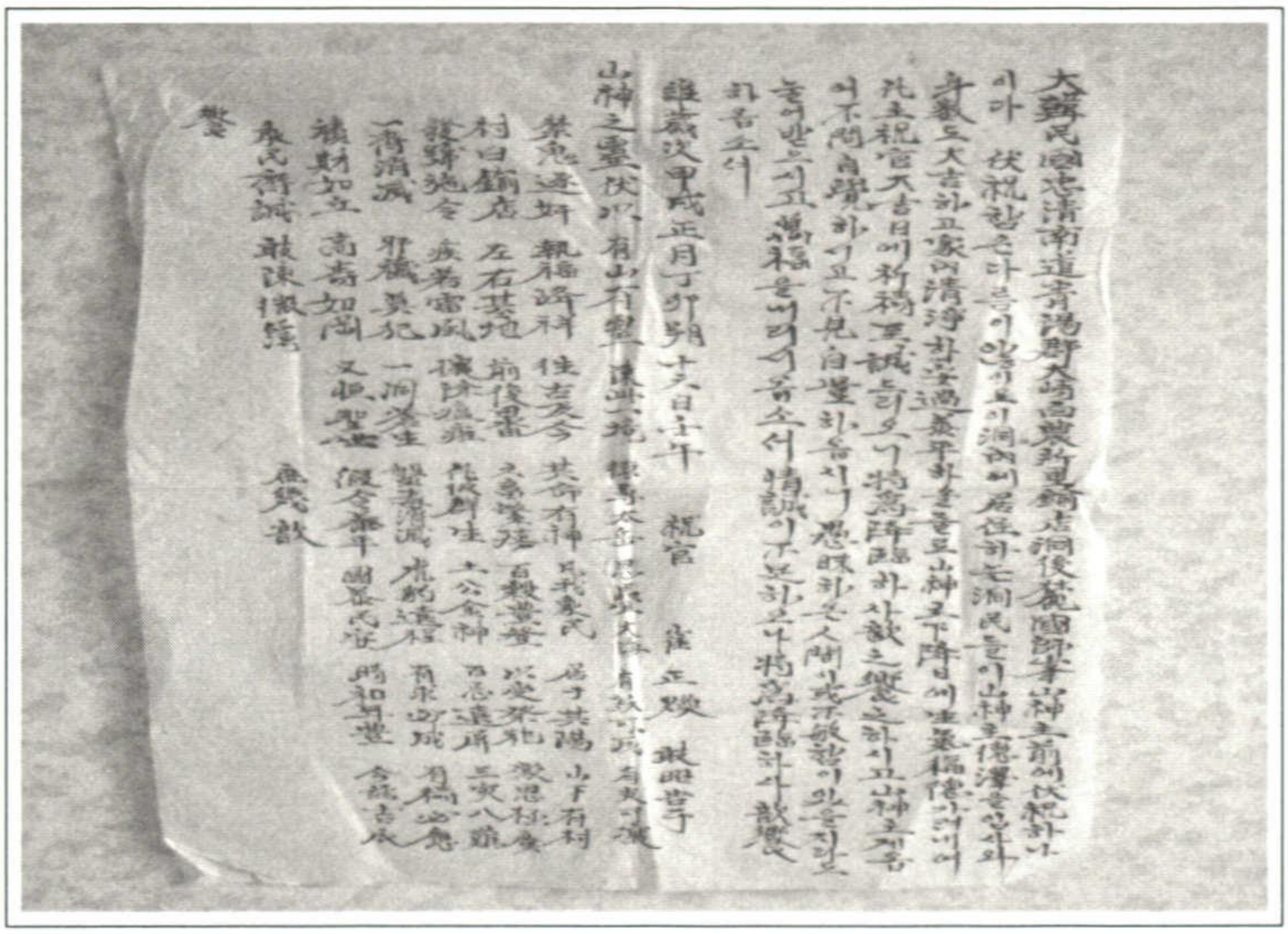
다음날 아침에 다시 제당에 올라가서 제당을 청소하고 돼지를 가지고 내려와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다.

축문은 축관이 쓰는데, 산신을 부르는 것과 축수를 하는 것이 있다. 제당에서 축을 읽을 때는 마을 유래를 쓴 것을 7번 읽고, 축수를 한번 읽는다.

〈축문 내용〉

대한민국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농소리유점동후록 국사봉산신주전에 복축하나이다. 복축함은 다름이 않이요 이동내에 거주하는 동민들이 산신주덕택을 입사와 신수도 대길하고 가내 청정하며 안과태평하올쥴로 산신주하강일에 생기복덕가려내여 화주축관대길일에 기도지엇드리오니 특위강림하사 흠지향지하시고 산신주게옵서 불문자각하시고 불견자량하옵시니 우매하온인간이 혹물민함이 있을지라도 눌러 받오시고 만복을 내리시옵소서. 정성이부족하오나 특위강림하사 흠향하옵소서

유세차임오정월신새삭 십삼일계해 축관백운백 감소고우 산신지령복이 유산유령 진차일경 덕존태악 은첩대해 유요가멸 유재가양 금귀축간 짐복강상 왕고급금기명유신 범아중민 거우기양 산하유촌 촌왈유점 좌우기지 전후전답 육축번식 백곡풍등 이수제사 몽은극광발호시영 질약뢰풍 양제온광 화피군생 토공금신 백괴원병 삼재팔란 일제소멸 사예막범 일동창생 반독소멸호표원정 유구필성 유도필응 석재여구 고수여강 우항성세 가영태평 국태민안 시화년풍 금자길신 중민재성감진미박 서괴 흠향



〈그림 32〉 한문으로 된 축문

소지는 200여 장을 태우는데, 산신소지를 먼저 올리고 대동소지를 올린 뒤 마을소지를 올린다. 각 집집마다 가족들의 소지를 모두 올리기 때문에 소지가 많다. 소지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다른 종이에 소지를 올릴 사람의 이름과 생년을 써 놓고 하나씩 부르면서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대주만 올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더 올리려면 소지값을 받는데 소지값은 1천 원에서 2천 원까지 받으며 객지로 나간 사람들의 소지는 10만 원이다.

③ 금기와 기타사항

여자는 산제당에 절대 올라갈 수 없고, 산제 때 참석할 수도 없다. 상주도 참석을 못한다.

산에 올라가기 전에 마을에 상이 나거나 부정을 타면 산제를 지내지 않고 다음달로 넘겨서 택일해 제를 지낸다. 그래서 한번은 마을에 계속 상이 나서 한여름에 산제를 지낸 적이 있다.

(7) 정산면 대박리의 당산 산제당

① 제례 공간의 형태

대박리는 아래뜸, 큰골, 골뜸, 신골 등 네 개의 자연부락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마을이다. 광범위한 대지 위에 뒷산인 당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마을을 감싸고 있으며 산촌에서는 드물게 농지와 대지가 풍부하다. 대박리는 장지 정씨 집성촌이었으며 동제도 장지 정씨가 먼저 지내기 시작하였다.

산재당의 위치는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대박리 당산으로 제의의 명칭은 산제이다. 제당명칭은 산제당이라고 부르며 원래는 당산 꼭대기에 있는 참나무에 산제를 지냈다. 그러던 것이 산꼭대기까지 짐을 이고갈

짐꾼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5년 전부터는 골 밑으로 산제당을 짓고 산제당에 제를 지내고 있다.

② 제의 형식과 절차

대박리에서는 현재 산제당이 2개 있으며 산제도 2개를 지내고 있다. 아래뜸에서는 20년 전 산제가 없어졌으며, 나머지 세 자연부락에서 책력에 따라 산제를 지낸다. 현재 산제를 지낸지는 10년이 넘었다. 산제를 지낸 뒤 장승제를 지낸다. 제의 시기는 음력 1월 10일로 신격은 산신이다.

정월 초사흗날 마을 회의를 통해 생기 복덕을 따져서 제주 한명, 축관 한명을 뽑는다. 동민 중에 정필수 씨가 한학을 해서 책력으로 생기 복덕을 봤다. 이 분께서 마을 일을 보시던 분이었다.

돼지머리, 삼실과, 떡, 주과포, 술을 올린다. 이때 술은 제주집에서 마련한다. 원래 고기는 돼지머리를 쓰지 않고 돼지 살코기를 썼었다. 돼지고기를 생것으로 한 근이나 두 근을 올렸다. 현재는 돼지고기를 살코기로 5근을 올린다. 즉 돼지고기 생 것 한 근이나 두 근-돼지머리돼지고기 살코기 5근으로 고기를 올리는 것이 바뀌었다. 돼지고기를 생고기로 올리는 것은 호랑이 때문

에 생고기를 바치는 것이다. 그러나 산신 자체가 호랑이는 아니다. 호랑이와 질병을 막기 위해서 산신께 제를 올리는 것이다. 돼지고기는 제사가 끝난 다음 날 찌개를 만들어서 마을회관에서 동민이 모두 모여 잔치를 벌이고 하루를 논다.

제의의 절차는 저녁 8시에 제주 한명, 축관 1명, 짐꾼 2명이 산에 올라가서 9시까지 제를 지내고 10시에 산에서 내려온다. 소지는 대동소지와 개인소지를 올린다. 개인소지는 "아무개네 누구누구 평안하게 해줍소서" 하며 축원한다.

금기사항으로는 제주가 닿으면 추운 때에도 사흘 동안 냉수에 목욕재계를 하여야 하며, 금줄을 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해야 한다.

(8) 청남면 천내리의 산제

① 제례 공간의 형태

청남면 천내리는 과거에는 마을 뒤 당산에 있는 산제당에서 산제를 모셨다. 하지만 60년대 이후 산제를 지내지 않으면서 산제당을 그대로 방치 하였다. 때문에 산제당이 현재도 존재 하나,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많이 퇴락하였다.

② 제의 형식과 절차

청남면 천내리에서는 음력 정월 14일에 산신을 모시는 산제를 지낸다.

이 마을에서는 제관을 당주라고 부른다. 당주는 정월 보름날 마을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술 한 잔씩을 먹으며 결산을 보는데 그 때 이듬해 생기 복덕을 봐서 선출한다. 과거에는 손 귀한 집은 산제를 잘 모시면 자손을 본다고 믿었다. 산제에 참석하는 당주, 집사는 보름날까지 마을 바깥으로 출입을 하지 못하며, 목욕 하고 정성을 드린다. 때에 따라서 당주는 젊은 사람이 하기도 하였다. 과거에는 서로 산제를 모시려고 하였으나, 60년대 이후에는 서로 안 모시려고 하다가 소멸되었다.

시장은 섣달그믐 안에 다 봐두는데 이는 제물을 다 갖춰놓고 그때부터 보름 기도를 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소지 종이(동네가 100여 호 되니까 5~6권 정도 산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올리지 않는다.)만 섣달그믐 안에 사두고, 포(명태), 삼색실과(밤, 대추, 사과, 배), 고기(쇠고기)는 제 지내기 며칠 전 무렵에 산다. 당주네 집에서 유사하고(유사가 돈이랑 등등을 관리하므로) 장을 보며 흥정을 한다. 기도는 아침저녁으로 목욕재계하고 기 앞에 가서 절만 한다. 제물은 필요 없다.

당은 당일 날 총 3번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해가 있는 밝은 때에 올라가는데, 당주의 집에 있던 깃대를 가지고 풍장을 치면서 제를 지낼 사람 전원이 올라간다. 깨끗이 청소를 해두고 깃대를 꽂아놓고 내려오는데, 내려 올 때도 풍장을 친다. 내려와서 저녁 먹고, 두 번째는 그냥 갔다가 오는데, 순행이라고 한다. 세 번째에는 어두워졌을 무렵에 올라가는데 준비해 놓은 제물을 가지고 간다. 풍장은 언제든지 꼭 쳐야만 한다. 모든 사람이 제물을 하나라도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 입에 마스크를 하고 가는 사람도 있다. 촛불 켜놓고 불 받기를 만들어 놓고, 제물 진설해 놓고, 헌관이 첫 잔 올리고 축을 읽고 절을 한다. 아헌관, 종헌관이 다 제를 올린다. 제사는 산신령을 위해서 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산신령께 올리는 소지를 올리고, 다음으로 동네의 사람들을 위한 소지를 올린다. 한사람이 약 20여 호씩을 맡아서 올린다. 그러면 제사가 끝난다. 제사 지내는 시간은 총 2~3시간 걸린다. 산에서는 그렇게 올리고, 개인 집에서는 마짐시루라고 해서, 장광에 떡 시루를 해서 올리는데, 그것도 산제다. 장광이 집 안의 산제당이라고 생각하고 위하는 것이다. 집집마다 모두 지

낸다. 자기네 집을 위해서 빈다. 강에 가서는 용왕제를 지내는데, 시루를 해서 위한다. 근처의 금강에 가서 지낸다. 마을의 거의 모든 집들이 용왕제를 지냈다. 강물에 있는 용왕을 위해서 지낸다. 산에서 다 끝나면 끝났다고 징을 쳐주는데, 징을 치는 사람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 산에서와 각 가정에서 같이 제를 시작하고 끝내는 것이다.

소지는 호당 대주만 올린다.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올라가는 해에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적게 올라가는 해에는 제가 금방 끝난다.

다음 날인 정월 보름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결산을 본다.

③ 기타사항

- 산제를 중단하려고 하였을 때 마을 어른들이 반대를 하셨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 중 올라갈 사람이 없어지고 그나마 있는 젊은이들이 반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없어지게 되었다. 산신당은 현재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형체만 있을 뿐 많이 퇴락되었다. 마을 사람들도 60년대 이후로는 믿음이 사라져서 산제당에 올라가 보지 않는다.

(9) 청남면 원왕진의 산제

① 제례 공간의 형태

청남면 원왕진에서는 당산재라고 불리는 산에 있는 당에서 산제를 지낸다. 산제를 지낸 후에는 현재 매운탕 집이 있는 곳의 개울에서 유왕제를 지내고, 거리제는 마을 어귀의 다리위에서 지낸다.

② 제의 형식과 절차

청남면 원왕진에서는 음력 정월 14일에 산제 또는 산신제라고 불리는 제의를 지낸다. '산제잡순다'고도 하는데 '산제 기도를 드린다'는 뜻으로 보인다. 원왕진에서는 대개 '산제 → 유왕제 → 거리제'의 순서로 진행된다. 산제에서 모시는 신격은 산신이다.

유사는 모두 3인으로 매우 엄격하게 뽑는다. 유사는 장을 보는 유사, 음식을 장만하는 유사, 제사를 지내는 유사로 각각 구분한다. 선정할 때에 집안 여자 중에 월경이 있어도 안 된다. 유사는 제사가 끝날 때까지 다른 곳에 가지 못 한다. 예전에는 서로 유사를 하려고 했으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그리고 유사는 음식을 장만하고 별도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한다. 지금은 마을회관에서 하지만 예전에는 산 밑에 별

도의 집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마을회관이 없을 때는 별도의 집을 빌러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산제를 지낼 때에 유사의 복장은 두루마기나 평복을 입는다.

산제 지내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제시대까지 걸립을 했다. 그래서 각 집집마다 얼마씩 돈을 추렴했다. 그러나 지금은 외지에서 협조를 받아 마련한 동네 기금으로 제사를 지낸다.

제물은 삼색실과 밀가루 부침개, 다시마, 통팥을 넣은 시루떡, 약주 등을 준비한다. 예전부터 술은 장에서 약주로 구입했다. 그리고 돼지는 사용하지 않았다. 제물은 각각의 제의 때마다 새로운 것을 올린다. 절대로 한 번 올린 것을 쓰면 안 된다.

1월 12일에 당산재라는 산 밑에 있는 산제당에 금줄을 치고 외인의 출입을 못하게 한다. 여자도 제의에는 참가할 수 없다. 그리고 유사 3사람이 아침저녁으로 목욕재계하고, 그곳에서 먹고 자면서 14일 점심때까지 기도를 드리고, 그곳에서 재물을 준비한다.

그 산제당은 제보자가 출생하기 전부터 있었는데, 근래에 허물어졌다. 그래서 한동안 가정집을 빌려 사용했는데, 지금은 마을회관에서 먹고 자면서 기도를 올린다.

그리고 오후 4~5시경이 되면 풀물(풍장)을 치면서 산제당에 올라간다. 이때 유사는 음식을 들고 올라간다. 이때 풀물 치는 사람 약 4사람 정도 합쳐서 모두 7~8인이 함께 올라간다. 여자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소지는 밤 12시경에 올린다. 소지 올리는 시간을 제외하고 계속 풀물을 치며, 내려올 때에도 악기를 친다. 소지가 모두 끝나는 시간은 새벽 5시 경이다.

유사들은 마을 호당 소지를 올려준다. 자손들의 이름을 적어주면, 이들의 이름을 부르면 모두 소지를 올려준다. 따라서 마을 주민들 모두의 소지를 올려주게 된다. 한편 외지 사람들은 마을에 일정하게 돈을 내면 소지를 올려준다.

한편 동네에서는 맞추어 각 가정에서는 여자들이 미리 당산(장광, 곧 장독대)에 떡시루를 준비해 놓고 기다린다. 그리고 산제당에서 제물을 진설하고 나서 징을 크게 울리면, 이 신호에 맞추어 각 집집마다 치성을 드리고 식구들의 소지를 한다. 마을 회관에 축문이 비치되어 있다. 산제에는 축문이 있으나 나머지 제의에는 축문이 없다.

소지는 유사가 올리며 마을사람들을 모두 해준다. 이

때는 생년월일은 부르지 않고 사람 이름만 부른다. 소지를 올릴 때는 조금씩 돈을 내야 한다. 유왕제를 지낼 때는 대표로 소지를 올린다.

③ 금기와 기타사항

산제를 지낼 때 산제기라는 것을 가지고 간다. 산제기는 약 10m 정도의 길이로, 흰 천으로 되어 있으며 아무런 글씨가 쓰여 있지 않고, 위에는 꿩 털, 실, 색실을 꽂았다. 마을 회관에 보관해 놓는다.

〈산제 축문 내용 – 한글로 되어 있음〉

유세차신사정월정해삭십오일신축리인
조창학 김정운 김만섭은 감소고우
왕진당산지신
당산사영시아리인
상월제향전자구년소재강복인자무간
감기발원복유상



〈그림 34〉 마을입구에서 본 모습

(10) 남양면 봉암1리 은행나무제(향단제)

① 제례 공간의 형태

남양면 봉암1리에는 수령이 600년이 넘은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다. 이 은행나무는 마을 입구에 있는데, 마을사람들은 이 은행나무에서 은행나무제를 지낸다. 은행나무의 옆에는 제당이 있다.



〈그림 35〉 은행나무와 당집

② 제의 형식과 절차

은행나무제는 정월 초이렛날에 행해진다. 만약 마을에 초상이 났을 경운에는 제의 날짜를 뒤로 미룬다. 제의에는 화주 1명, 제주 1명을 뽑는데, 화주는 12월 말에 생년월일을 따져서 정하고, 제주는 보통 이장이 본다.

제의에 필요한 제물은 이장, 동게장, 화주가 함께 장을 본다. 제물은 생밤, 대추, 곶감, 사과, 배, 밥, 탕(무를 넣어 끓임), 백무리, 감주 등이 올라가는데, 고기와 술은 올리지 않는다. 제물준비는 화주가 담당한다. 제물마련 등 제의에 필요한 비용은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충당한다.

제의는 날이 어두워지면 시작된다. 이때 은행나무 아래에서 풍물을 쳐서 제의의 시작을 알린다. 은행나무 아래에는 마을 공동우물에서 제의에 필요한 청수를 마련한다. 소지는 각 가구마다 한 명의 이름을 올린다.

③ 금기와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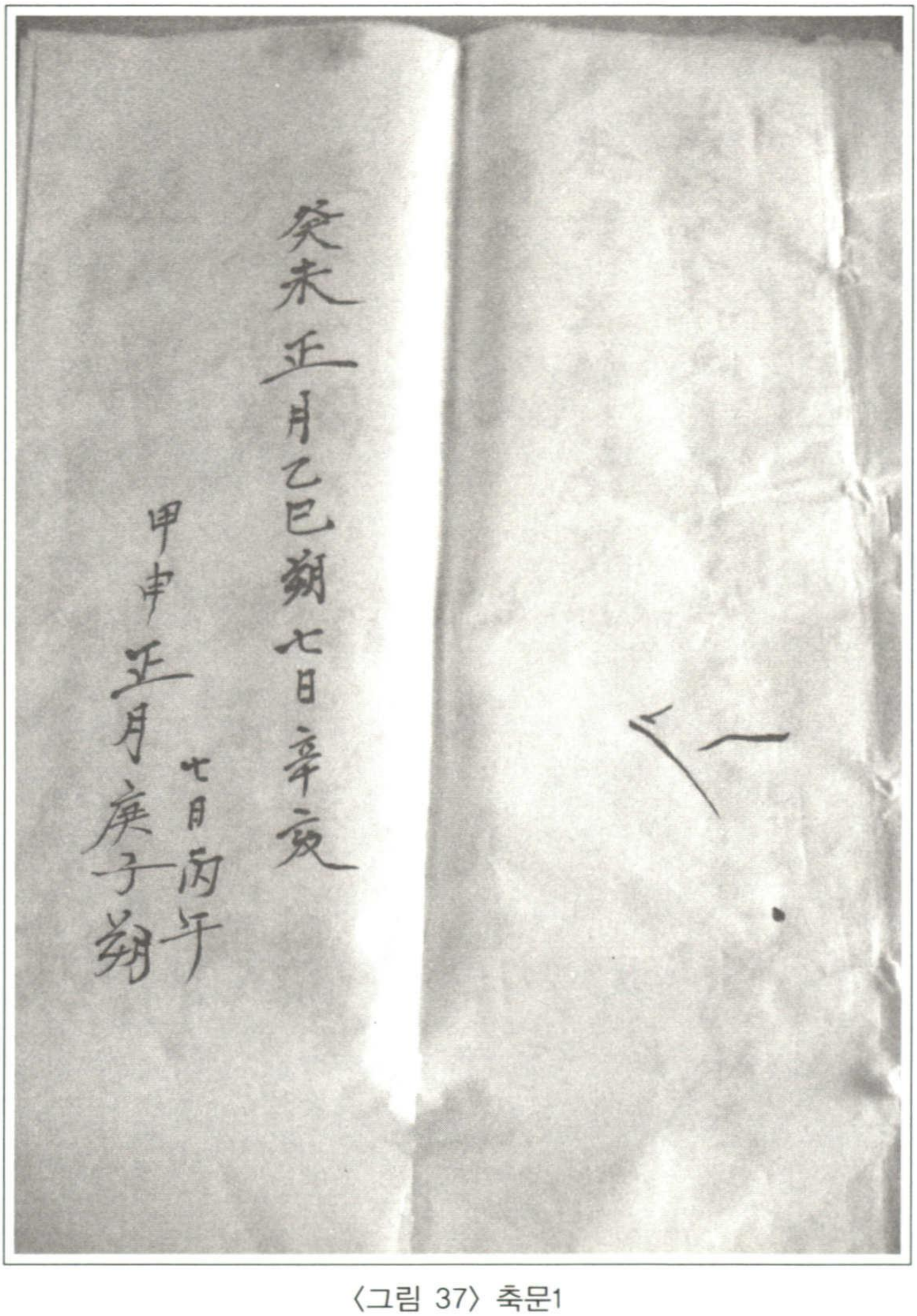
살생을 하면 안 되며 피를 내서도 안 된다. 제사 3일 전부터 화주(제주)가 은행나무 옆 당집에서 찬물로 목욕하고 기도하며 바깥출입을 삼가고 제 음식을 직접 준비한다. 또 금줄과 황토 흙을 마을 들어오는 큰길 다섯 군데에 뿌려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막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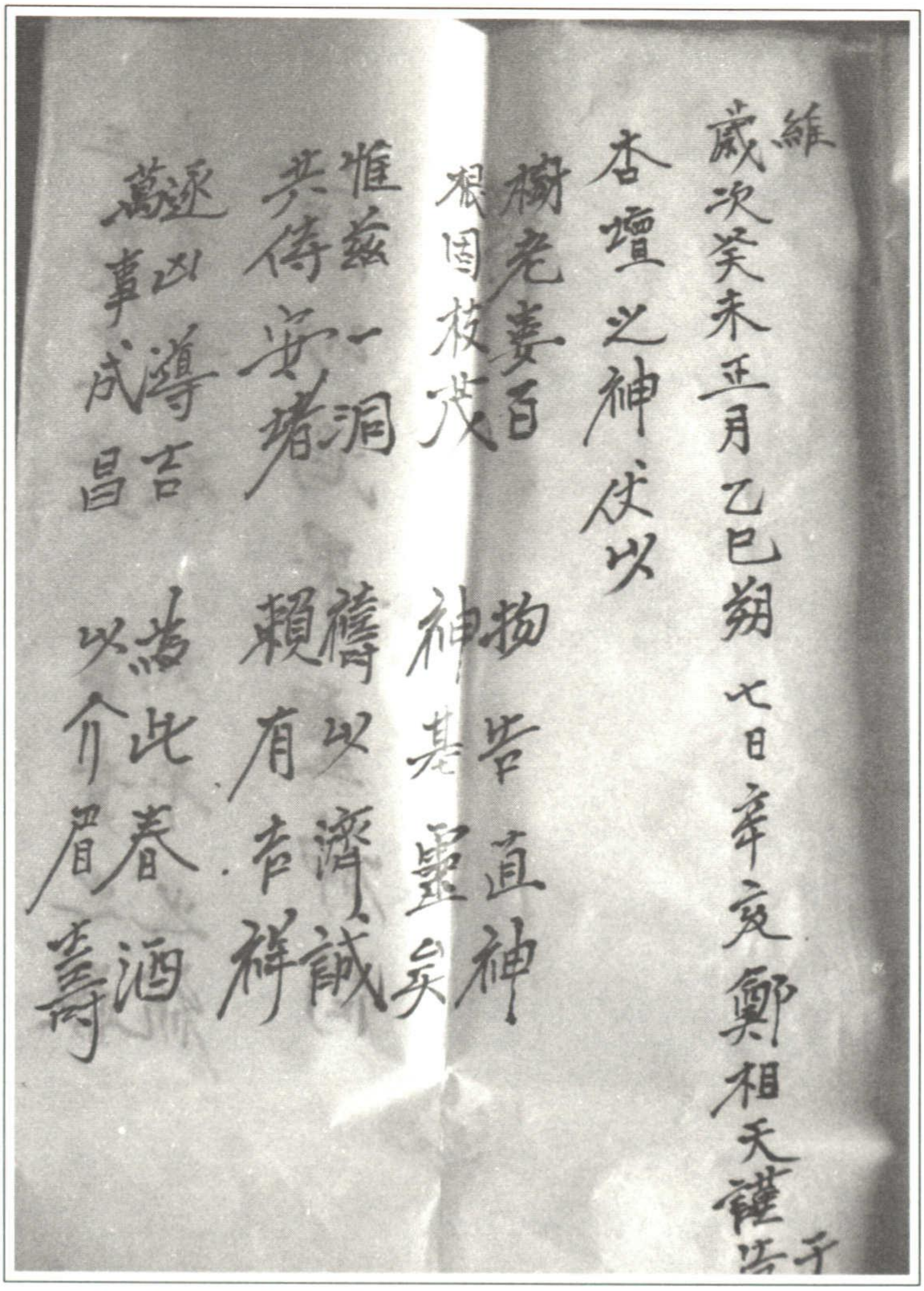
〈그림 36〉 우물

癸未正月乙巳朔七日辛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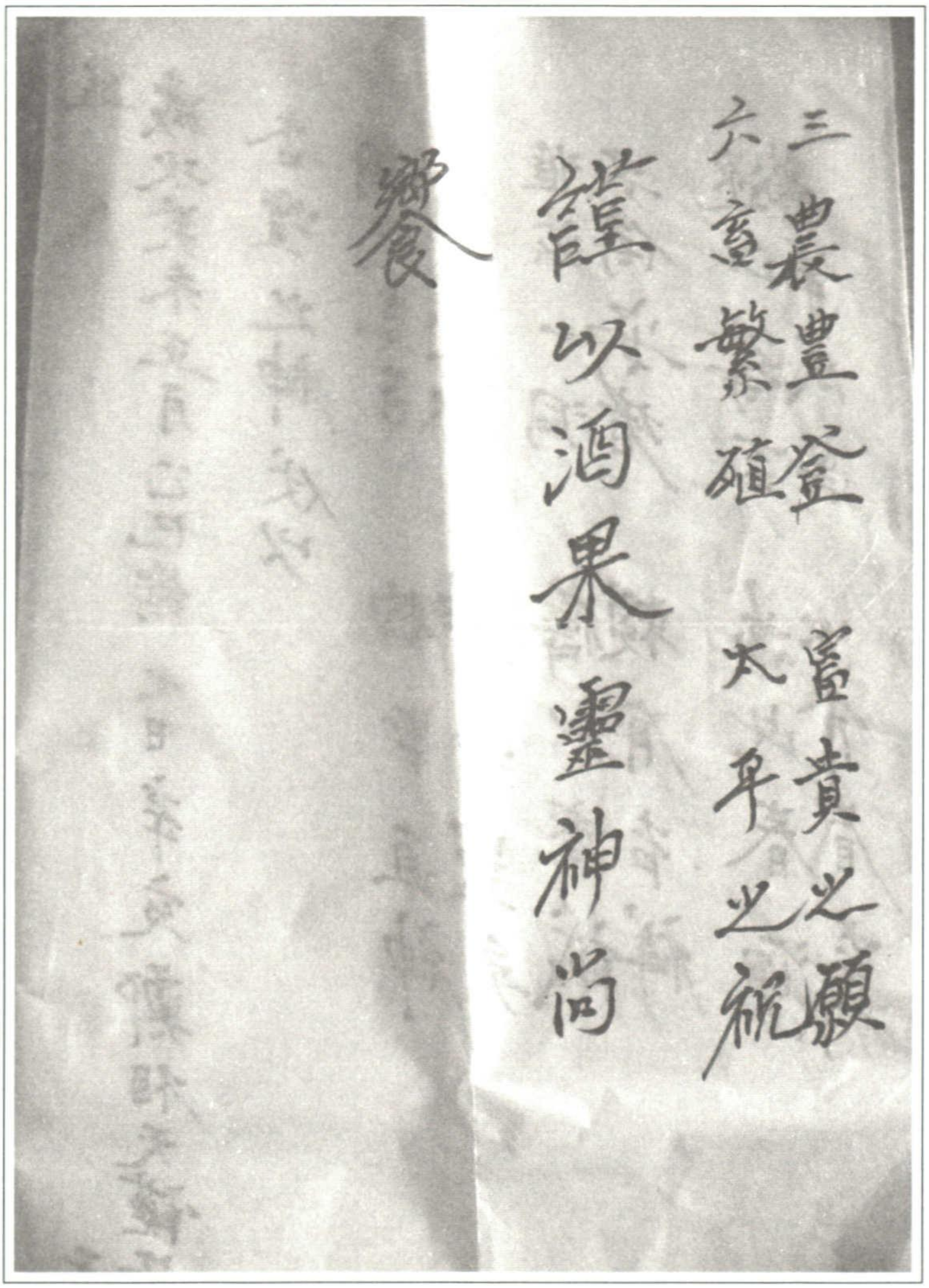
甲申正月庚子朔七日丙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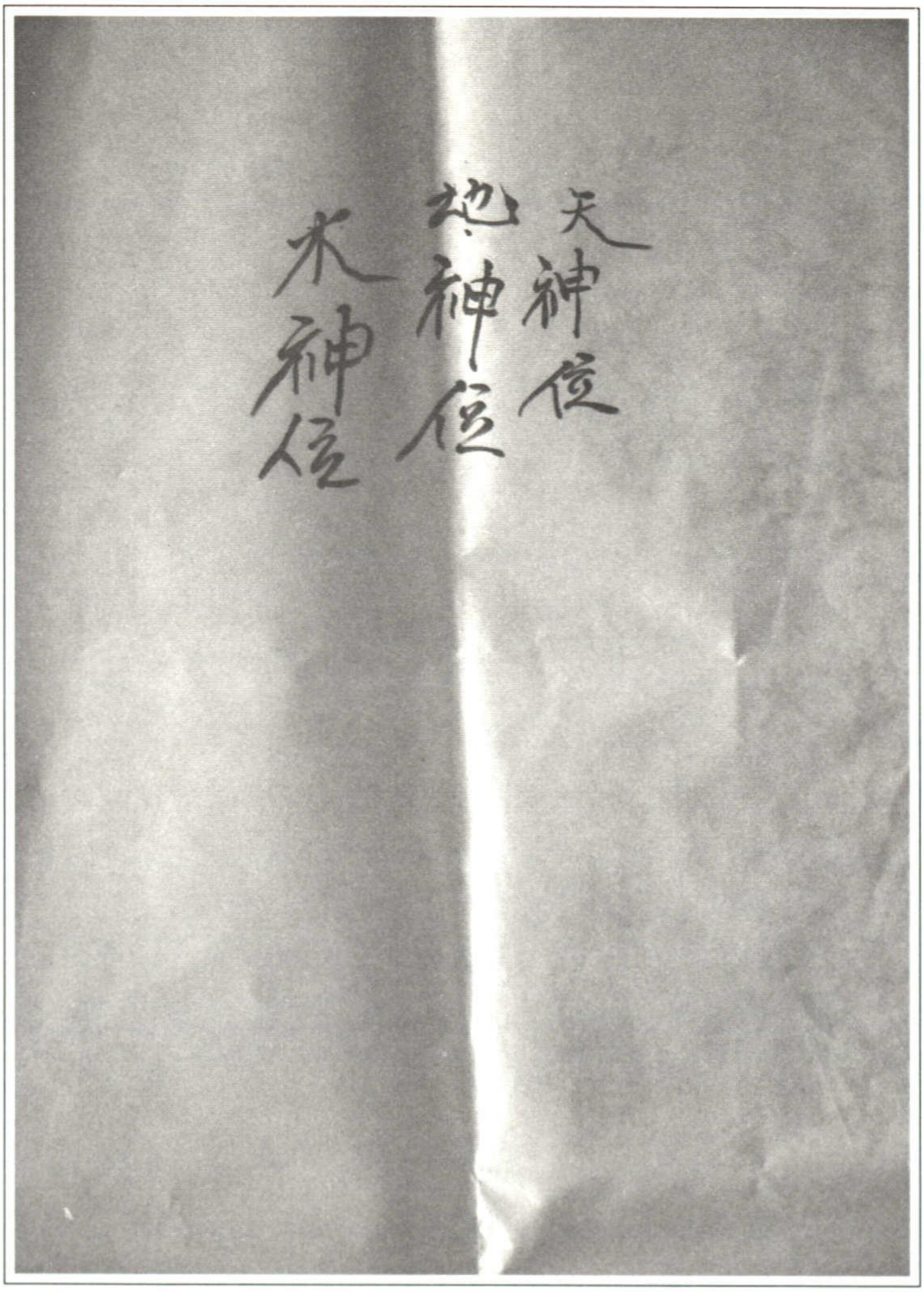
〈그림 37〉 축문1


維
歲次癸未正月乙巳朔七日辛亥鄭相天謹告于
杏壇之神伏以
樹老婁百
根固枝茂
物告直神
神基靈矣
惟茲一洞
共侍安堵
禱以濟誠
賴有吉祥
逐凶導吉
萬事成昌
為此春酒
以介眉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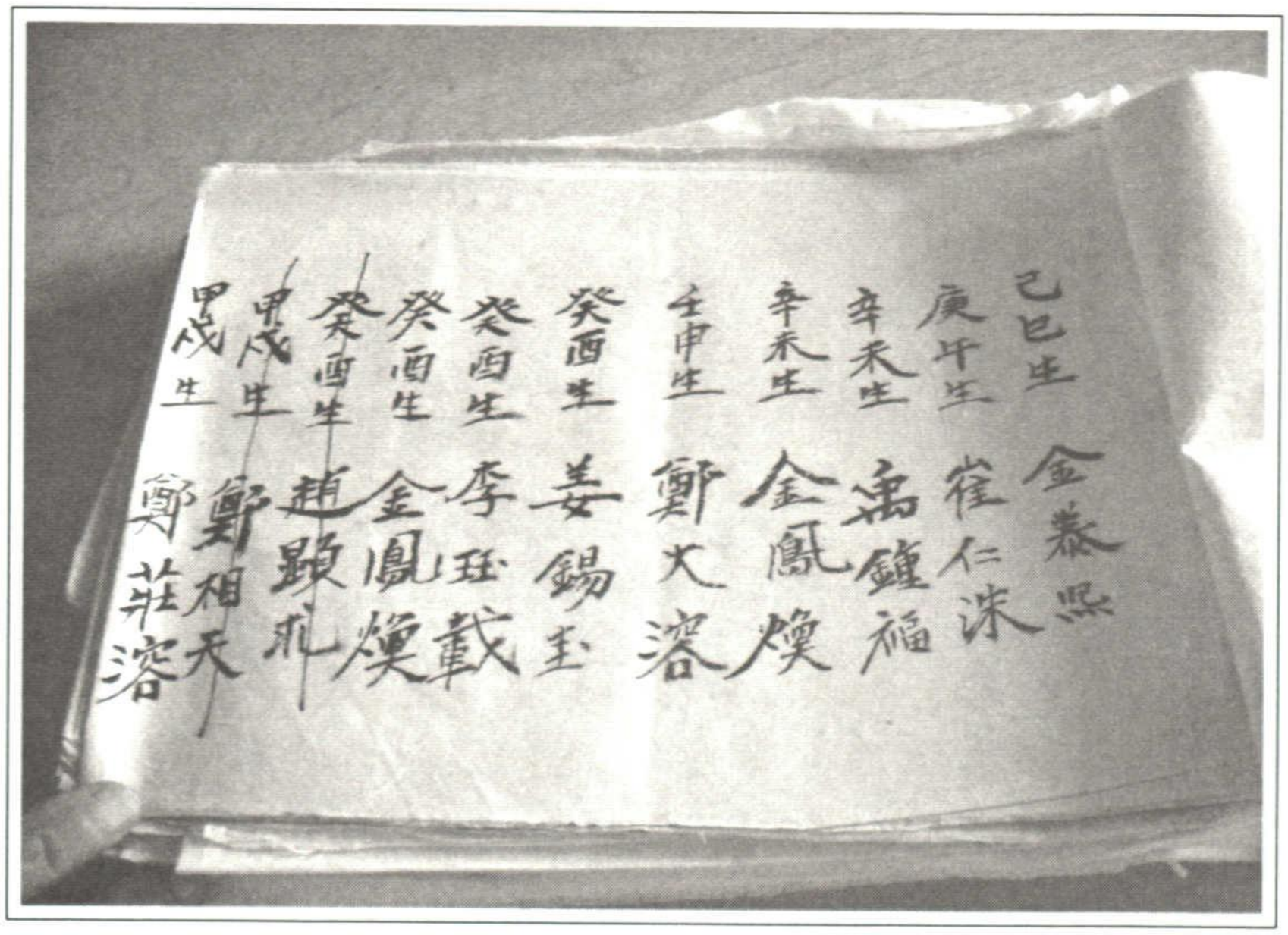
〈그림 38〉 축문2



〈그림 39〉 축문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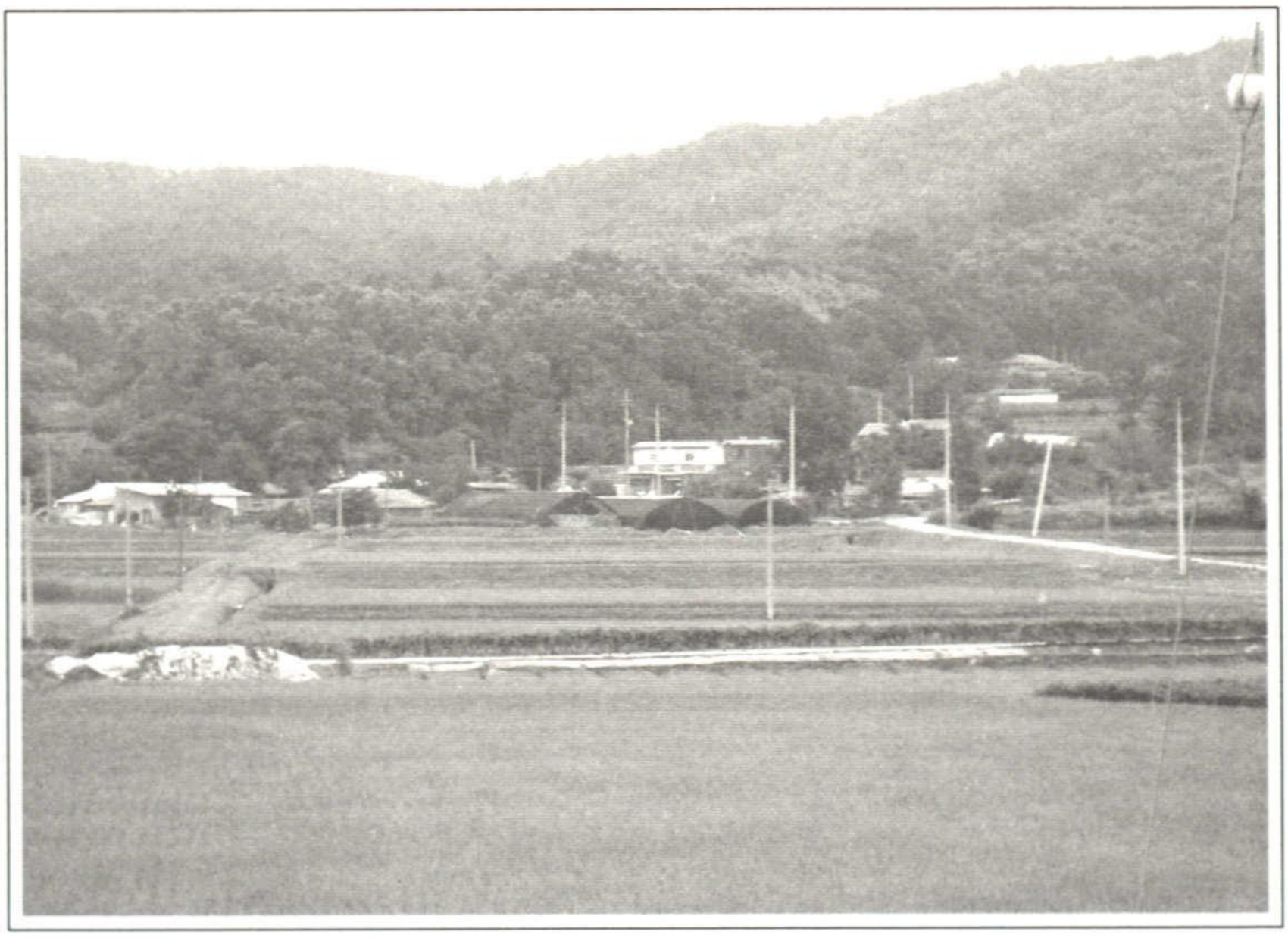
〈그림 40〉 축문4



〈그림 41〉 소지 명단의 일부

(11) 남양면 홍산리 지방바위 당산제당

마을 입구에 지방바위라고 이름 붙은 바위가 있다. 지방바위 이름의 유래는 한양에서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러 내려온 선비가 갈 길은 먼데 날이 저물자 아버지 제사를 지체할 수가 없어서 마을 앞 바위에 지방을 써 놓고 제를 올렸다고 해서 지방바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지방바위 뒤로 마을이 자리하고 있는데 넓은 대지에 가구가 흩어져 있으며, 주변에 산들은 고도가 낮아 대체적으로 평지의 자연환경이다.



〈그림 42〉 지방바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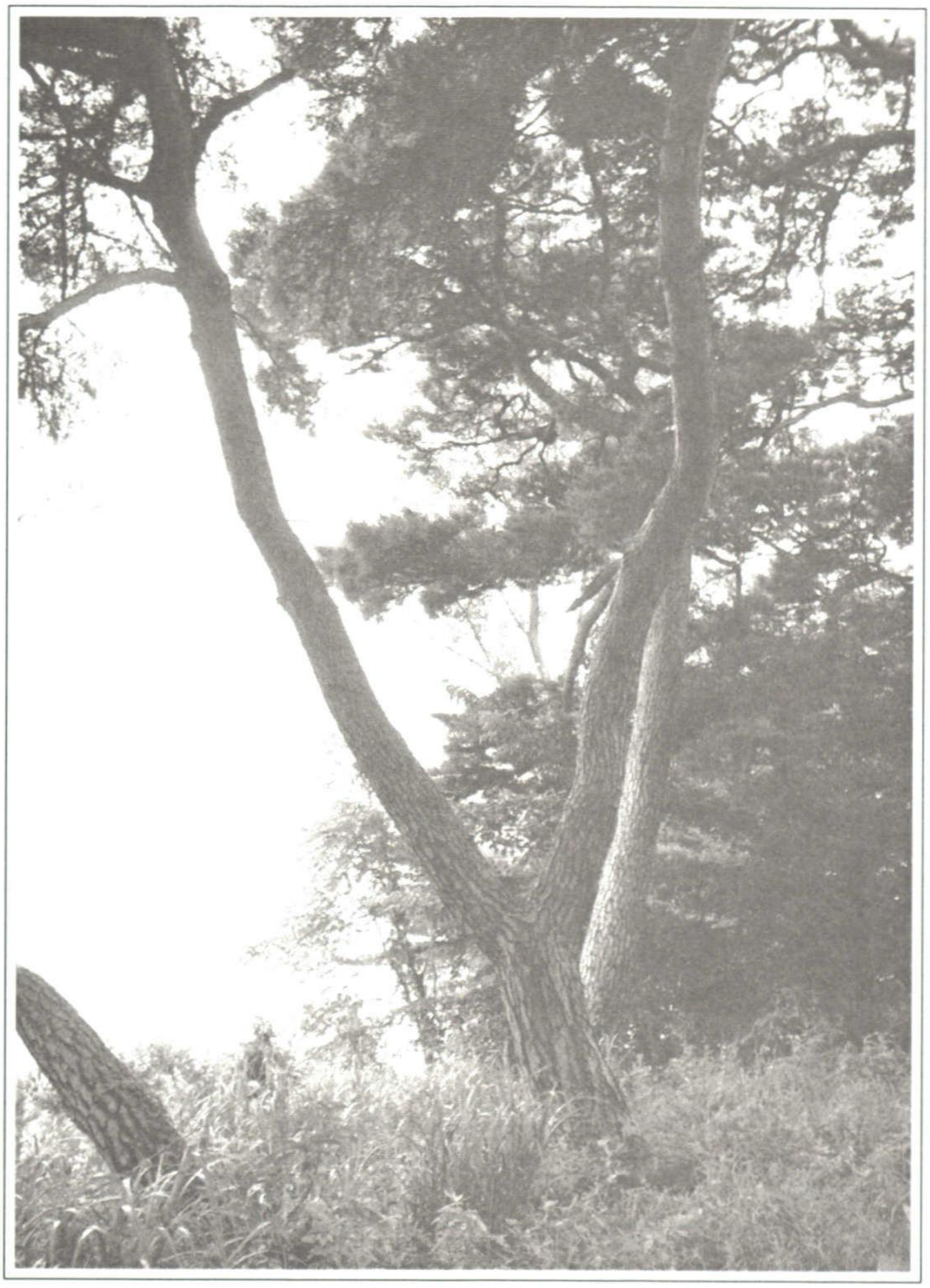
① 제례 공간의 형태

마을 앞 산(거북 등처럼 생겼다고 해서 거북 '기' 자를 써서 거부미산이라고 부른다.) 중턱에 산제당이 있었으나 2009년 8월 7일부터 산제당을 신축하려고 허물었다. 의례·제의 명칭은 당산제이다. 제당의 명칭은 산제당 이다.

과거의 산제당은 방 2칸 짜리 시멘트 건물이었는데 이를 기와집으로 좀 더 크게 신축하려고 한다.

제를 지낼 때는 산제당에서 제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소나무 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제를 지낸다. 그 소나무는 동네에서 일부러 심어놓은 것이

다. 산제당 안에는 당산제를 할 때 필요한 도구를 넣어 두며 제를 지내러 올라간 사람들이 추위를 피한다.



〈그림 43〉 산제당 옆에 제를 지내는 소나무



〈그림 44〉 산제당 가는 길



〈그림 45〉 과거의 산제당

원래 제를 지내는 곳은 산제당 주변의 가정집이었는데 이것이 80만원을 들여 초가집을 만들었다가 시멘트집으로 개축하였고 이를 다시 개축하는 것이다. 산제당 주변엔 소나무 숲이 있어 300년 정도 된 소나무들이 많다. 이는 과거에 마을 주민들이 심어놓은 것이다.

② 제의 형식과 절차

음력 1월 14일 밤에 산제당에 올라가서 지낸다. 정초에 마을에서 연세가 많으시고 생기복덕을 볼 줄 아는 어른이 뽑는데 화주를 한명 뽑는다. 예전에는 제를 지내기 한참 전에 뽑았으나 지금은 2주 전쯤에 뽑는다. 화주는 음식을 장만하며, 14일에 목욕재계를 하고 산제당에 올라간다. 목욕재계를 할 때는 과거에는 14일간 하다가 1주일로 줄었다가 3일로 줄었고 현재는 제사 당일 아침에 샘에서 목욕재계를 한다. 샘은 2개가 있으며 하나는 손을 씻는 샘으로 따로 만들었다. 샘은 2년 전(2007년)에 고쳤다. 또한 축문을 읽는 축관과 제관이 있다.

화주는 손 닦는 샘에 손을 씻고 올라가서 산제당 안에서 음식을 만든다. 이 때 담배를 피거나 말을 하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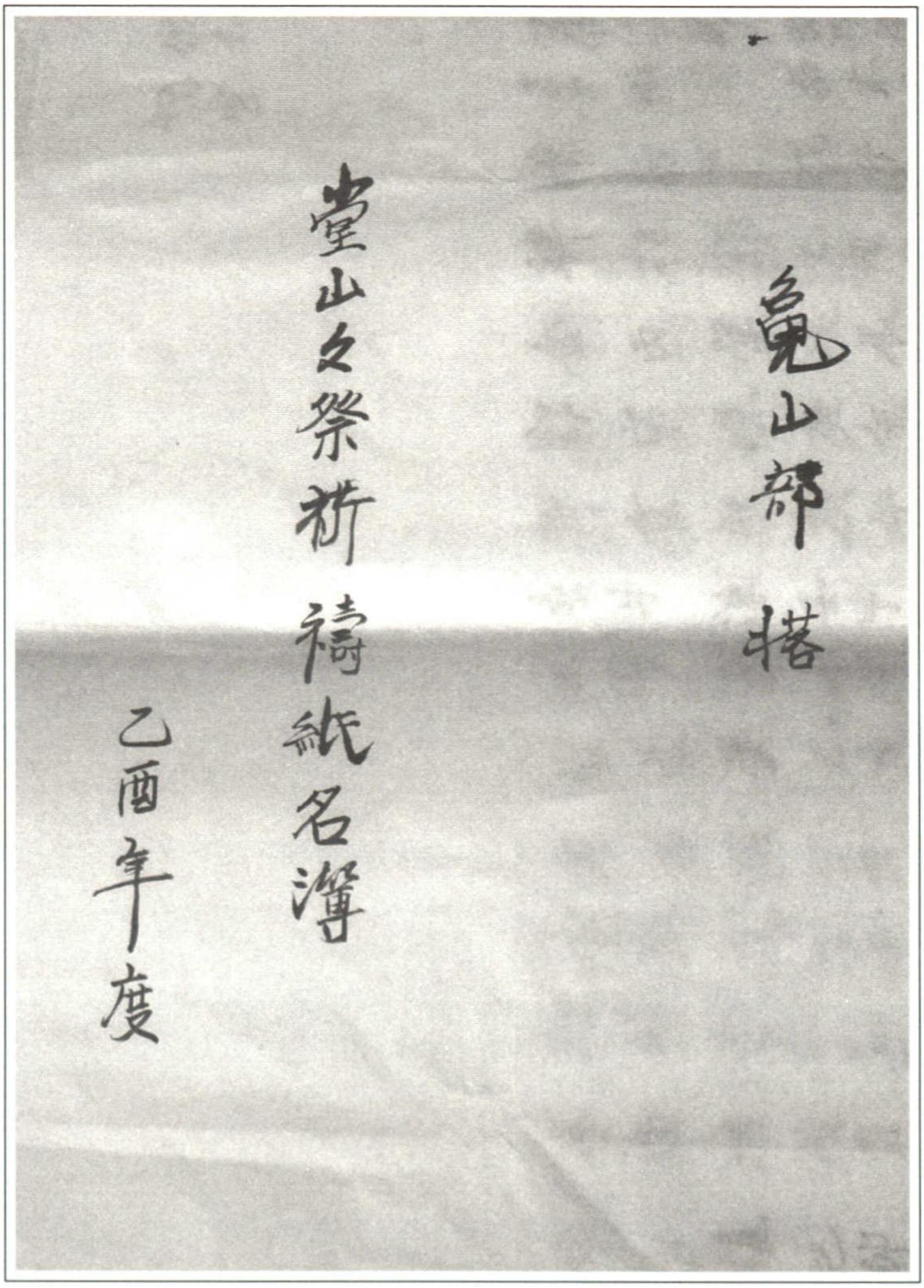
산제당에서 화주와 축관과 제관이 제를 지내는 준비를 할 동안 마을 주민들은 농악을 치고 제를 지낼 준비를 한다. 정월 14일 밤 11시에 마을 사람들이 산 아래쪽에 있는 샘에서 손을 씻고 풍장을 치며 올라간다. 그리고 산제당 옆의 소나무 옆에 앉아 계속 풍물을 친다. 풍장은 소지가 올라가면 그친다. 산제당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화주, 축관, 제관 그리고 마을 남자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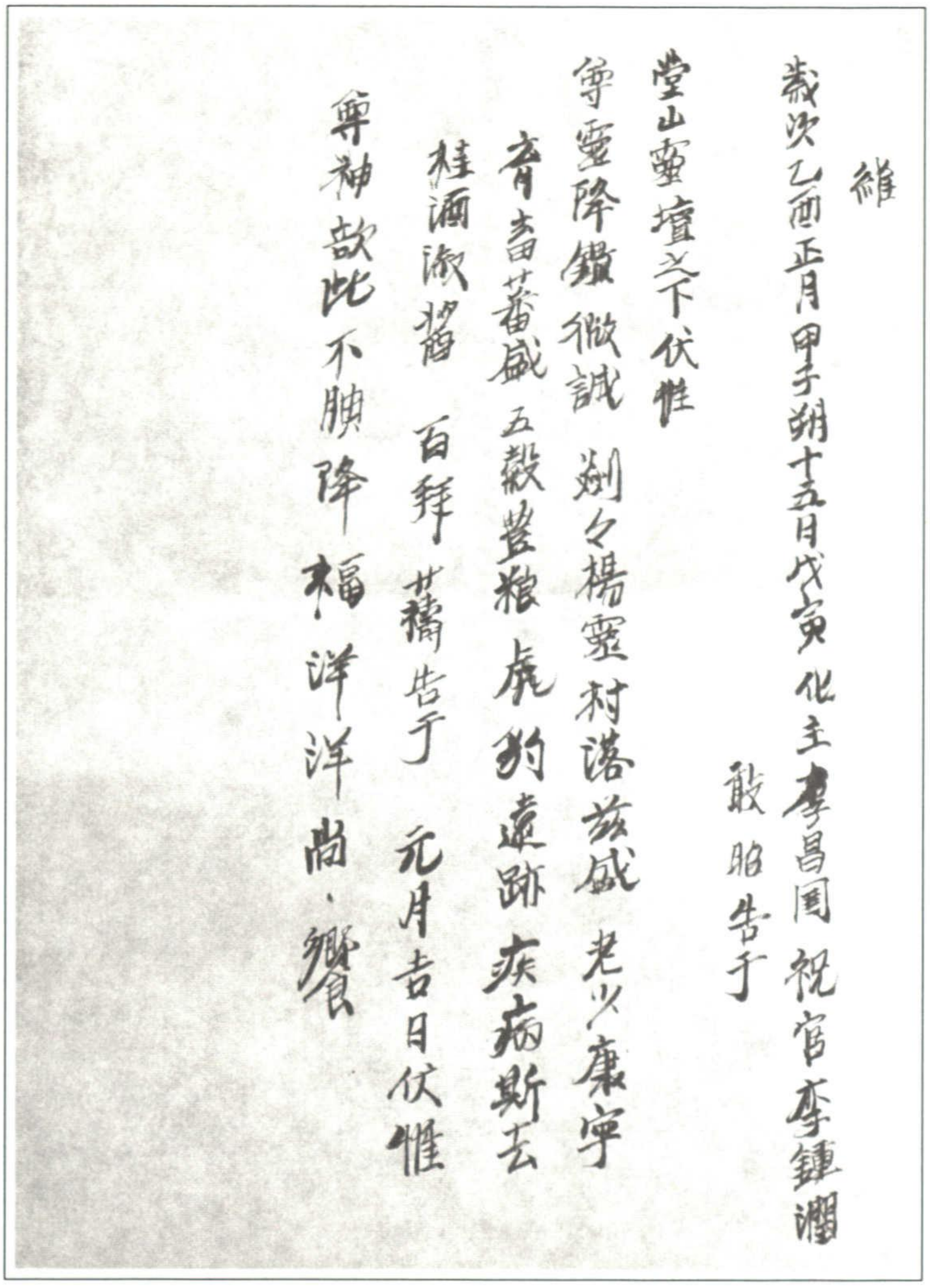
〈그림 46〉 샘제 지내는 우물

제의의 절차는 일반적인 유교식 제의와 절차는 같다. 산제를 지낼 동안 산제당에서 자정까지 풍물을 치면서 논다. 이 때 제물을 먹는다. 그리고 밤을 새고 보름날 새벽 4시에 산에서 내려오면서 샘 앞에 곶감, 떡, 밤, 대추, 북어포를 싸서 놔두고, 샘제를 지낸다. 그 후 풍장을 치며 계속 내려오다가 마을 앞 은행나무가 있는 삼거리에 거리제를 지낸 후 해산한다. 제물 중에 곶감을 3개 갖고 내려와서 산제 때 1개를 놓고 샘제 때 1개를 놓고 거리제 때 1개를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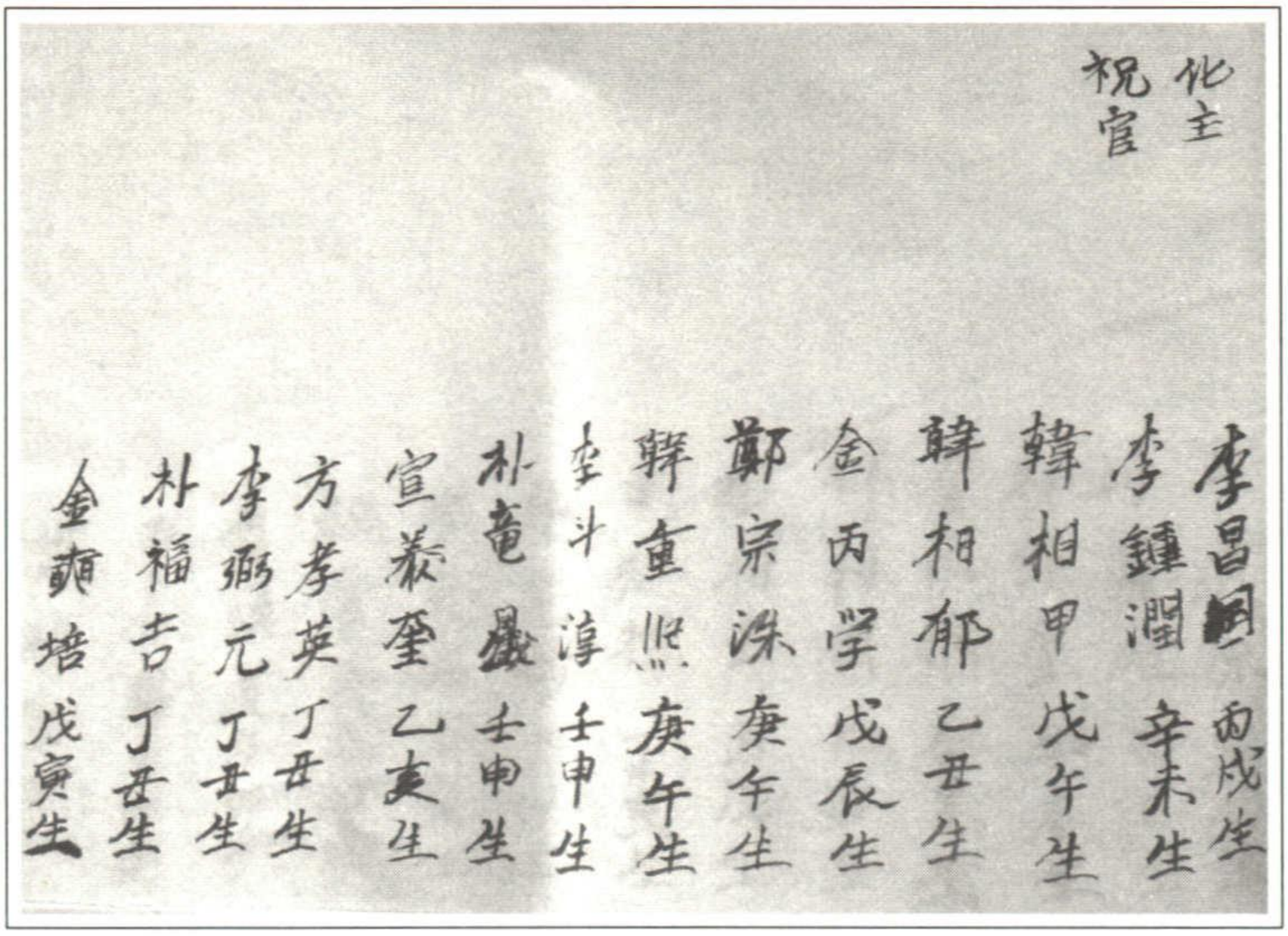
소지는 제관이 올리는데 마을 전체의 안녕을 비는 대동소지와 마을 사람 개개인의 안녕을 비는 소지가 따로 있다. 대동소지를 올린 후 집집마다 한 명씩 나이 순으로 호명(呼名)하면서 소지를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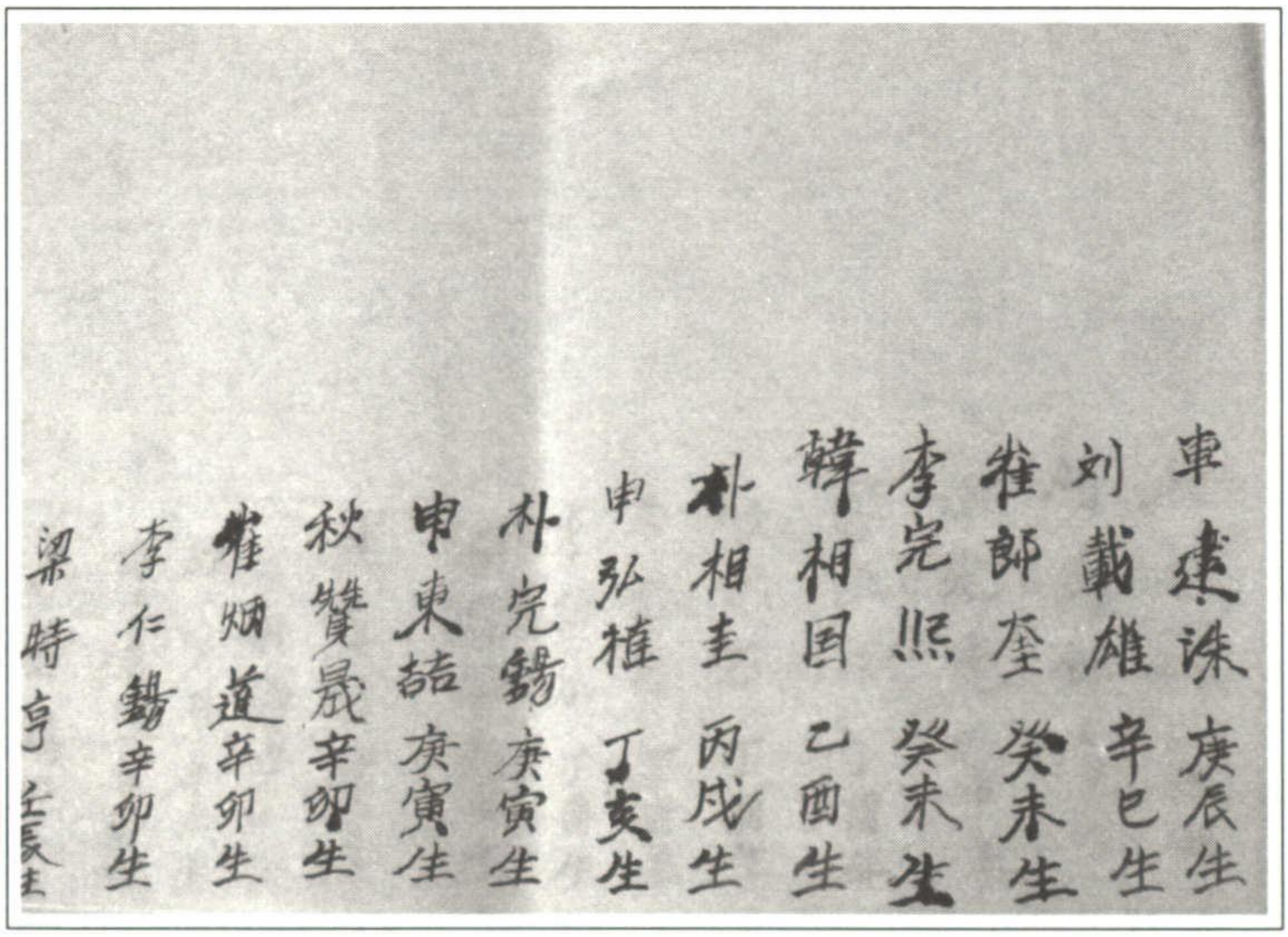
〈그림 47〉 축문1


維
歲次乙酉正月甲子朔十五日戊寅 化主李昌國 祝官李鍾潤
敢昭告于
堂山靈壇之下伏惟
尊靈降鑑微誠 剡々楊靈村落茲盛 老少康寧
齊畜蕃盛 五穀豐粮 虎豹遠跡 疾病斯去
桂酒淑醬 百拜 蕭告于 元月吉日伏惟
尊神歆此不腆降福洋洋尚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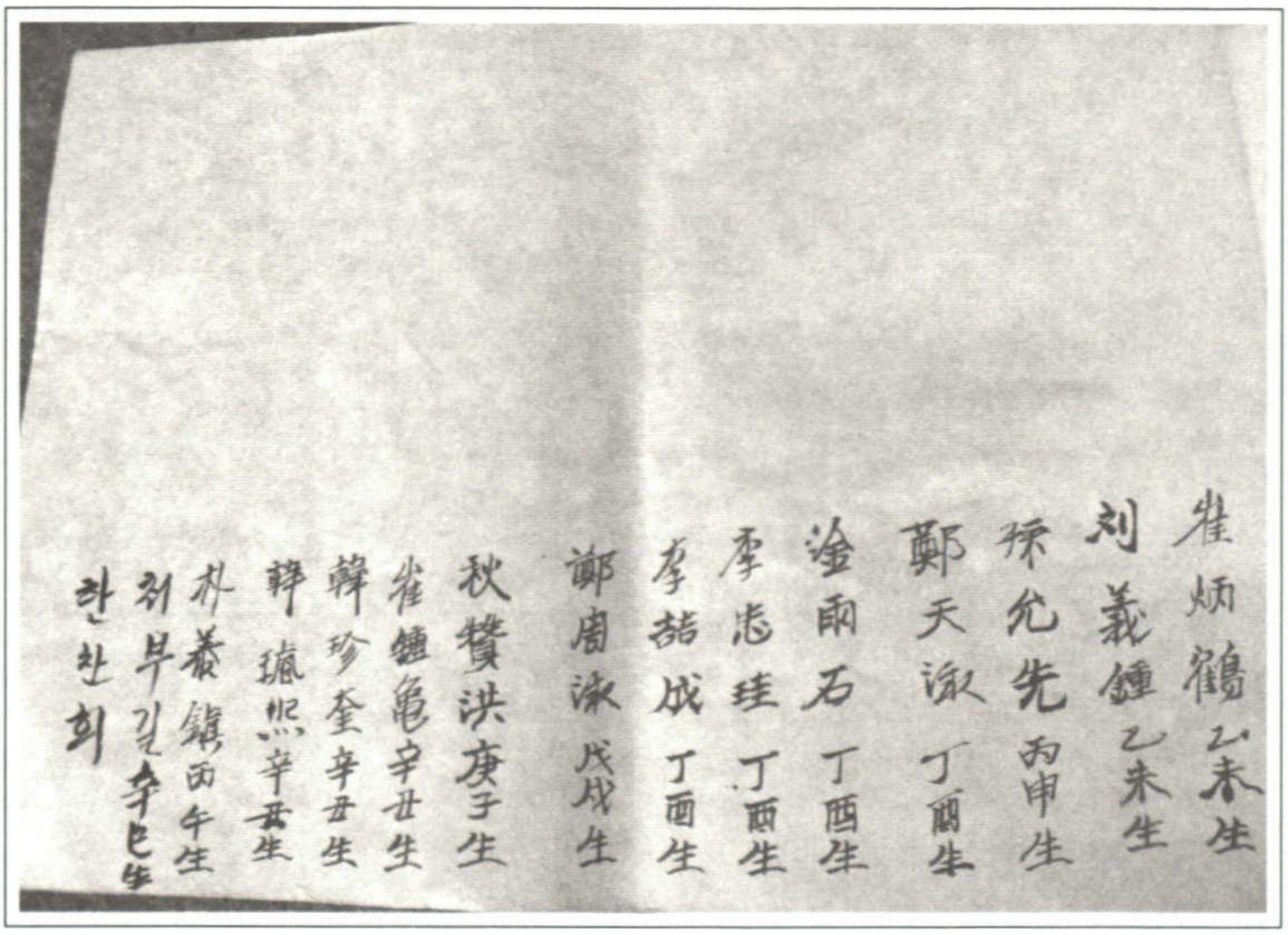
〈그림 48〉 축문2


化主
祝官
李昌[illegible] 丙戌生
李鍾濶 辛未生
韓相甲 戊午生
辞相郁 乙丑生
金丙学 戊辰生
鄭宗洙 庚午生
辞重熙 庚午生
李斗淳 壬申生
朴竜巖 壬申生
宣義奎 乙亥生
方孝英 丁丑生
李弼元 丁丑生
朴福吉 丁丑生
金商培 戊寅生

〈그림 49〉 소지 명단1


車建洙 庚辰生
刘載雄 辛巳生
崔郎奎 癸未生
李完熙 癸未生
韓相国 乙酉生
朴相圭 丙戌生
申弘権 丁亥生
朴完錫 庚寅生
申東喆 庚寅生
秋贊晟 辛卯生
崔烟道 辛卯生
李仁鍚 辛卯生
梁時亨 壬辰生

〈그림 50〉 소지 명단2



〈그림 51〉 소지 명단3

동네에서 마련한 기금을 사용한다. 그 기금은 장례 후 상주가 초상 치르는 것을 도와준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을에 낸 돈으로 이뤄진다. 한번 당산제를 치르는데 드는 비용은 30~40만 원 정도이다.

제물은 모두 남자가 준비해야 하며 특히 화주가 준비한다. 제물로는 북어포 3개, 곶감, 대추, 밤, 김, 백무리(떡), 밥, 탕(무 넣고 끓인 것), 배, 사과, 술, 익힌 돼지머리 등이 쓰인다. 돼지는 마을 사람들이 회관 앞에서 잡아서 그 머리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돼지에 상처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돼지를 잡을 때는 칼로 목을 따서 죽이며 돼지의 피와 고기는 마을 사람들이 나눠먹는다. 제를 지낼 때는 머리만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 다시마를 넓은 것을 사서 무쳐서 올린다. 술은 1월 14일 새벽 4시에 화주가 목욕재계를 하고 올라가서 누룩으로 직접 담그며 밥도 지어놓는다. 옛날에는 당산제 7일전쯤에 담갔으나 지금은 3일전쯤에 담근다.

③ 금기와 기타사항

산제를 지내기 전엔 마을길마다 금줄을 매고 거부미산에서 황토를 퍼다 길목마다 뿌린다. 당산제를 지낼 때 여자는 참여할 수 없다.

음력 1월 14일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 들어오는 입구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린다. 이날 화주는 술을 담그러 새벽에 산제당에 올라가야 하는데 목욕재계를 해야 하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소지를 올린 후 종을 3번 쳐서 마을 사람들에게 당산제가 끝났음을 알린다. 그 뒤에는 거리제가 시작된다. 거리제는 하고 싶은 집만 떡시루를 장만하여 지내는 제사이다. 거리제가 끝나는 시간은 대개 새벽 1시쯤이

다. 거리제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어울려서 논다.

(12) 화성면 형산리 마을의 산신제

① 제례 공간의 형태

화성면 형산리의 산제는 마을의 산에 있는 소나무 앞에서 지낸다. 과거에는 현재의 위치에 짚으로 지붕형태만 만들어서 그 곳에서 제사를 지냈다. 하지만 30년 전에 콘크리트로 2칸짜리 당집을 지어서 그 안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② 제의 형식과 절차

화성면 형산리에서는 산제라 불리는 제의를 음력 정월 열나흘에 지낸다. 제의는 열나흘 밤 11시쯤 시작해서 보름날 3시 정도에 끝이 난다. 산제에서 모시는 신은 산신이다.

화주라고 불리는 제관으로 남자 2명을 뽑는다. 이들은 생기복덕을 따져서 뽑게 되는데, 이들은 이 닿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음식을 담당할 여자 2명도 뽑는다. 이들은 특별한 명칭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제의를 담당할 사람들은 모두 설날이 지난 후에 선출한다.

제의에 필요한 경비는 마을사람들이 갹출을 하여서 마련한다. 제를 지내기 전의 적당한 날을 정해서 가구당 1만원을 걷는다.

제물은 제사지내는 날(1월 14일) 새벽에 사온다. 특별히 정해진 사람은 없으며, 보통은 차가 있는 사람이 나가서 사온다. 살 때에는 상인에게 제사에 쓸 것이라고 말하면 상인이 알아서 최고로 좋은 물건을 주며, 이때는 흥정을 하지 않는다.

제물로는 메, 떡(백무리), 술(막걸리), 과일(사과, 밤, 대추), 통돼지 등이 쓰인다. 메나 떡을 짓기 위한 쌀은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화주가 된 사람의 집에서 가져온다.

메는 화주가 산에 올라가서 짓고, 떡은 밑에서 쪄서 들고 간다. 술은 양조장에서 받아서 들고 올라가며, 돼지는 14일 새벽에 사와서 그날 마을회관에서 마을사람들이 잡는다. 돼지는 암, 수를 가리지 않으며, 회관에서 잡을 때에도 사람들이 모인다고 한다. 돼지는 배를 가른 후, 피만 빼고, 물로 씻어서 피가 보이지 않도록 한 후에 창자는 다시 안에 넣는다.

화주가 된 사람은 정해진 날로부터 부정한 것을 보면 안 된다. 그러나 강하게 지켜지지는 않는다. 일반적

인 유교식 제의와 절차는 같다. 화주는 마을사람들 중 남자만 가능하다. 제의의 마지막에는 소지를 태운다. 먼저 대동소지를 태운 후 각 가구별 소지를 올린다.

제사가 끝난 후 화주들은 음복을 하고 내려오며, 내려와서는 마을사람들과 간단하게 음복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정자나무에 제사를 지낸 후에 돼지로 국을 끓여서 술을 마시며 논다고 한다.

③ 금기와 기타사항

제관은 부정한 것을 봐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항상 조심하며, 목욕재계를 한다. 금줄과 황토를 부정한 사람 당집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당집주위에 친다. 그러나 화주집이나 음식을 하는 장소에는 금줄을 치지 않는다. 산제사를 지내기 3일전부터는 화주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당집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제물을 장만할 때는 음식의 맛을 보거나, 말을 해서도 안 된다. 양념을 해서도 안 되나, 소금으로 간을 맞출 수는 있다. 산제를 지내고 난 후, 다음날 아침에 정자나무제사를 지낸다. 이는 산제사보다 작게 지내며, 제물로는 생쌀과 떡과 술을 놓는다. 떡시루 위에는 불밭이를 올린다.



〈그림 52〉 산제당

(13) 비봉면 관산리 산제

① 제례 공간의 형태

비봉면 관산리에서는 예전에 바위 밑에서 산제를 지냈다. 일제시대 중엽부터 사기로 만든 말을 모셔놓고 지냈는데, 사기말이 깨지면서 산제당을 지었다. 해방 후에는 산제계[2]를 조직하였는데 이 산제계가 1987년에 제당을 새로 지었다. 산제당 안에 호랑이 그림액자를 걸어두었다.[3]

---

2) 장재리 녹평리 강정리까지 포함하여 4계리가 산제계를 만들었다. 사점마을은 제외였다.

② 제의 형식과 절차

예전에는 정월보름날 설을 지내고 걸립을 하고 지냈었다. 정월초닷새로 바뀌었다. 보름날 하다 보니 상당하는 일들이 많았다. 밀리면 2월에 지내야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정월초로 바꿨다고 한다.

설을 지내기 전에 선출을 한다. 도가(도가 내외), 제관, 축관, 음식을 지는 짐꾼을 뽑는다.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뽑는다.

산제계를 조직하여 계비[4]를 모아 그것의 이자로 산제를 지낸다. 산제계가 있기 전에는 걸립으로 하여 비용을 충당하였다.

삼색과일 미역 북어 떡(백무리)을 올렸었다. 육류를 하나도 올리지 않았다. 현재에는 삼색과일을 포함하여 귤도 올리고 돼지머리를 올린다. 미역으로 탕을 하고 감은 건시, 곶감을 사용한다. 정월 초이튿날 산제계 책임자가 도가 중 한명을 데리고 가서 장을 보러간다.

음력 초이튿날부터 기도를 드린다. 마을입구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린다.

---

3) 제보자(유천식)가 직접 대전에서 사다가 걸어두었다.
4) 가입할 때 쌀을 닷 되 정도 받았는데 현재는 쌀 두 말 정도(약3만 원)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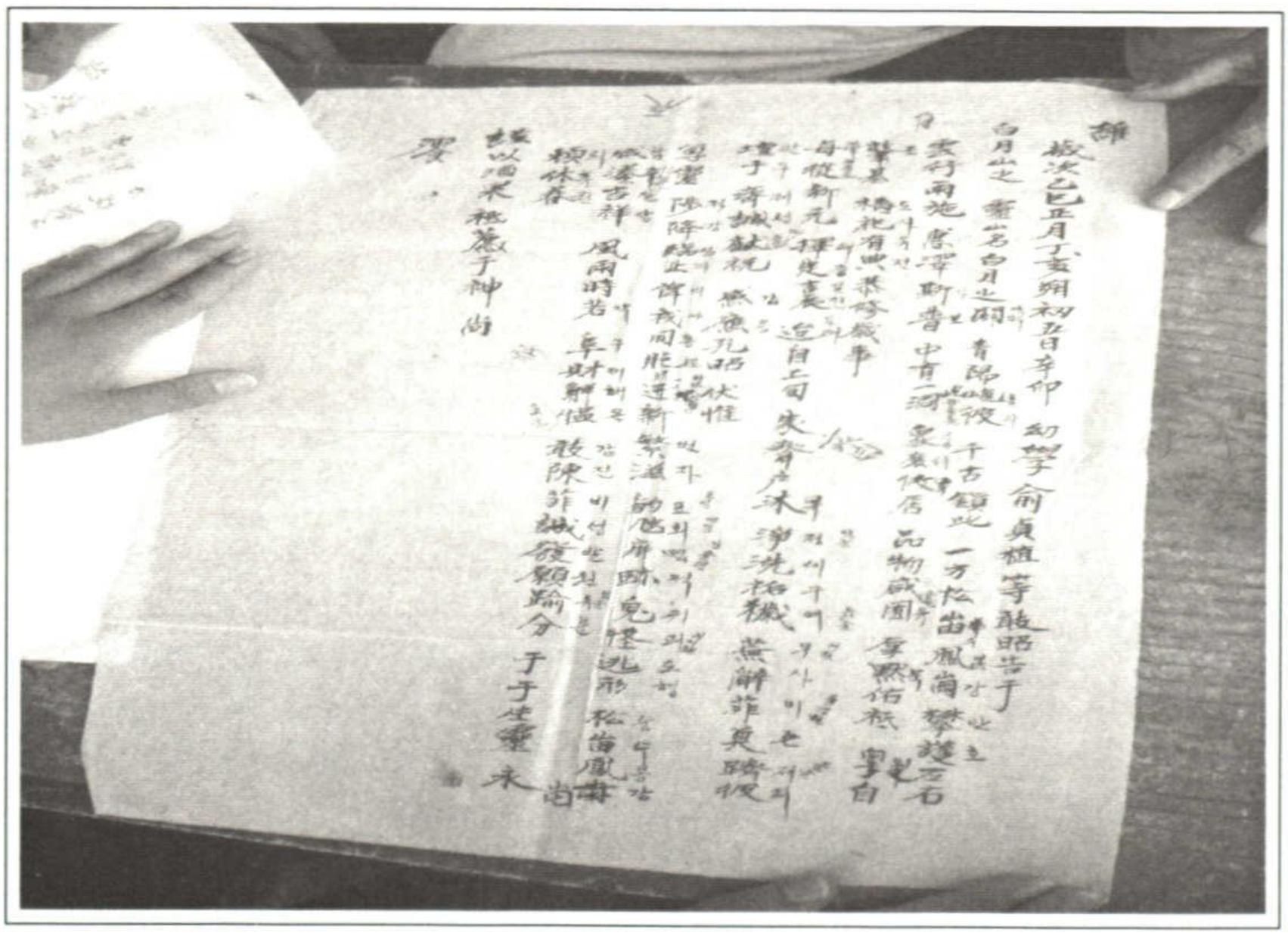
떡은 미리 하여 오후 5시경에 올라가서 매(쌀 한 되)를 그곳에서 짓는다. 제관이 진설을 하고 축관이 축을 읽는다. 단잔을 올린다. 그 후 소지를 올린다. 8시 30분 정도에 제가 끝난다.

계원[5]은 전부 소지를 올린다.(4계리사람 모두) 관산리는 30명 정도이지만 150명 정도 올린다. 상을 당한 복인들은 소지를 올리지 않는다. 한 명은 소지를 말고 두 명이 태우고 한 명은 소지의 이름을 부른다. 잘 올라가면 운수가 좋다. 계원들과 계원의 가족들, 희망자들의 소지는 백지대를 성의껏 받고 올려준다. 백지가 7~8권 정도 사용된다.

돼지머리를 삶아서 도가집에서 마을사람들이 나눠먹는다.

---

5) 계원은 호당 한 명이다. 계원자격은 사후 아들에게 승계가 된다. 소식이 없는 사람은 승계가 되지 않는다. 산제계에 자신의 소식을 말하는 자는 타지에 나가 있어도 소지를 올려준다. 처음 계원은 거의 없고 계승한 자녀들이 대부분이다. 자식이 없는 사람은 부인이 계승하기도 하였다.



〈그림 53〉 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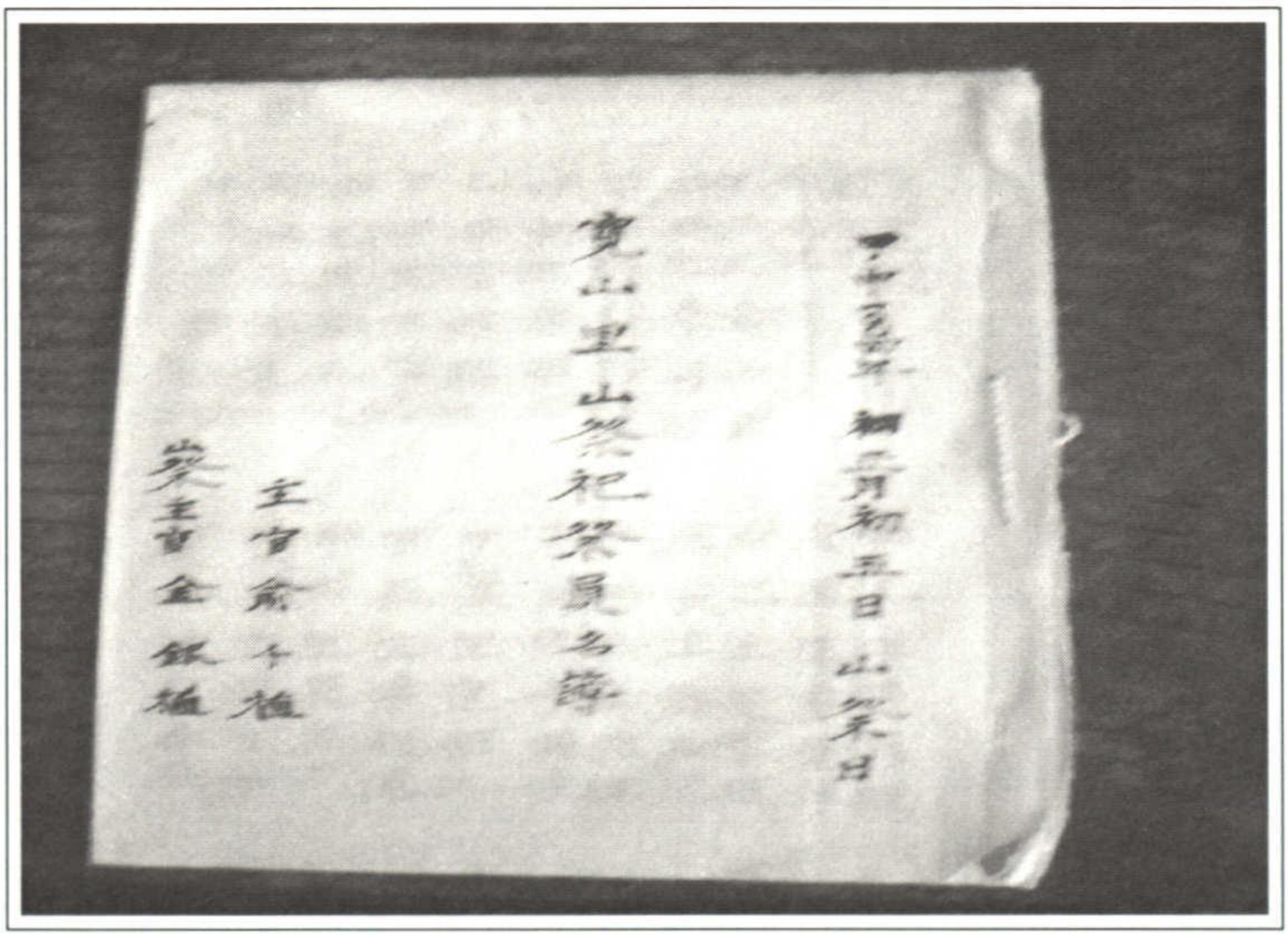
③ 금기와 기타사항

제관들은 화장실을 갔다 와도 목욕을 하여야 한다. 예전에는 말툰벙[6]에 가서 3일 동안 목욕을 하여야 했다. 추워도 춥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되었다. 현재는 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정월명절을 세고부터 3일 동안 마을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않았었다.[7]

---

6) 광산이 있고 저수지가 생기면서 현재는 없어졌다.
〈관련설화〉 – 백제가 멸망하던 시기에 군대가 이동을 하고 있었다. 지나가던 길에 매복해있던 적과 전투가 벌어졌고 백제 장수가 죽으면서 말이 무릎을 꿇은 흔적이 바위에 새겨져 있다. 그곳이 말툰벙이 되었다.

산제계원 중 대표자를 뽑아서 마을과는 별도로 산제계를 관리한다. 제보자는 작년에 김은식에게 인계를 하였다. 4년 전 4월 20일경에 큰 산불이 났었는데 산제당은 다행히 피해가 없었다.



〈그림 54〉 계원명부

영험성을 대체적으로 믿고 있다. 일제시대나 6.25사변 때도 인명피해가 없었다. 산제가 끝난 후 그날 저녁에 나무 앞에서 안택고사를 많이 했었다. 산제당 밑에

---

7) 산신도 먹지 않는데 우리도 먹을 수 없다며 고기를 삼갔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여력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컸었다.

있는 바위 앞, 삼거리에서 안택고사를 하기도 한다.

(14) 비봉면 중묵리 하묵 산제

① 제례 공간의 형태

까치봉(자황산)에서 제를 지낸다. 예전에는 짚을 직접 모아 마을사람들이 지고 올라가서 산제당을 지었다. 최근에 함석으로 산제당을 지었다. 예전에는 산제당 안에 유명한 화가가 그려준 탱화가 있었으나 현재는 불타 없어졌다.



〈그림 55〉 산제당

② 제의 형식과 절차

비봉면 중묵리에서 산제를 지낸 지는 200년 정도 되었다. 산제에서 모시는 신이 호랑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산제는 음력 정월 14일 10시부터 보름날 1시까지 약 3시간 정도 지낸다. 예전에는 신월리와 함께 제를 지냈다.

제일의 생기복덕을 짚어서 뽑는다. 축관, 제관, 식번(식사를 담당)과 유사는 2명이다. 이들은 제의 전에 7일 기도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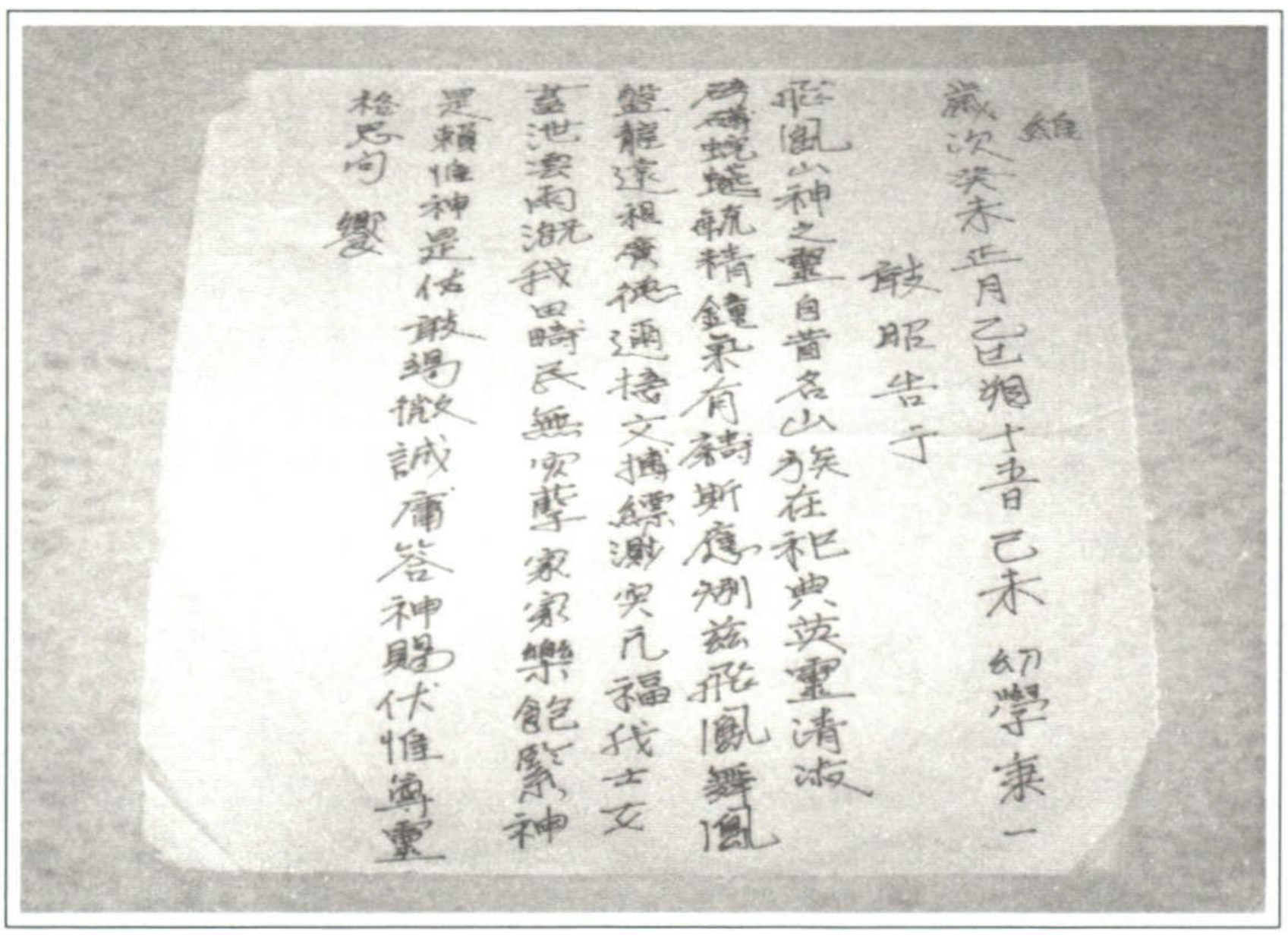
예전에는 걸립을 하여 비용을 모았다. 벼, 돈 등을 내었다. 현재에는 산제계의 형식으로 마을 자금이 200~300만 원 정도 생겨서 더 이상 걷지 않는다. 이자로 산제를 지낸다. 이자로 부족할 경우 그때 충당한다. 작년에는 새끼를 꼬아서 모자란 비용을 충당하였다. 예전에도 비용이 많이 모자라서 돼지를 잡고 나머지 부위를 팔기도 하였다. 현재 한번 산제를 지내는 데에 40~50만 원 정도 든다.

예전에는 소를 잡아 올렸지만 20년 전부터 경제사정상 돼지를 잡는다.[8] 제를 지내는 당일 계장의 마당에

---

8)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산제지내는 비용을 충당할 만한 사람 수가 현저히 줄었다.

서 잡는다. 돼지 앞다리만을 식번집에 보관해두었다가 올라간다. 여유가 있는 해는 돼지 전체를 제물로 올린다. 고기, 북어포, 술(정종)를 진설한다. 매는 위에 올라가서 지어서 올린다. 예전에는 식번이 벼를 일일이 까서 제에 올리는 매를 지었다. 식번집에 제기를 보관한다. 모든 제물은 유사가 구입한다.



〈그림 56〉 축문

매를 지을 물을 갖고 올라가서 매를 짓는다. 처음에 초를 킨다. 지금은 전기가 설치되었다. 향을 먼저 피우고 제관이 잔을 한잔 따른다. 축관이 축을 읽고 제관이

잔을 한잔 따른 후 소지한번 올린다. 이것을 21회 반복한다. 돼지고기를 한 점 떼어서 제당 뒤 바위 앞에다 묻는다. 그리고 제물음식을 갖고 내려온다.

예전에 어느 시인이 지은 축문을 사용한다. 희망하는 자만 소지에 이름을 올린다. 소지는 이름을 부르고 올린다.

제를 지내고 난 후에는 음식을 갖고 내려온다. 돼지고기는 돈을 내고 나눠먹는다.

③ 금기와 기타사항

예전에 제관들은 일주일씩 두문불출 하였다. 이웃과 대화도 하지 않고 부부합방도 하지 않았다. 밥도 상에 받쳐 먹지 않고 땅에 두고 먹고 비린 반찬도 먹지 않았다. 반찬은 소금물정도만 차릴 정도였다. 장을 볼 때 가격을 깎으면 안 된다. 축관, 제관, 식번 집 앞에 금줄을 친다.

산제당 안에 유명한 화가[9]가 그려준 탱화가 있었는

9) 화가의 누나가 청양에 살고 있었다. 청양에 왔다가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여비가 없어서 주막에서 탱화를 걱정하는 사람을 만났다. 탱화를 그려주고 돈을 받아 그것을 갖고 서울로 올라갔다. 그 뒤 유명한 화가 되어 방송국에서 산제당의 탱화를 취재하러 왔었다.

데 20년 전에 불에 타 소실되었다. 산제당까지 산길위에 가로등을 주민들의 힘으로 쭉 세웠다. 6.25당시 때 이 마을에서 사망한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 각 가정집에서는 산제가 끝나면 개인적으로 시루를 놓고 치성을 드린다. 계원명부에는 기혼자부터 나이순대로 쓰고 미혼자(동몽)를 나이순대로 썼다.

3) 당 + 단

(1) 대치면 광금리 너븐밭 산제당

① 제례 공간의 형태

대치면 너븐밭의 당은 산제당산(당이 있어서 그렇게 부른다) 중턱에 있는데 지형이 험하고 무서운 곳에 지었다. 그 이유는 산제당은 신성한 곳이라 사람이 접근하기 힘들게 하기 위해서이다. 산제당은 상당과 하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상당은 산신을 모시는 곳으로 제단이 있으며 옆에 제관들이 쉴 수 있는 당이 있고, 하당은 청양에서 제일 큰 참나무(1000년이 넘음) 옆에서 하당제를 지낸다. 금줄도 쳐져 있고 함석으로 지었고, 짚풀로 지었다가 다시 지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제군이 있는 제를 지낼 때까지 기다리는 곳이고 당 옆

에 돌로 단을 음식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곳에서 제를 지낸다. 당은 제 지낼 때 외에는 안 가는데 가끔 도토리 줍고 할 때 가는데 당 근처가면 머리가 쭈뼛하고 무섭다고 한다.

② 제의 형식과 절차

산제는 음력 정월 14일 저녁에 치른다. 산제의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고, 예전부터 산신을 모셨다고 한다.

제관은 정월 초닷새에 축관과 화주를 뽑는데, 아랫당 제관과 웃당 제관, 화주를 생기복덕을 따져서 뽑는다. 아기 안 밴 사람, 출산 달이 아닌 사람, 피를 보지 않은 사람으로 생기복덕을 가려서 일진이 좋은 사람으로 짐승도 새끼 없는 사람, 몸에 피부병 없는 사람을 뽑는다.

당이 아랫당, 윗당으로 2개라서 2사람을 뽑는데 시중드는 사람은 따로 뽑는다. 2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을 뽑고 시중드는 사람도 좋은 사람을 뽑는데 인원이 제한하지는 않는다. 소지를 객지에 나간 사람들도 올리기 때문에 밤새 올리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인원을 뽑는다.

남자만 뽑는 것은 일이 힘드니깐 남자를 뽑는 것이다. 윗당, 아랫당 사이에 집을 지어서 기다리고 그릇이

나 제물을 올려다 놓기도 하고 정성을 드리기도 한다. 제관이 선정되고 하루 지난 후에 청소하고 금줄 치고 매일은 아니고 자주 간다.

제비마련은 초닷새 날부터 동네사람들에게 제당찬조금을 정성껏 걷는데 보통 만원씩 낸다. 제관 뽑은 날 풍장을 치며 걸립을 하였는데 그때 쌀1말을 내기도 하고 세 되를 내서 정성을 표하는 사람도 있다. 강제성은 아니었으며 남겨서 동네기물을 사고는 했다. 제당도 보수하고 동네기금을 마련한다.

시장은 1일전에 본다. 제물로 쓰는 것에는 고춧가루와 소금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유는 귀신들이 안 좋아해서 음식에 넣지 않는다고 한다. 떡 할 때에도 소금은 넣지는 않는다. 미역, 북어, 밤, 대추, 사과, 배, 백무리, 술, 밥, 돼지머리를 놓는데 술은 청주로 사용한다. 예전에는 담근 술 중에서 제일 먼저 거른 술을 사용했으나 20년 전부터 구입하여 사용한다. 아랫당은 나무이기 때문에 돼지머리를 놓지 않고, 윗당은 산신이 호랑이라 고기를 좋아해서 돼지머리를 놓는다. 산신령(호랑이)에게는 돼지머리를 생것을 올린다. 제물은 웃당과 아랫당을 따로 준비하고 장도 따로 본다.

제물 준비는 화주가 하는데, 밥과 탕은 산에 올라가서 했지만 지금은 편의를 위해서 화주집에서 직접 해서 가지고 올라간다. 제물은 웃당과 아랫당을 따로 준비하고 서로 섞지 않는다. 제물을 가지고 올라갈 때에도 웃당 제관은 웃당 제물만 가지고 가고 아랫당 축관은 아랫당 제물만 가지고 올라간다.

제의는 6~7시경에 시작하는데, 미리 화주가 올라가서 불을 켜 놓고 제관이 올라오면 제의를 시작한다. 축관은 웃당 축관이 먼저 올라가고 아랫당 축관이 아랫당 제물을 가지고 올라와서 아랫당에 제물을 두고 웃당으로 올라온다. 웃당에서는 축관이 제의를 올리는데, 아랫당 제관과 화주는 절을 하지 않는다. 술을 올리고 축을 읽고 나면 마을 소지와 각 집안의 소지를 모두 올리는데, 소지를 올릴 때 아랫당 축관과 화주가 함께 올린다. 웃당 제의가 끝나면 제물을 그대로 두고 아랫당으로 내려와서 아랫당 제의를 돕는다. 웃당은 마을을 위한 제의이고, 아랫당에서는 아랫당 축관을 위한 제의이기 때문에 소지를 따로 올리지는 않는다.

모든 제의가 끝나면 제물을 챙겨서 내려오고 다음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음복을 한다.

축문은 웃제당 축문이 있는데, 본래 한문으로 작성되어 있었던 것을 91년도에 한글로 음을 달아 읽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축문은 작년에 쓴 축문을 보고 쓰고 올해에 쓴 축문은 내년에 보고 쓰기 위해서 제당에 남겨두고 작년에 썼던 축문을 태운다.

소지는 웃제당 산제 때 올리는데, 대동소지를 올린 후에 각 집안의 소지를 올린다. 결산은 제의를 지낸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결산을 한다.

〈축문 내용〉

維歲次 正月 朔十五日 幼學 敢昭告于 山神之靈 天作石峰 村人是依 惟嶽有神

禍福是主 敢望成德 且異來慶 各有父母 壽考且康 我有子女 福祿有新 同我四隣

室家陳陳 今茲良辰 齊誠處禱 各有所願

神其遂之 人旺物豊 灾去祥來 疫厲勿入 豹虎遠适 同我民庶 叢歲是安 敢用次米弊

恭伸明薦

尚饗

③ 금기와 기타사항

밤 10시나 11시에 산에 올라가서 제를 지내는데 절대 15일을 넘기지는 않는다. 대보름 전에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이다. 마을사람들이 같이 올라가서 지내기도 하는데 피부병이나 부정한 일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구경을 갈 수 있다. 그러나 여자는 구경도 할 수 없다.

산짐승들이 사람을 물어가고 이상한 병, 재해나 수해를 막아달라고, 제를 지내지 않은 적은 없으나 예부터 지냈던 제이니깐 간소하게라도 꼭 지낸다. 돼지도 잡고 했으나 지금은 간소하게 지낸다. 사람 수도 적고, 제물 만들기도 힘들고 제물을 차리고 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간소하게 지내게 된 이유이다.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호랑이가 내려와서 개도 잡아가고 아이들도 물어가고 한다. 제보자도 10살까지 호랑이를 보았다고 한다.

(2) 청남면 청소리의 산신제와 하산제

① 제례 공간의 형태

청남면 청소리 산신당은 마을 앞산 중턱에 위치하며, 내부에는 제기(祭器)를 보관한다. 하산제는 산제당에서 조금 내려온 곳에 있는 바위에서 지낸다.

② 제의 형식과 절차

청남면 청소리에서는 10월 7일(실제 제의 시작 시간은 6일 밤), 하산제는 산신제가 끝나고 10월 7일 새벽에 지낸다. 마을에서 초상나면 날을 옮겨서 지낸다. 이러한 제의를 산제 또는 상산제, 하산제라고 부른다.

분명한 역사는 없지만 중종 때쯤부터 했다고 얘기한다. 마을마다 있던 산제당이 없어지고 있지만 이 동네는 조상들이 해오던 덕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거르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 신령님 덕을 본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안 지낼 수가 없다고 한다. 산제를 지낸 뒤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아무개네 개가 죽었다, 닭이 죽었다, 뭐 잡았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유사들이 제사를 잘못 지냈다고 생각한다.

산신제는 석봉산신을 모시며, 하산제는 거리에 운거하고 있는 귀신들을 위하는 것이다.

음력 9월 그믐날 저녁에 제관, 당주(음식 만드는 사람), 축관을 뽑는다. 생년월일, 부정을 가려서 당주를 뽑는데, 현재 동네에서 한문을 가르치던 김만영 할아버지가 정해준다.

예전에 공리 조합(계와 비슷한 것)을 구성해서 그 돈으로 산제답이라고 하는 논이 서 마지기가 있었다. 제사

를 지낼 때 벼가 좀 덜 익었어도 제답에서 벼를 베어서 조라술, 떡, 밥을 만들었다. 지금은 경지정리해서 다 없어졌다. 정월 걸립은 없었다. 산제에 드는 비용은 예전에는 쌀 열 댓 말 값 가지고 했는데, 물가가 올라서 쌀 두 가마 값 정도가 들어간다.

제관, 당주, 장화(마을 돈 관리자)가 사온다. 여자들은 가지 않는다. 예전에는 미당장에 많이 갔지만 지금은 정산장으로 간다. 물건을 살 때는 값를 깎지 않고 산다. 옛날에는 망태기에 넣어서 왔지만 지금은 차로 운반해 온다.

제물로는 삼색실과, 술, 돼지머리, 시루떡, 명태포 등 일반적인 제사 음식이 쓰인다. 제상에 올리는 밥을 짓는 것을 '녹이미 짓는다' 또는 '밥 짓는다'라고 한다. 녹이미는 옹기로 된 투과리처럼 생긴 밥솥으로 산제당 주변에 있는 참나무와 샘물을 써서 밥을 짓는다.

고기는 원래 장닭(수탉)을 썼는데, 산제에 닭 올리는 것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 20년 전부터 돼지머리 쓰고 있다. 장에서 사온다. '조라'라고 하며, 당주가 10월 초사흗날부터 술을 만든다. 술 만드는 기간이 짧아서 술이 제대로 안 되어서 조금 단 맛이 난다고

한다. 떡은 산제 때는 작은 시루, 하산제 때는 큰 시루에 떡을 해 올린다. 제물은 예전에는 닭 머리를 비틀어서 놓고, 떡이나 다른 제물들을 조금씩 바위에다가 늘어놓았다. 그 떡을 먹으면 재수 있다고 한다. 음복은 하산제까지 모두 끝나면 동네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 산신제와 하산제 제물은 따로 준비하며, 떡 시루 크기만 다르다. 제기(祭器)는 원래 해마다 사서 했는데(제관이 씀), 3년 전쯤부터 산제당에 보관해서 쓴다.

山祭祝

維歲次干支其月干支朔其日干幼學敢昭告于石峰山靈之前曰仗以一洞安頓維岳□鎭不往泰□□消吉長江南瘴癘散盡雲外海東福□均降村內三農豊登六畜蕃殖人家木□比子□□□士可登科賈可得利村有輻湊之慶市無橫□之危日吉辰良仗惟靈下□□以酒果敬伸□□尙□

일반적인 유교식 제의와 같다. 제관, 축관, 당주(유사) 3명만 올라가고, 마을 사람은 올라가지 않고 집에서 기다린다. 특이한 점은 축을 읽는 방식인데, 예전에는 축을 21번 읽었다고 한다. 그러나 제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어서 20여 년 전부터 7번으로 줄여서 읽는

다. 마을 사람들 안녕을 빌고, 가축 번창하고 농사 잘 짓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소지는 호당 1장씩 축관이 올린다. 소지 종이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백지 소지를 올린다. 소지 올리는 제관이 자기가 아는 대로 마을 사람들의 상황을 말하면서 빌어준다(아픈 사람은 낫게 해 달라, 객지에 있는 사람은 재수 대통하라…).

음복이 끝나면 마을 사람이 다 같이 먹고 난 자리에서 장화가 결산을 본다.

③ 금기와 기타사항

제관, 당주, 축관은 초사흗날부터는 부정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험한 곳이나 상갓집 같은 곳에 가지 못하고, 개를 잡는 일 같은 부정한 일을 하지 않고 몸을 단정히 해야 된다. 마을 사람들은 비린 것(생선이나 새우젓 등)을 먹지 않고 모두 조심 한다. 예전처럼 금기가 강하지는 않지만 지키는 편이다.

예전에는 제관 집, 동구 밖에 금줄을 쳤었다. 지금은 제관, 축관, 당주 집 문에 흰 종이를 껴서 10월 3일에 쳐 놓는다. 황토는 제관 집 문 앞에 좌우 3덩어리 씩 6덩어리를 뿌린다.

4. 청양의 사당



1) 모덕사

(1) 건립연혁

목면 송암리 171번지에 위치하였다. 1914년에 창건된 모덕사(募德祠)는 조선시대말 대학자이며 의병대장인 면암 최익현 선생의 항일투쟁과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해 창건되었다. 고종황제의 밀지 가운데 "간우공극 모경숙덕 艱虞孔棘 慕卿宿德" 나라 일이 어지러움에 경의 높은 덕을 사모하노라의 문구 중 모(慕)자, 덕(德)자를 취하여 현액하였다.

선생의 호는 면암, 본관은 경주이고 경기도 포천 출신이다. 1855년 문과 급제 후 대원군의 시책을 비판하여 제주도에 유배되는 등, 크고 작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상소하여 여러 차례 구금되었다. 1900년에 포천에서 이곳으로 옮겨온 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전라도 태인·순창에서 의병을 모집하였다. 왜군이 체포되어 대마도에서 단식하던 중 74세에 순절하였다. 묘소가 처음에는 논산시 노성에 있었으나, 예산군 광시로 옮겼다. 사우 건립 당시 일제의 탄압으로 문중의 사당으로 가장하여 건립하였다. 그 후 1997년에 유물 전시관, 1985년 장서각인 춘추각, 1989년 영당을 지었다.



〈그림 60〉 모덕사 사당 전경

(2) 제의 공간 구성

모덕사 사우를 비롯하여 면암 최익현 선생의 영정이 봉인되어 있는 성충사 그의 고택인 중화당, 그리고 유물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의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덕사 입구에 들어서면 입구의 바로 우측에는 관리사무소로 사용되는 건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뒤편으로 면암 최익현 선생의 고택이 위치하고 있다. 고택의 좌측 뒤편에 모덕사 사우가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 좌측 편으로 영정이 봉인되어 있는 성충사가 위치해 있다.



〈그림 61〉 중화당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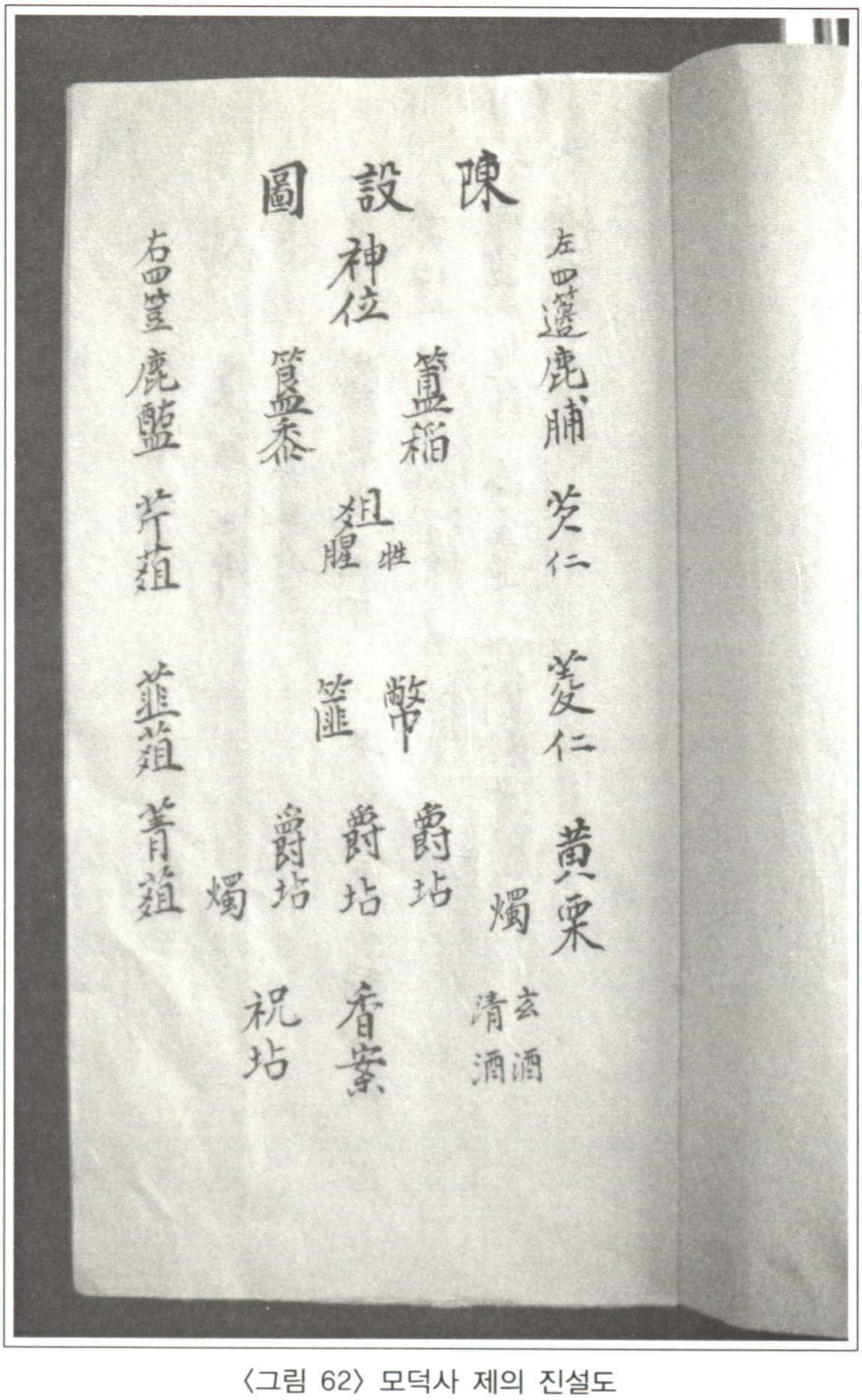
(3) 제의내용

제의는 양력 4월 13일 청양군 주관으로 성충사에서 춘향제를 지내고, 음력 9월 16일 모덕회 주관으로 추향제를 지낸다. 춘향제의 제관은 군수가 맡아서 하며, 제의 진행은 모임의 행정을 담당하는 도유사의 총괄 하에 제의가 이루어진다. 추향제는 모덕회에서 주관하며 음력 9월 16일에 역시 도유사의 총괄 하에 이루어지며 제관은 도유사가 직접 임명한다.

제물은 주로 돼지머리, 통밤, 쌀, 탕 등을 사용한다.

좌포우혜, 어동육서, 두동미서, 홍동백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의는 보통 오전 11시에 시작되어 약 40분간 제의가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시제의 경우 제의의 절차는 조상에게 음식을 드시라고 청하는 강신을 시작으로 신위에 인사하는 참신, 제주가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초헌을 거쳐 독축, 아헌, 종헌, 첨작, 삽시, 사신, 철상 마지막으로 음복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모덕사의 경우도 보통 이 절차를 따른다.



〈그림 62〉 모덕사 제의 진설도



〈그림 63〉 성충사 영당 내부

右四笠			神位			左四籩
鹿醢		簋黍 (수수)		簠稻 (쌀)		鹿脯 (쇠고기육포)
芹菹 (미나리)			菹 醓牲			芡仁(은행)
韭菹 (부추)			篚幣			菱仁(호두)
菁菹 (절인무)	燭	爵坫	爵坫	爵坫	燭	黃栗
		祝坫	香案		淸酒 玄酒	

〈표 1〉 모덕사 진설도

2) 영모재

(1) 건립연혁

효원(效元) 선생은 자는 성백(誠伯), 호는 장포(長浦)로 우윤(右尹) 이관선생의 아들이다. 선조 17년(1584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병조정랑·사서·승지·한성부 좌윤 등을 지내고, 선조 36년(1603년) 이조참판으로 성절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1998년 12월 29일 충청남도유형문화재 제154호로 지정되었다. 인조반정 때 계해정사공신(癸亥靖社功臣) 2등으로 책록된 함릉부원군 이해(李瀣)를 중심으로 한 함평이씨(咸平李氏) 문중 사람들이 건립하였다. 함평세가(咸平世家)에 따르면, 1668년 건립하고 1882년에 중수하였다.

(2) 제의 공간 구성

'ㄱ'자 모양의 일반 가옥의 형태(재실 4칸, 협문 1칸, 곳간 2칸, 행랑채 9칸, 마구간 2간, 고간 2간, 재수광 2간)이며 영모재 바로 뒤편으로 배향인물들을 모시는 묘가 있으며 좌측편으로는 공적비가 있다. 영모재 주변에는 가옥들이 밀집해 있고, 영모재 역시 몇 년 전까지는 사람이 살았었지만 현재는 살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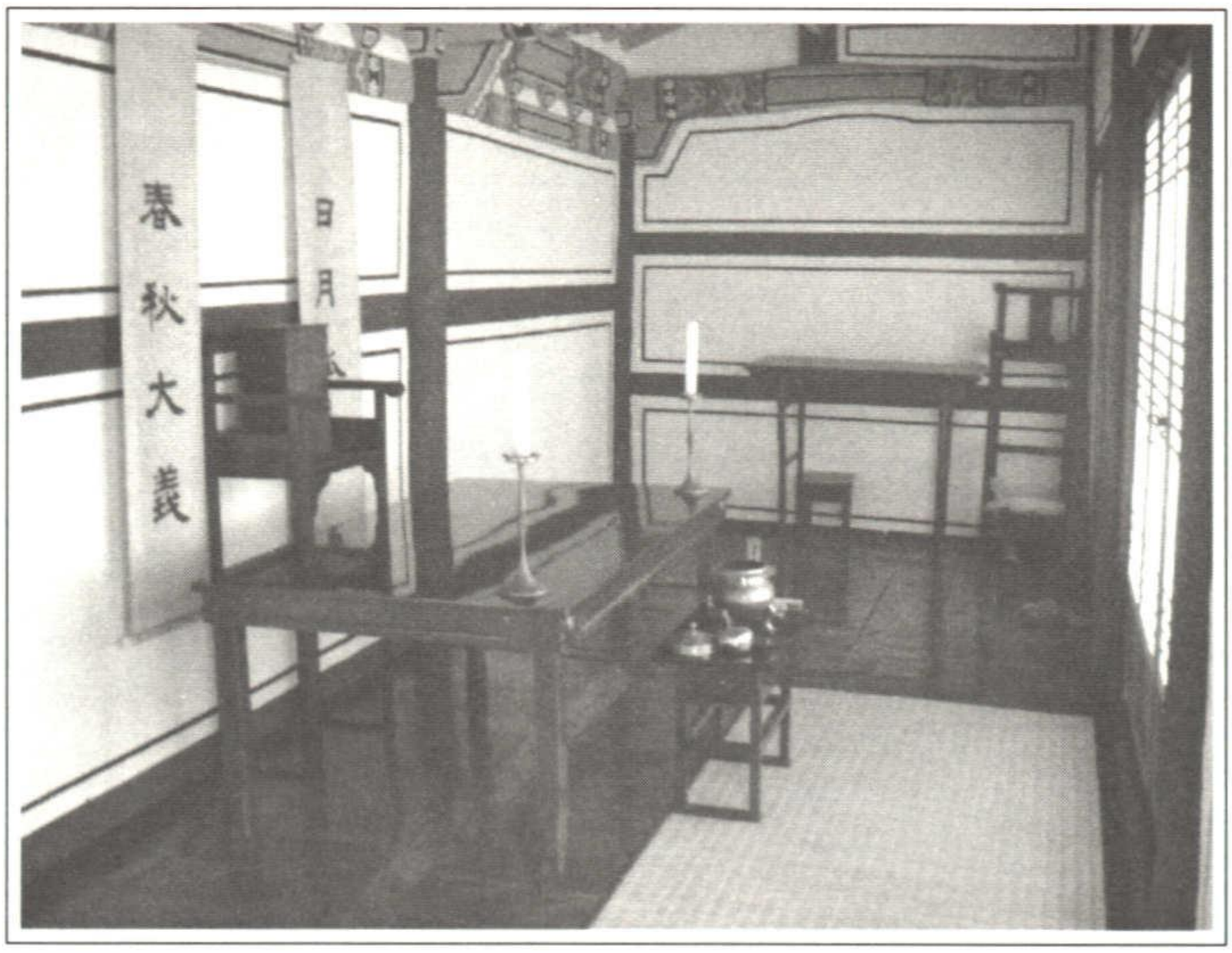


〈그림 64〉 영모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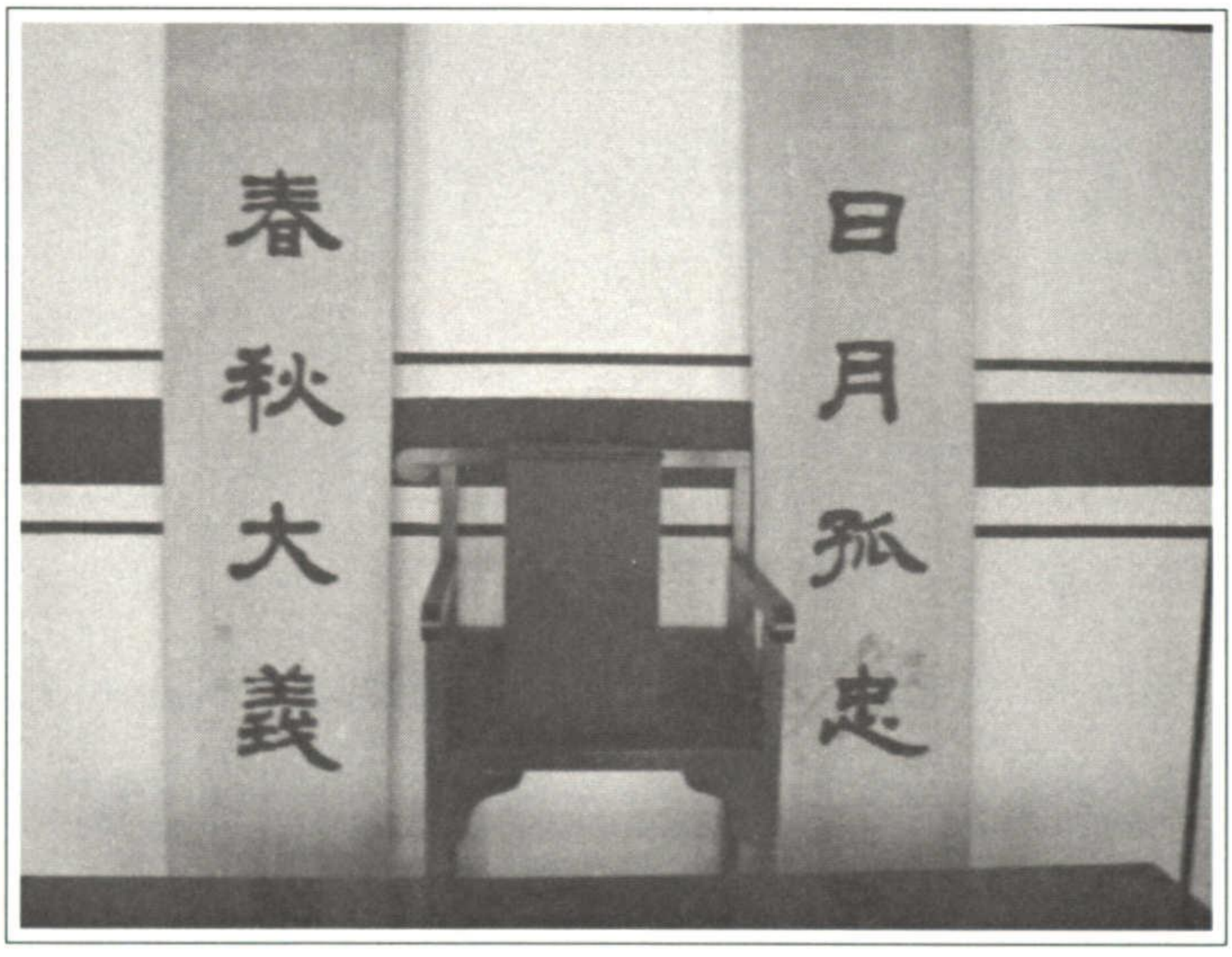
(3) 제의내용

제의는 보통 음력 10월 초이레에 지낸다. 제관의 경우 직계종손 혹은 항렬이 제일 높은 사람이 초헌관을 맡으며 아헌, 종헌관 역시 항렬로 정해진다. 제물로 사용하는 것은 고사리, 도라지, 무나물, 생채, 가납(돼지생고기), 육회종류(보통 소고기), 초장, 청장, 고기전, 소전(두부, 누름적), 어전, 대추, 밤, 감, 배, 기타과일, 조과(약과)를 주로 사용한다. 좌포우혜, 어동육서, 두동미서, 홍동백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65〉 영모재 내부



〈그림 66〉 영모재 내부2

제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약 1시간 가량 소요된다. 제의 순서는 제의를 지내기에 앞서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정저를 시작으로 축문을 읽는 독축, 초헌, 아헌, 첨작, 삽시, 소자, 수시저, 부반계, 사신재배 마지막으로 음복의 순으로 이어진다.

3) 명인재

(1) 건립연혁

명인재는 정산면 해남리 모리에 위치해 있다. 정산면 해남리 모곡동은 달성 서씨의 집성촌이며 지금으로부터 약 400~500년 전에 13대조가 처음 이곳에 들어와 마을을 세웠다. 명인이라는 이름은 시조의 호이다. 명인재는 20년 전부터 건립 제의가 있었으나, 자금 부족으로 미뤄지다 최근 2003년에 사당을 짓게 되었다.

(2) 제의 공간 구성

사당은 재실 2칸 정도의 크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당 이외의 건물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당주변에는 일반 가옥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사당 내부에는 10대조부터 6대조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일반적으로 종손 집

에서 4대봉사를 하기 때문에 5대조부터의 위패는 사당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3) 제의내용

제의는 매년 10월 초닷새에 지낸다. 제관은 직계종손이 맡아서 보며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의 순서는 항렬에 의해서 결정된다. 시향제를 지낼 때 순서는 13대조 조상의 제사를 따로 지내고 그 밑의 조상들의 제사는 한꺼번에 지낸다. '명인각'이라는 사당이 따로 있어 13대조 조상의 제사는 따로 지내기도 한다. 제의의 절차는 정저를 시작으로 독축, 초헌, 아헌, 첨작, 삽시, 소자, 수시저, 부반계, 사신재배 마지막으로 음복의 순으로 이어진다.

4) 현모재

(1) 건립연혁

청양군 운곡면 후덕리 542번지에 위치해 있다. 현모재의 배향인물인 명옥진은 중국 사람으로 고려말 중국에서 '촉'이란 나라를 세웠던 인물이다. 명옥진의 아들이 고려말 공민왕 때 중국에서 한반도로 망명와서 임

진왜란 때 피난을 가게 되면서 현재 청양 일대에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2) 제의 공간 구성

재실 2칸 정도의 크기로 이루어진 현모재의 주변에는 사방으로 벽이 둘러 싸여 있다. 사당의 내부에는 배향 인물인 명옥진의 영정이 걸려있으며 위패를 모시는 상이 위치해 있다. 위패는 시조인 명옥진을 비롯한 23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우측에는 사당 건립과 관련한 기부자 목록이 위치해 있다. 사당의 주변에는 가옥들이 위치해 있으며 사당은 마을에서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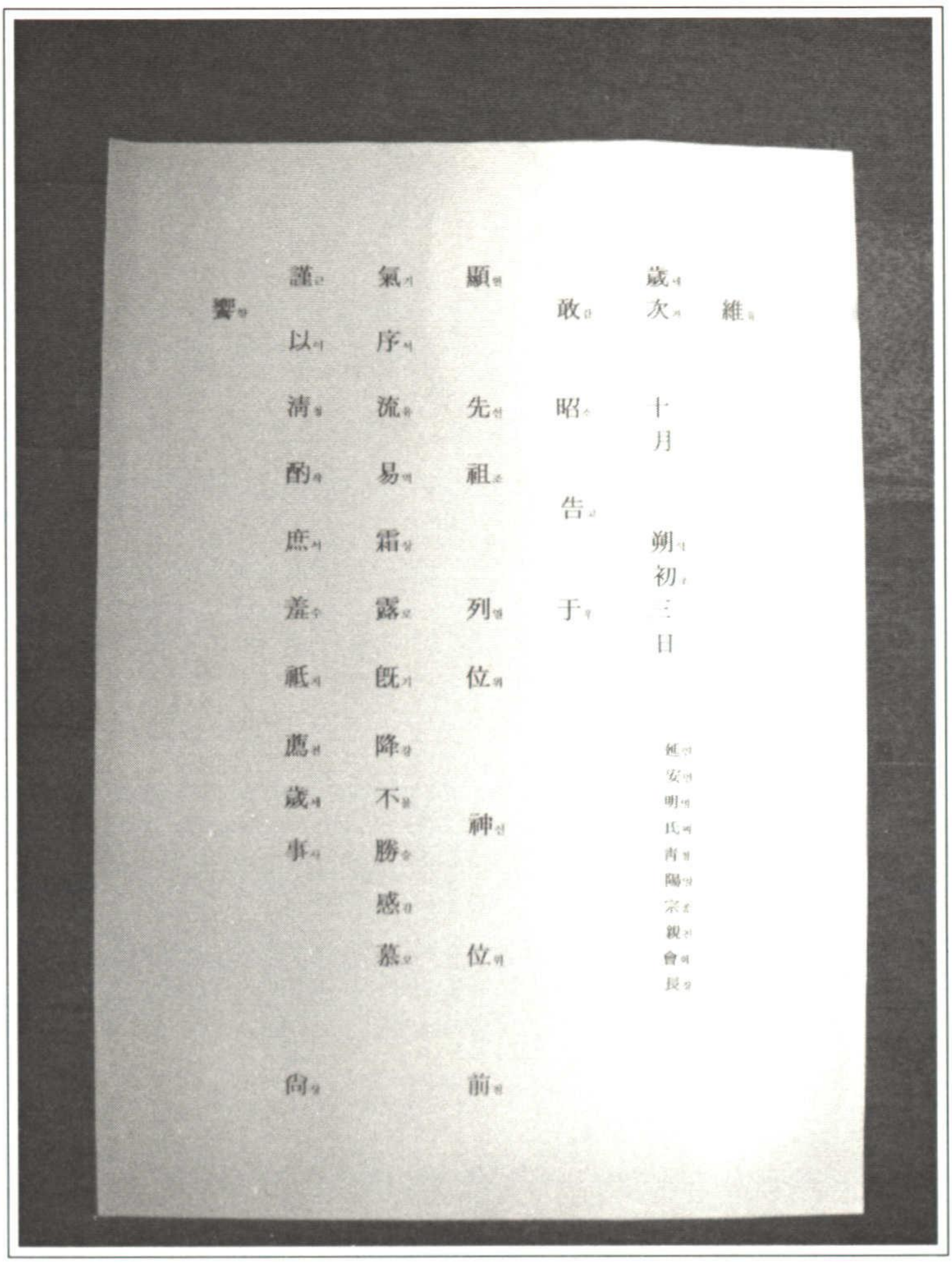
〈그림 67〉 명인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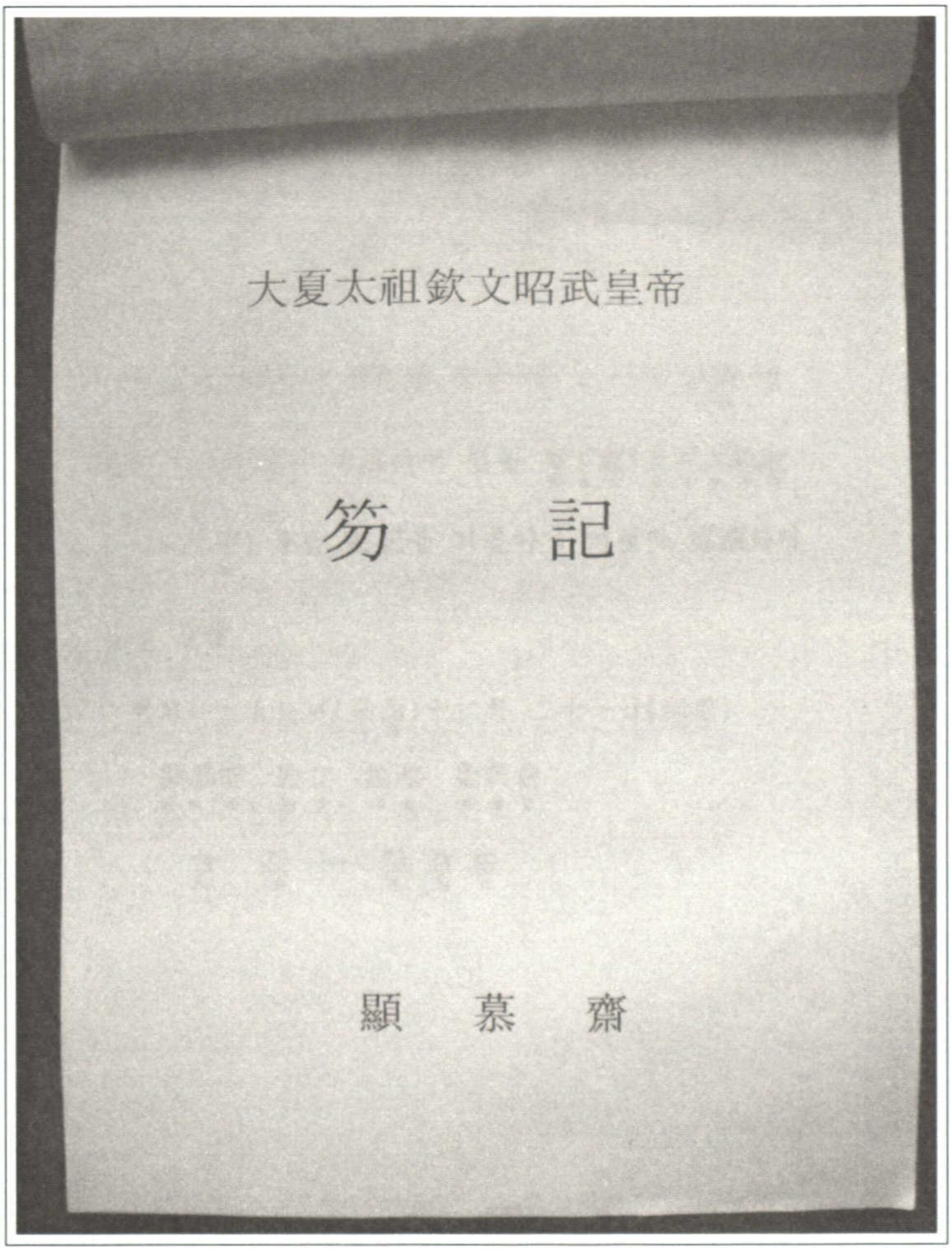
〈그림 68〉 명인재 2

(3) 제의내용

음력 동짓달 초나흘에 매년 회의를 갖고 20여명 정도가 참석을 한다. 이 때의 회의에서 다음 제를 논의하며 결산보고를 한다. 제를 지내는 시기에 대해서는 문중 사람들에게 별도의 연락을 하지는 않는다. 매년 음력 10월 3일에 제를 지내며, 제관은 각 파의 통합 회장이 초헌관을 맡고, 장파 회장이 아헌관, 중파 회장이 종헌관, 말파 회장이 첨자를 맡는다. 제물은 주로 돼지머리, 통밤, 쌀, 탕 등을 사용한다. 좌포우혜, 어동육서, 두동미서, 홍동백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일(밤, 대추, 배, 사과), 어적[생선(홍어, 상어, 낙지), 육적(소고기), 두부부침, 간장, 떡, 엿, 나물(청색, 백색, 고사리), 육탕(소고기), 어탕(북어), 소탕(두부), 포(상어, 민어)를 올리며 술은 맑은 술로 약주라고 부른다 이는 보통 구기자 술을 사용한다. 제의에는 보통 50~60명 가량 모이며, 낮 12시에 시작해서 한 시간 반 정도 진행된다. 제의의 절차는 정저를 시작으로 독축, 초헌, 아헌, 첨작, 삽시, 소자, 수시저, 부반계, 사신재배 마지막으로 음복의 순으로 이어진다.


謹 氣 顯 歲
敢 次 維
以 序
清 流 先 昭 十
月
酌 易 祖
告
庶 霜 朔
初
羞 露 列 于 二
日
祇 旣 位
薦 降
歲 不 神
事 勝
感
慕 位
尙 前
延
安
明
氏
靑
陽
宗
親
會
長

〈그림 69〉 현모재 축문



〈그림 70〉 현모재 홀기

5) 유의각

(1) 건립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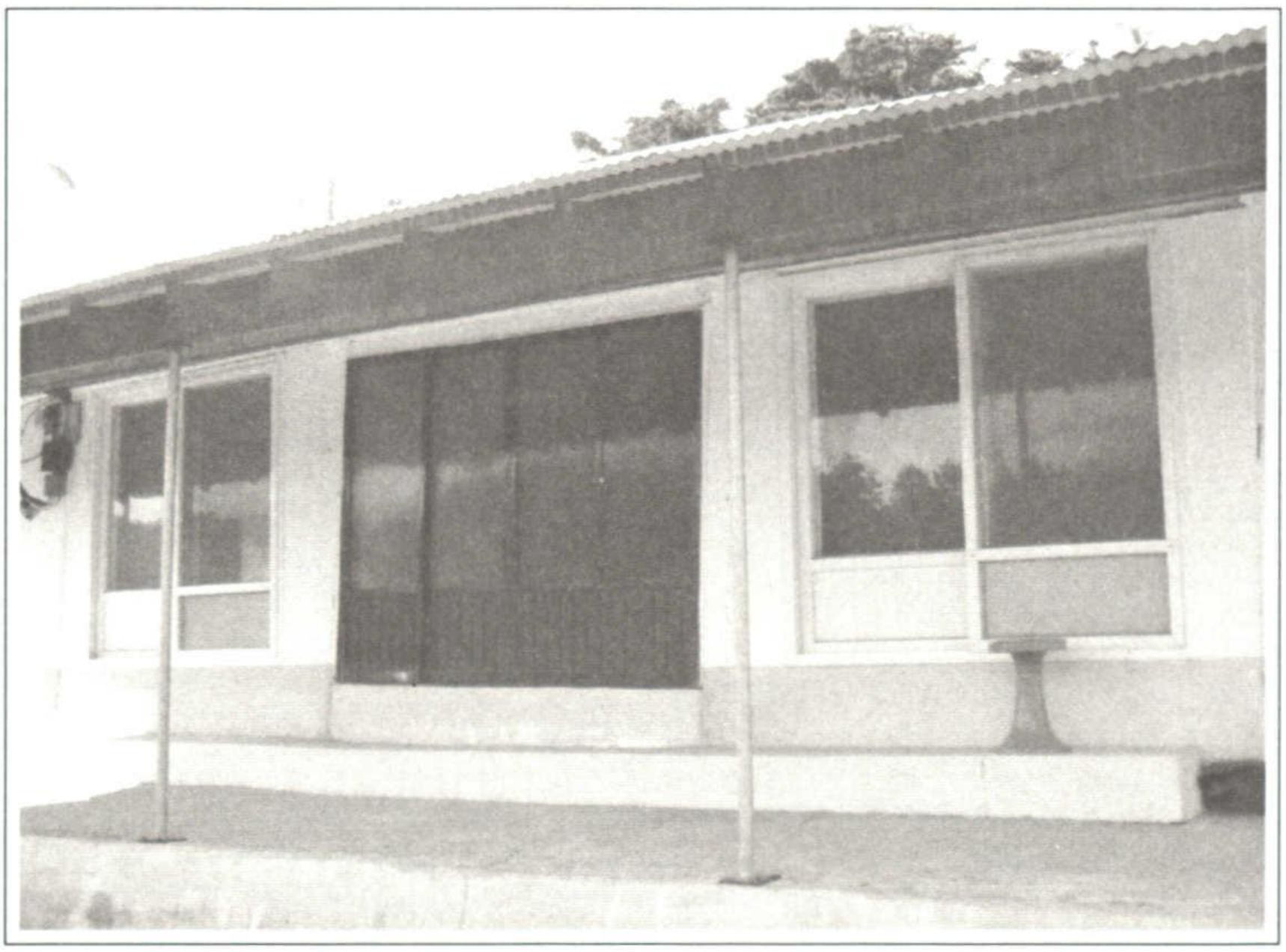
청양군 운곡면 위라리에 위치한 유의각은 조선 인조대의 무관 박신용 장군에게 조정에서 내려주었다고 전하는 유의를 보관한 곳으로, 1885년(고종 22년)에 후손들이 건립하였다. 장군의 호는 택수, 본관은 죽산이고, 황해도 백천 출신으로 세살 때부터 청양의 외가에서 성장하였다. 1618년(광해군 10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1627년(인조 5년) 정묘호란 때 선전관으로 의주에서 후금과 싸우다가 순절하였다. 이에 공훈을 표상하고자 조정에서 관복을 하사하였는데 이를 유의라 한다. 유의각에 봉안된 유의는 단령·청천익·홍천익·전복 등 4점이다. 이러한 사실을 새긴 비를 세웠는데, 비문은 이설이 지었다.

(2) 제의 공간 구성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이며 주위에 담장을 둘렀고, 출입문은 1731년(영조 7년)에 건립한 충신 정려문으로 3칸의 솟을대문이다.



〈그림 71〉 유의각 정면



〈그림 72〉 유의각 관리사무소

(3) 제의내용

기존의 제의는 일 년에 두 번 춘향제와 추향제로 나누어 지냈었으나, 편의상 2003년부터 춘향제만 음력 2월 중정일에 지내고 있다. 춘향제 외애 죽산 박씨 문중에서 음력 10월에 시제를 지낸다. 초헌관은 군수가 맡아서 보며 종친에서 아헌관을 일임한다. 종헌은 청양 유림의 인물 중 한 명이 맡아서 본다. 제의의 절차는 정저를 시작으로 독축, 초헌, 아헌, 첨작, 삽시, 소자, 수시저, 부반계, 사신재배 마지막으로 음복의 순으로 이어진다. 조율이시라 하여 대추, 밤, 배, 감등을 올리며, 복숭아는 쓰지 않는다. 좌포우혜라 하여 왼쪽 끝에 포를 쓰고, 우측 끝에 혜(식혜)를 쓴다. 적은 육적, 어적, 소적을 사용한다. 저는 생무, 미나리, 대나무잎, 골파 등을 사용하며, 육포는 녹포(사슴)를 올려야 하지만 현재 한우고기를 말려서 올리고 있다, 뫼(기장대신 조, 백미), 껍질 벗기지 않은 북어포 20마리, 고기(돼지고기적), 조기, 회(소간), 과일(대추, 밤, 감, 호두, 배, 사과), 탕이나 떡 등은 올리지 않는다.

奉位

燭　　簋　　簋　　燭

葙　　葙　　牲　　果　　果

葙　　葙　　果　　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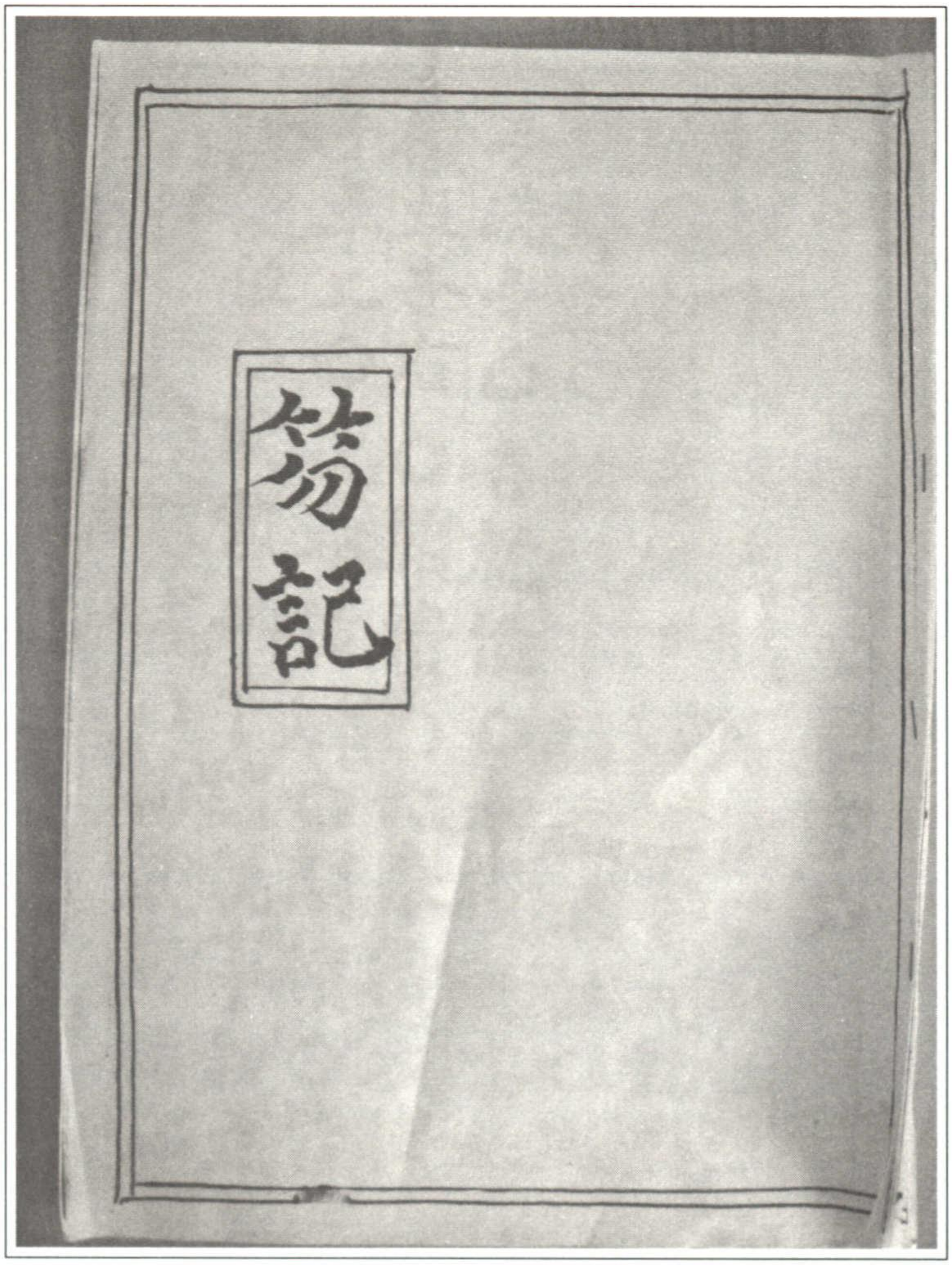
魚醢　　鹿醢　　魚脯　　鹿脯

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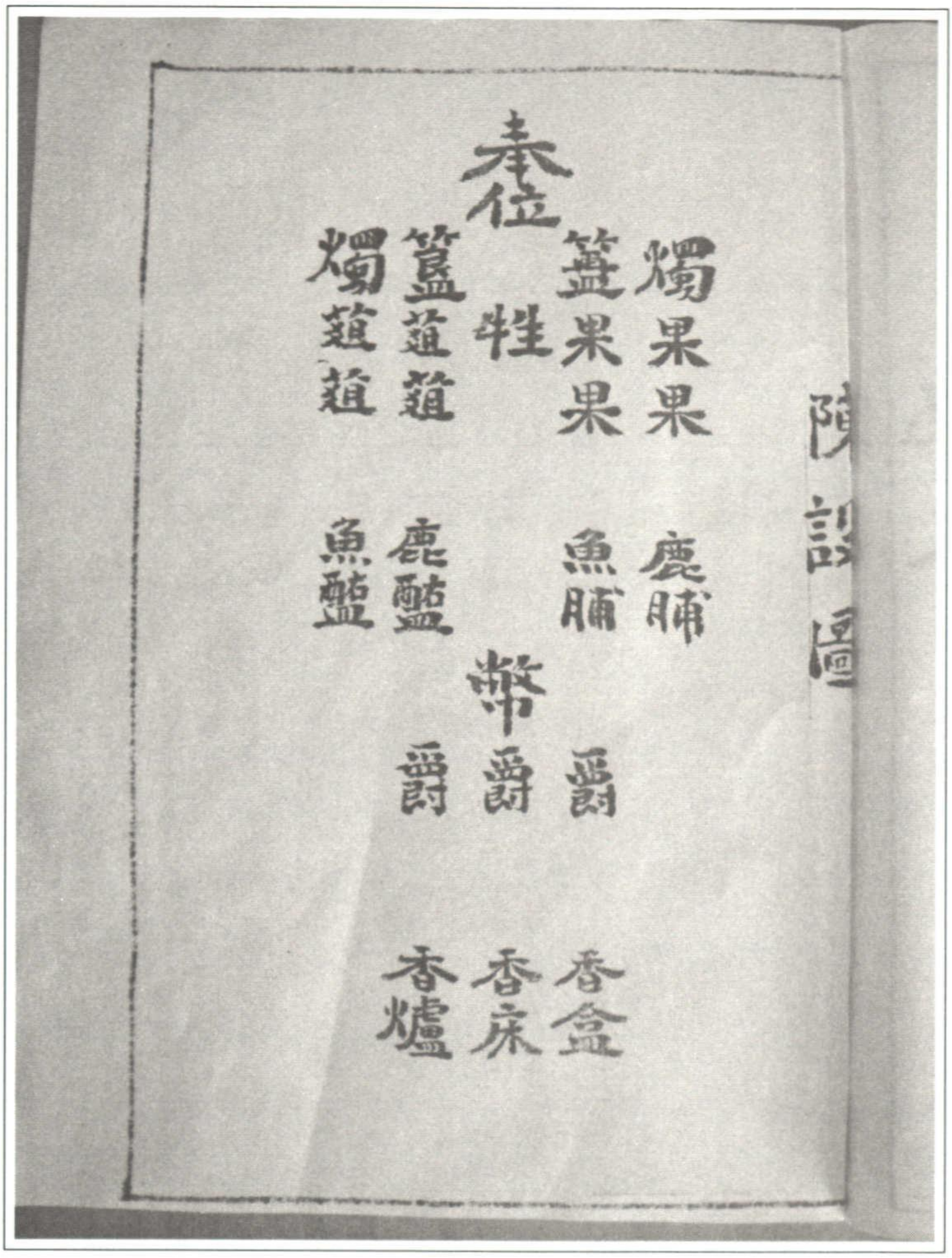
爵　　爵　　爵

香爐　　香床　　香盒

〈표 2〉 유의각 진설도



〈그림 73〉 유의각 홀기



〈그림 74〉 유의각 진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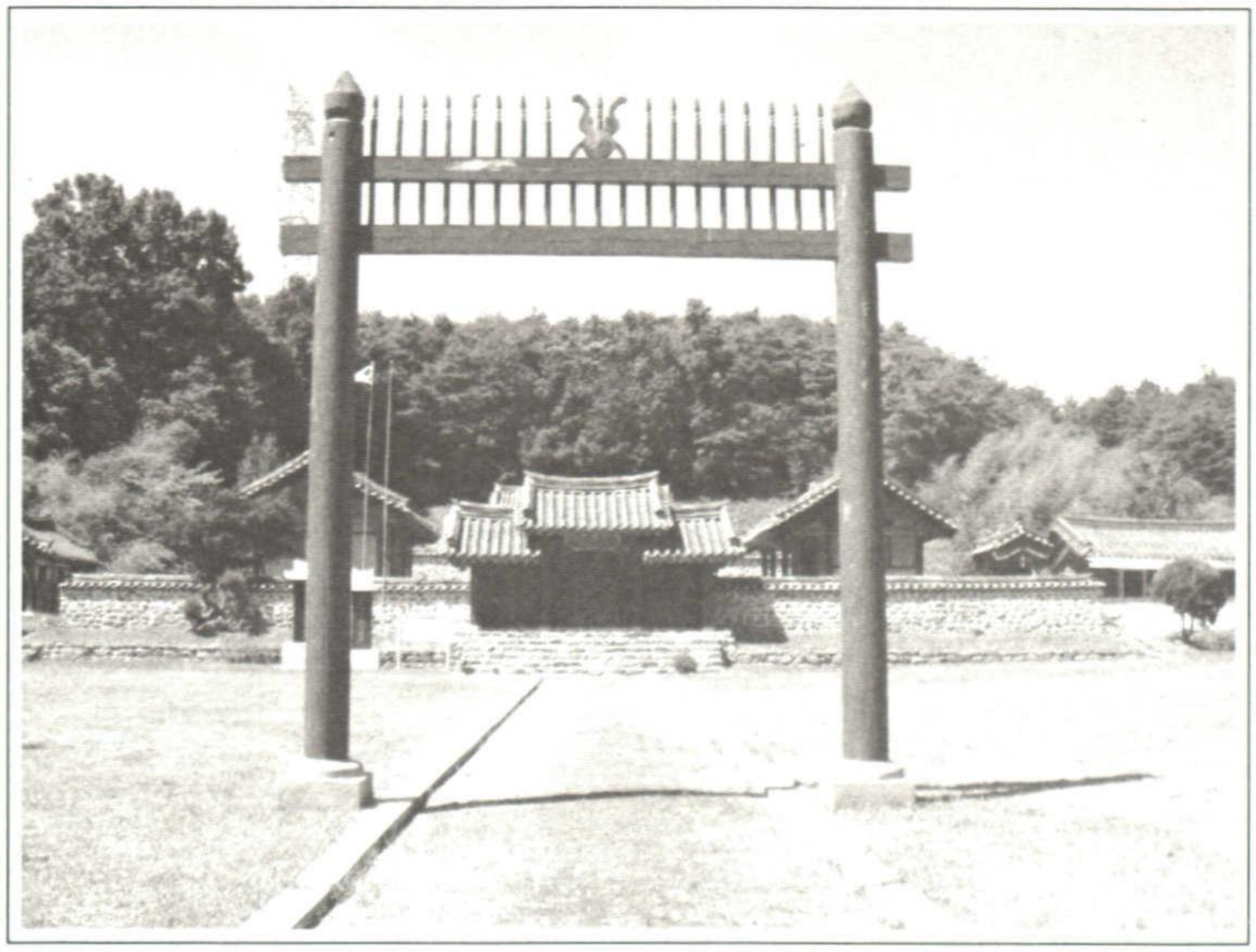
6) 상의사

(1) 건립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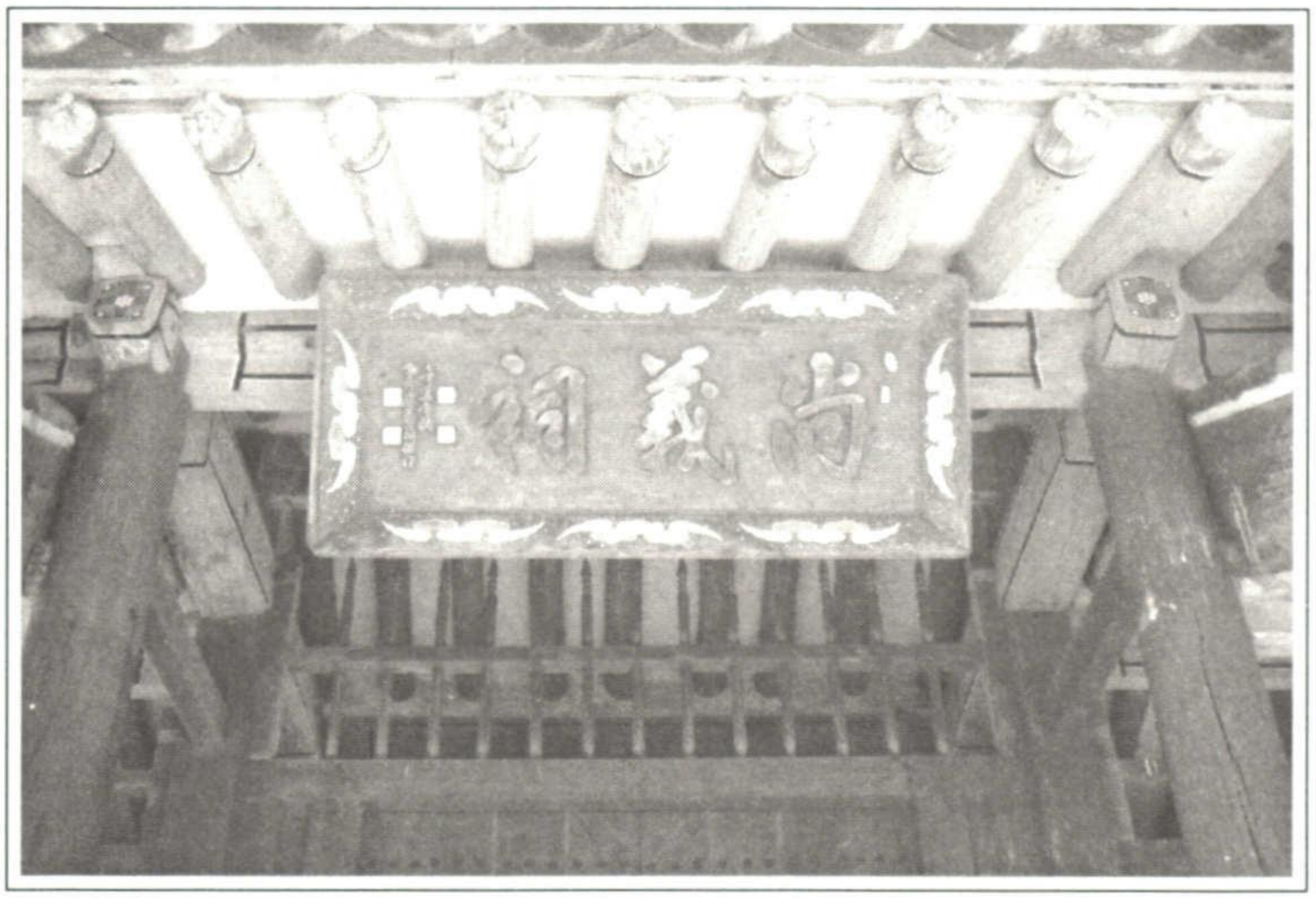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146번지에 위치한 상의사의 배향인물은 채제공(19세), 채유후(15세), 채팽윤(17세)이다. 채제공은 조선의 문신으로 자는 백규, 호는 번암, 본관은 평강이다. 영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승무원 부정자를 거쳐 교리 등을 지냈으며 그 후 이조참판·호조참판을 거쳐, 1771년 동지정사로 청에 다녀왔다. 정조 초에 형조판서가 되어 정조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여러 차례 적발해 처벌 하였으며, 후에 홍국영과 뜻이 맞지 않아 벼슬에서 물러났다. 1780년 규장각 제학이 되어 서명응 등과 함께 『국조보감』을 편찬하였다. 이어 예조판서·지중추부사 등을 거쳐 좌의정에까지 올랐다. 1989년 영당 및 내 외삼문을 건립하였으며 이 후 1993년 제실 및 장판각을 건립하였다.

(2) 제의 공간 구성

사당에 들어서기 이전에 홍살문이 위치하고 있으며 사당을 둘러싼 벽 안쪽에는 위패를 모셔놓은 사당 이외의 건물들이 있다. 전체적인 규모가 다른 사당들보다



〈그림 75〉 상의사 전경



〈그림 76〉 상의사 현판

약간 넓은 편이다. 위패를 모셔놓은 건물을 중심으로 좌측 우측에 건물이 하나씩 위치하고 있으며 하나는 제의관련 도구들을 보관하는 창고형식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전에 관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패가 모셔져 있는 건물은 재실 3칸 정도 크기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제의내용

제의는 매년 양력 10월 마지막 일요일에 지낸다. 제를 주관하는 곳은 종친회에서 주로 주도하며 향교에서 지내는 제의 절차를 기준으로 제를 지낸다. 초헌관은 보통 종친회 회장이 맡아서 보며, 아헌관과 종헌관의 경우는 제의 당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항렬순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의 음식의 특징은 익힌 음식이 아닌 모든 음식을 날것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제수 음식이 날 것인 이유는 정확하지 않다. 또한 제수는 제기가 아닌 오목한 놋그릇에 담으며 절대 대추는 사용하지 않고 생밤, 은행 호두, 좁쌀, 생쌀, 돼지머리, 소고기적, 천엽, 조기 등을 올린다고 한다.

제를 지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제의 절차는 정저를 시작으로 독축, 초헌, 아헌, 첨작, 삽시, 소자, 수시저, 부반계, 사신재배 마지막으로 음복의 순으로 이어진다.

7) 청대사

(1) 건립연혁

청양군 화성면 신정리에 위치한 청대사는 순흥안씨 문중 출신 네 명의 애국지사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건립했다. 안창식 선생은 두 아들 병찬·병림과 함께 1895년 을미의병에 투신했다. 선생은 1895년 여름부터 비밀히 거의할 뜻을 두고서 광호 등지로 가서 저자 사람을 앞세워 먼저 일어날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고, 홍주의진의 선구자들인 박창로·이봉학·이세영 등과 긴밀히 연락을 취했다. 아들 병찬이 1895년 12월 1일 홍주성에 입성할 계획을 세우고 찾아오자 채광묵과 함께 모집해 놓은 민병 180명을 내놓아 홍주의병을 거의하도록 도왔으며, 의진이 패하자 잡히게 되었다. 안병찬 선생은 1895년 을미의병을 주도하여 3년형을 선고받고 고종의 특지로 석방되었으며, 1906년 민종식의 '병오홍주의병'의 참모로 활약하여 옥고를 치른 후 1919년 '파리만국

강화회의'에 장서 서명 사건으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안병림 선생은 민종식의 병오홍주의병 당시 참모사 및 돌격장으로 활약하였으며, 안항식 선생은 1906년 4월 25일 '병오홍주의병' 당시 참모사로 활약하여 일제에게 체포 후 대마도로 후송 감금되었다가 4년만에 귀국했다. 청대사는 1994년에 건립되었다.

(2) 제의 공간 구성

청대사는 마을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당은 재실 3칸 정도의 크기이다. 사당 안에는 총 4개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안창식, 안병찬, 안병임, 안향식의 위패이다.

(3) 제의내용

매년 양력 4월 하순에 제를 지내며 정확한 날짜는 유림에서 결정하여 유동적이다. 초헌관과 아헌관은 청양군수 및 지역 유지가 맡아서 하며 종헌관은 향교의 정교가 맡는다. 제의의 절차 역시 유림에서 주도하여 진행된다.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정저를 시작으로 축문을 읽는 독축을 한 뒤 첫 잔을 조상에게 올리는 초헌 뒤에, 아헌, 첨작, 삽시, 소자, 수시저, 부반계, 사신재배

마지막으로 음복의 순으로 이어진다.



〈그림 77〉 청대사 전경

8) 율리사

(1) 건립연혁

청양군 남양면 흥산리에 위치한 율리사는 건립된지 약 20년 정도 되었다. 한훈(1892~1950) 선생은 1906년 민종식 의병진에 가담하여 홍주성 공방전에서 활약하였

다. 그 후 부여· 공주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친일군수인 직산 군수를 사살하고 만주로 망명하였다. 1913년에는 채기중·유창순 등과 같이 풍기에서 대한광복단을 조직하여 일본군을 습격하는 활동을 하였다. 1919년에는 만주 길림성에서 김동순 등과 함께 조선독립군정서에 가입하여 국내외로 군자금을 모금하는 활약을 하였다. 서울을 중심으로 조선독립군사령부라는 독립단의 조직을 준비하던 중 사이토 마코토 총독 등 일본 고관들을 암살하기 위해 결사대를 조직하였다. 이 때 김상옥 등의



〈그림 78〉 율리사 전경

암살단과 추진 합류하여 계획을 하던 중 체포되어 1919년 6월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8년 건국독립장을 추서하였고, 선생의 높은 뜻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청양군에서 1990년에 선생의 출생지에 사당과 사적비를 건립하였다.

(2) 제의 공간 구성

재실 2칸 정도의 크기로 이루어진 율리사의 주변에는 담이 둘러져 있다. 율리사 주변에는 가옥들이 밀집해 있지 않아 주변경관과 그 모습이 잘 어우러져 있다.

(3) 제의내용

제의는 매년 음력 10월 보름에 제를 지낸다. 제의를 지내는 날 아침에는 문중의 참여 인원 중 부정이 없는 사람 한 명이 산에 올라가 산신제를 먼저 지낸다. 그때 사용하는 제물은 포나 과일 등을 간단히 올린다. 산신제를 따로 지내는 이유는 산에 묘를 썼기 때문에 그 감사의 의미라고 한다. 제물의 경우 탕은 육탕, 어탕, 소탕을 사용하고 포는 명태포, 전, 늘임이를 사용한다. 적은 어적·육적·계적의 삼적을 올린다. 과일은 대추,

밤, 감, 배, 사과, 은행, 호두 등을 사용하며 과일을 제외한 모든 음식은 익힌 음식을 올린다. 제의 절차는 정저를 시작으로 강신잔을 올린 뒤, 독축, 초헌, 아헌, 첨작, 삽시, 소자, 수시저, 부반계, 사신재배 마지막으로 음복의 순으로 이어진다.

9) 두촌사

(1) 건립연혁

청양군 정산면 백곡리에 위치한 두촌사는 1979년 고장의 유림들이 두촌 임충신 사우 건립 추진회를 발족하여 사당을 세우고 청양군에서는 1980년도에 사당 앞에 삼문을 건립하였다. 두촌 임정식 선생은 항일의병 활동을 했다. 임진왜란 때 청양 정산에서 향병 백 명을 일으켜 중봉조헌 휘하에 들어가 청주전투에 참전하여 봉사로 7백의사와 함께 순절한 충신이다. 1688년 숙종은 그의 충성을 높이 찬양하여 고향인 정산면 백곡리 입구에 정려문을 세우게 했다. 또 그는 회인에 있는 후율사에 향배되어 있고, 금산 종용사에 위패가 모셔져 있다.

(2) 제의 공간 구성

사당에 들어서기전 좌측편에는 큰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위치해 있고 사당 문 안을 들어서면 재실 2칸정도 규모의 사당이 자리하고 있다. 두촌사 뒤편에는 산신을 모시는 산신당이 위치하고 있다. 산신당과 두촌사 사이에는 우물이 있다.

(3) 제의내용

매년 음력 8월 18일에 제의를 지내며, 제관은 초헌관을 시작으로 군수, 교육장, 경찰서장, 또는 유림 대표 순서로 맡는다. 제의 절차는 정저를 시작으로 독축, 초헌, 아헌, 첨작, 삽시, 소자, 수시저, 부반계, 사신재배 마지막으로 음복의 순으로 이어진다. 제의음식의 경우 조율이시, 좌포우혜, 홍동백서, 두동미서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준비된다.



〈그림 79〉 두촌사 건립 기념비

5. 청양의 단·당·사 고찰



1) 청양의 단, 당 고찰

청양의 동제 중 제단이나 제당의 형태가 있는 곳은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 터만 돋아 놓은 곳이 장평면 분향리·청남면 원왕진·청남면 지곡리로 3곳, 단이나 당이 없이 자연석(암석)만 있는 곳이 화성면 광평리·화성면 매산리 산동마을로 2곳, 단만 있는 곳이 대치면 대치리 한티마을·정산면 내초리·정산면 대박리로 3곳, 단과 당이 함께 있는 곳이 남양면 온직리 이문마을 1곳, 그 외 당이 있는 곳이 남양면 흥산리 지방바위·대치면 광금리 너븐밭·대치면 농소리 3반 원농소마을·대치면 농소리 놋점마을·대치면 농소리 유점마을·대치면 시전리 비끼내마을·대치면 장곡리·대치면 형산리·비봉면 관산리·비봉면 중묵리 하묵·운곡면 모곡리 노루목마을·운곡면 신대리·운곡면 위라리 1구·운곡면 후덕리 대동마을·정산면 대박리·정산면 와촌리·청남면 동강리·청남면 원왕진·청남면 중산리 방죽마을· 청남면 천내리·청남면 청소리·화성면 광평리 23곳이 있었으며 장평면 구룡리 등 당이 있었다가 없어진 곳이 많았고, 이 외 화성면 구재리 2,3반과 같이 당이 있었다가 원각사 등의 절로 산제를 옮긴 곳도 있었다.

이와 같은 형태로 볼 때 청양의 단과 당은 원래 나무 바위 등의 자연물이었다가 흙을 돋우거나 넓은 바위 형태의 단이 만들어지고 단이 당의 형태로 바뀌어가는 양상을 띤다고 할 수 있다. 형태로는 당의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다. 또한 현재까지 산제를 엄격하게 드리는 마을도 있지만 많은 마을이 동제를 드리지 않게 됨으로서 단이나 당도 소멸하게 되었고 편의성에 따라 근처의 절이나 사로 제를 옮겨 지내는 등의 변화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단으로는 정산면 천장리의 칠갑산 산제단을 조사하였으며, 당으로는 정산면 대박리의 당산 산제당, 운곡면 위라리 1구의 위라리 산제당, 운곡면 후덕리 대동마을 성주산신당, 남양면 흥산리 지방바위 당산제당, 화성면 구재리, 어재울 어재동 여성당을 조사하였다.

대다수의 마을에서 초기의 제단 또는 제당은 산 꼭대기 정상에 자리하고 있었으나 점차 제의의 편의성을 위해 고도가 내려와 현재는 산 중턱 또는 초입에 자리하고 있는 곳이 많다. 그 변화상을 보면 제단에서 제당으로 발전한 경우가 많다. 그 이유 중 첫 번 째는 위패

또는 그림 등 제를 지내는 신을 모시기 위한 이유가 첫째이며, 둘째로는 제를 지낼 때 제관이 바람, 비 등을 피하고 또한 평소에 제기 등을 보관하며 제관이 제사를 준비하고 또는 쉴 곳을 마련하기 위해 건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변 마을에서 단대신에 당을 짓게 되자 이를 따라 짓게된 이유 등도 있다.

이 외 조사한 마을 가운데 화성면 구재리의 산제당은 산제를 원각사로 옮기면서 편의성을 도모하면서 산제당이 없어졌다. 이는 동제를 지내기 위한 수고를 덜기 위해 마을에서 가깝고 내내 관리되는 사 또는 절로 제당을 옮기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동제에 있어 동제를 지낼 주민의 수가 점점 적어지고 그 신앙도 점차 옅어지며 편의성이 강조됨에 따라 산제당이 없어지거나 바뀌는 경우도 생겨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동제를 엄격히 드리는 마을이 있고 소멸되거나 방치된 마을이 있는데 그 차이에는 동제를 지내는 마을 동민의 수, 마을의 경제력, 관의 도움, 마을 주민의 신앙, 제를 지내지 않게 됨에 따라 마을에 변고가 일어났는지의 여부 등이 밀접

하게 관계되어 있음이 나타났다. 동제를 지내는 동민의 수는 신앙심이 옅어짐에 따라 젊은 세대는 동제를 지내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산촌의 인구가 점점 적어지면서 마을이 자연적으로 소멸화되어가고 있어 동제도 이에 따라 점점 없어지고 있는 이유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양의 단과 당은 제를 드리고 마을신을 모시는 신앙적 장소로서 대부분 평소에는 가까이 가지 않으며 신성시하는 공간이며, 그 위치는 산꼭대기-중턱-산초입-소멸 또는 마을 가까이의 사 또는 절로 이동되었다. 이동한 이유는 제의의 편의성의 이유가 가장 크지만 처음엔 산꼭대기에 좌정한다고 믿었던 산신이 점차 마을신앙으로 바뀌면서 좀 더 마을에서 가깝고 동민을 지켜줄 수 있으며 마을 동민이 언제라도 쳐다볼 수 있는 가까운 위치로 그 위치가 이동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형태는 자연물에서 점차 인공적인 형태로 가공하고 있으며 현재는 많은 곳이 소멸되어 마을의 흥망 또는 사람들의 인식차이에 따라 신앙도 바뀌어 가는 변화상을 느낄 수 있다.

2) 청양의 사당 고찰

청양의 사당의 유형을 형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반적인 사당의 형태와 가옥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 가옥의 형태 중 대표적인 것이 영모재로, 주거 생활에 필요한 생활기반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 외 일반적인 사당의 형태는 영정이나 위패를 모시는 사당만이 존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경우에 따라서 부수적인 건물이 새로 세워진 곳도 더러 있었다.

배향인물에 있어서도 그 유형이 나누어지는데, 직계조상만을 모시는 사당과 공적을 세운 조상을 기리는 사당의 형태로 살펴볼 수 있다. 명인재의 경우가 일반적으로 직계조상만을 모시는데, 기존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집안내의 사당의 형태로 볼 수 있다. 특정 공적과 관련하여 사당을 지은 경우, 특정인물 외의 다른 조상은 사당에 모시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며 특히 항일운동과 관련한 공적을 세운 인물일 경우에는 주로 청양군청과 같은 관에서 제의에 관여하고 있다. 항일운동의 공적을 세운 조상을 기림으로써,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또한 마을의 사람들을 단합하는데 그 역할을

일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의의 주도측면에 있어서도 유형을 나누어 살펴 볼 수가 있는데, 집안 내 에서만 시제를 지내는 경우에는 청양 유림의 관여가 거의 없이 집안 주도적으로 제의가 행해지지만, 특정 인물만을 배향하는 사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양 유림이 주도하여 제의가 행해진다. 모덕사에서는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나는데 관주도의 제의인 춘향제와, 집안 주도의 제의인 추향제로 나누어진다. 상의사 역시 모덕사처럼 일 년에 두 번의 제의를 지냈으나 현재는 유림이 주도하는 추향제만 남아 있다.

각 사당별로 제의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제수의 경우, 상의사와 청대사는 제물이 모두 생으로 올라가는 특징이 나타났다. 이 같은 특징에 대해서 각 사당의 관계자는 유림의 영향을 받아서 생으로 올린다고 하였다. 이 두 곳 외에는 각 집안의 고유한 방식으로 제의를 지내고 있다. 제의 시기는 청대사처럼 청양 유림이 지정하는 날짜에 하는 곳도 있었으며, 각 집안별로 특정 날짜에 지내는데 요새는 많은 사람이 모이기가 여의치 않아 주말로 변경해서 지내기도 한다. 제관은 각 집안의 직계종손이 맡거나 지방 유지인 군수, 교육장 또는

유림 관계자가 맡아서 제의를 지낸다. 대체적으로 유림의 영향이 많은 곳은 제관, 제의 절차, 제수, 제의 비용 측면에서 관여를 받고 있었다.

종합적으로 청양의 사당은 형태적, 인물적, 제의 모습에 따라 특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제의에 관해서도 각 제의별로 집안 나름의 제의 홀기와 진설도를 가지고 엄격한 절차를 지키고 있다.

◆ 청양의 단·당·사 제보자 명단

1. 제당

1) 정산면

- 이해선(남, 55세, 정산면 천장리 5대째 거주, 전주 이씨, 이장 5년째), 2001. 07. 24, 이동아·김혜연 조사.
- 황인섭(남, 81세, 정산면 천장리 거주), 2009. 08. 06, 임장혁·오세원·임윤호·이현지 조사.
- 정일진(남, 65세, 정산면 대박리 6대째 거주), 2005. 07. 19, 정형호·최보영 조사.
- 조광호(남, 57세, 정산면 대박리 거주, 2001년도부터 9년째 마을이장을 맡고 계심. 큰골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거주), 2009. 08. 07, 오세원 조사
- 박미화(여, 47세, 정산면 대박리 거주, 조광호씨의 부인. 서산에서 90년도에 시집오심), 2009. 08. 07, 오세원조사.

2) 운곡면

- 복진봉(남, 80세, 운곡면 신대리 거주, 제관과 축관을 몇 차례 했음), 2005. 7. 16, 이덕우·임시영 조사.
- 장인환(남, 62세, 운곡면 위라리 1구 2대째 거주, 아버지 고향은 공주군 사곡면 하월리. 75년부터 20년간 서울에서 거주한 후 귀향, 예전에 서당 다님. 제관을 여러 번 역임), 2001. 7. 26. 제보자의 집,
- 명재일(남, 00세, 운곡면 위라리 거주), 2009. 08. 08, 오세원 조사.

- 임연화(여, 72세, 운곡면 후덕리 거주, 운곡면 추강리에서 시집옴), 2002. 07. 24, 임장혁·이동아 조사.
- 명환봉(남, 64세, 운곡면 후덕리 거주, 덕리 대동마을에서 태어나 살다가 잠시 서울에 거주, 작년에 다시 내려와 산제에 참여함), 2009. 08. 08, 오세원 조사.
- 김기태(남, 75세, 푸덕리 대동마을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 2009. 08. 08, 오세원 조사.

3) 대치면

- 강희수(남, 74세, 대치면 광금리 거주, 장평면 지천리 태생, 3세 때 이주), 2005. 7. 18, 김진영·이주 조사.
- 조한남(여, 83세, 대치면 광금리 거주, 예산출신, 제물준비 경험 있음), 2005. 7. 18, 김진영·이주 조사.

- 한춘희(여, 73세, 대치면 광금리 거주), 2005. 7. 18. 김진영·이주 조사.

- 최재만(남, 80세, 대치면 농소리 3반 원농소마을 13대 째 거주), 2005. 2. 22, 임장혁·김진영 조사.
- 임춘재(여, 62세, 대치면 농소리 놋점마을 거주, 24세에 청양읍에서 시집옴), 2002. 7. 26, 송지영·김현경 조사.
- 박신남(여, 72세, 대치면 농소리 놋점마을 거주, 17세에 청주에서 시집옴), 2002. 7. 26, 송지영·김현경조사.
- 복흥순(여, 72세, 대치면 농소리 놋점마을 거주. 주정리에서 17세에 시집옴), 2002. 7. 26, 임장혁·이동아 조사.
- 노광호(남, 57세, 대치면 광금리 거주, 이장), 2001. 7. 27, 김혜연·이동아 조사.
- 김성호(남, 59세, 대치면 광금리 너븐밭마을 거주, 광금리 이

장), 2005. 2. 22, 임장혁·김진영 조사.

4) 청남면

- 김지영(남, 65세, 청남면 천내리 거주, 공주시 이인면에서 이사하여 11대째 거주), 2005. 7. 17, 정형호·최보영 조사.
- 전철규(남, 85세, 청남면 천내2리 거주, 담양 전씨, 17대째 거주, 아들이 이장), 2001. 7. 28, 김혜연·이동아 조사.
- 김정운(남, 67세, 청남면(靑南面) 왕진리(汪津里) 1구 원왕진(元王津) 거주, 농업, 2대 거주, 경주 김씨, 다수의 유사 경험이 있으며, 올해에도 유사를 역임함. 불교, 부친이 평택에서 이주), 2001. 7. 28. 제보자의 집, 정형호, 서종원 조사.
- 김만영(남, 88세, 청남면 청소리 거주, 마을에서 서당 훈장 역할을 했음), 2002. 7. 23, 임장혁, 송지영 조사.
- 우제동(남, 80세, 청남면 청소리 거주, 아산 출생, 14세에 이사옴), 2002. 7. 23, 임장혁, 송지영 조사.
- 황의경(남, 63세, 청남면 청소리 거주, 현재 장화), 2002. 7. 23, 임장혁, 송지영 조사.

5) 남양면

- 정태봉(남, 76세, 남양면 봉암1리 나래미 거주, 화주를 3번 한 적이 있음), 2005. 7. 16, 임장혁·한수진 조사.
- 양시형(남, 64세, 남양면 흥산리 지방바위 거주, 흥산리 태생, 현 흥산1리 이장), 2001. 07. 16, 임장혁·한수진 조사, 2009. 8. 10, 오세원·이현지·임윤호 조사.

6) 대산면

- ○○○(여, 90세, 대산면 형산리 거주) 2005. 7. 24., 김진영, 이주 조사.

7) 비봉면

- 유천식(남 ,69세, 비봉면 관산리 거주, 제관 역임), 2005. 7. 17, 이덕우·임시영 조사.
- 이병환(남, 65세, 비봉면 중묵리 거주), 2005. 7. 19, 이덕우·임시영 조사

2. 사당

- 모덕사, 목면 송암리 171번지
- 제보자, 조사일, 조사자
- 제보자: 박찬호(74, 남) 모덕회 총무, 청양군 목면 안심리 257번지
- 조사일: 09년 08월 07일
  임장혁·임윤호·이현지 조사

- 영모재, 청양읍 장승1리 73-1번지
- 제보자, 조사일, 조사자
- 제보자: 이계복(88, 남), 영모재 장호종친회 도유사, 장포공 이효원 선생의 11대손
- 조사일: 09년 08월 07일
  임장혁·임윤호·이현지 조사

- 명인재, 정산면 해남리 모리
- 제보자, 조사일, 조사자
- 제보자: 서석영(87, 남), 모곡동 97번지
- 조사일: 09년 08월 08일
  임장혁·오세원 조사

- 현모재, 운곡면 후덕리 542번지
- 제보자, 조사일, 조사자
- 제보자: 명권식(77, 남), 후덕리 634번지, 86년부터 총무를 맡음
- 조사일: 09년 08월 08일
  임장혁·임윤호·이현지 조사

- 유의각, 운곡면 위라리
- 제보자, 조사일, 조사자
- 제보자: 박정선(39, 남), 이근상(78, 마을 노인회장)
- 조사일: 09년 08월 08일
  임장혁·임윤호·이현지 조사

- 상의사, 화성면 구재리 146번지
- 제보자, 조사일, 조사자
- 제보자: 채명석(65, 남), 현정순(61, 여)
- 조사일: 09년 08월 08일
  임장혁·임윤호·이현지 조사

- 청대사, 화성면 신정리
- 제보자, 조사일, 조사자
- 제보자: 안선영(92, 남), 안창식 선생의 4대손
- 조사일: 09년 08월 08일
  임장혁·임윤호·이현지 조사

- 율리사, 남양면 흥산리
- 제보자, 조사일, 조사자
- 제보자: 한택수(56, 남)

- 조사일: 09년 08월 08일
  임장혁·임윤호·이현지 조사

- 두촌사, 정산면 백곡리
- 제보자, 조사일, 조사자
- 제보자: 임두빈(63, 남), 임정식 선생의 12대 종손
- 조사일: 09년 08월 08일
  임장혁·임윤호·이현지 조사

■ 편자 소개

임동권
충남 청양 출생
문학박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저서『한국세시풍속연구』외 다수

정형호
충북 보은 출생
문학박사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저서『한국민속문화의 지속과 변화』외 다수

임장혁
서울 출생
문학박사
중앙대학교 부교수
저서『기우제의 비교민속학적 연구』외 다수

청양의 단(壇)·당(堂)·사(祠)

인　　쇄 | 2009년 10월 25일
발　　행 | 2009년 10월 31일

발 행 처 | 靑陽文化院(041-943-4774)
발 행 자 | 정 재 권(041-943-8889)
인 쇄 처 | 대명제책사(02-924-5049)

※ 이 책은 군비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